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유 가 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Phenomenological Evaluation Model for the Dark Tourism Experience in the Memorial Space

2022년 8월 2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유 가 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유 가 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가흥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서경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2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xi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3 연구 흐름도 ····· 8

제2장 이론적 고찰

2.1 메모리얼공간 ····· 10
2.1.1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및 발전 ····· 10
2.1.2 메모리얼공간의 기능 및 유형 ····· 19
2.1.3 메모리얼공간의 특성 ····· 25
2.1.4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 29
2.2 다크투어리즘 ····· 32
2.2.1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 32
2.2.2 다크투어리즘의 목적 및 의의 ····· 35
2.3 현상학 ····· 38
2.3.1 현상학적 개념 및 방법 ····· 38
2.3.2 현상학적 공간관 ····· 41
2.3.3 건축의 현상학적 실천 ····· 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

3.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의 관계 ····· 54
3.2 메모리얼공간의 사례 ····· 58
3.2.1 베를린 유대박물관 ····· 59
3.2.2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 ····· 63
3.2.3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 ····· 66
3.2.4 애머스포드 강제 수용소 국립기념관 ····· 69
3.2.5 소결 ····· 72
3.3 선행연구 검토 ····· 73
3.3.1 선행연구 고찰 ····· 73
3.3.2 연구의 차별성 ····· 82

제4장 메모리얼공간의 평가지표 구축

4.1 메모리얼공간평가의 선행연구 ····· 85
4.2 평가항목 선정 ····· 89
4.2.1 예비 평가항목 요소 추출 ····· 89
4.2.2 평가항목의 예비지표 ····· 100
4.3 평가 예비지표 검증 ····· 103
4.3.1 1차 중요도 조사 개요 ····· 103
4.3.2 1차 중요도 조사 결과 ····· 107
4.3.3 1차 중요도 조사 분석 ····· 110
4.3.4 전문가 FGI 심층 면접 ····· 126
4.4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 130
4.4.1 AHP 기법 활용 과정 ····· 13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2 전문가 AHP 설문조사 개요 131
4.4.3 전문가 AHP 분석 결과 136
4.4.4 연구 결과 및 지표 우선순위 종합 148
4.4.5 평가지표 점수화 150
4.4.6 최종 공간평가지표의 가중치 개발 153
4.4.7 공간항목 평가함수 개발 155
4.5 소결 156

제5장 평가 방법의 검증 및 분석

5.1 평가모형의 검증공간 선정 158
5.1.1 공간 선정 기준 158
5.1.2 선택된 공간의 상황 개술 158
5.2 평가 검증 분석 161
5.2.1 표본 설정 및 조사 161
5.2.2 공간 평가 검증 161
5.3 메모리얼공간 평가모형 개발 165
5.4 소결 168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70
6.2 향후 연구 방향성 173

참고문헌

부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2-1] 메모리얼(Memorial)과 모뉴먼트(Monument)의 비교····· 11
[표 2-2] 메모리얼공간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장····· 13
[표 2-3] 메모리얼공간의 기능····· 21
[표 2-4] 메모리얼공간의 유형분석····· 24
[표 2-5] 메모리얼공간의 유형····· 25
[표 2-6]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30
[표 2-7] 메모리얼공간의 주요 감정단위····· 31
[표 2-8] 다크투어리즘 개념····· 34
[표 2-9] 유하니 팔라스마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 45
[표 2-10] 유하니 팔라스마의 건축사례····· 46
[표 2-11]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 47
[표 2-12] 스티븐 홀의 건축사례····· 48
[표 2-13] 피터 줌터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 50
[표 2-14] 피터줌터의 건축사례····· 51
[표 3-1] 사례 선정 기준····· 59
[표 3-2]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기본 정보····· 60
[표 3-3]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공간 구성····· 61
[표 3-4]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공간 특성 표현····· 62
[표 3-5]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의 기본 정보····· 63
[표 3-6]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의 공간 구성····· 64
[표 3-7]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의 공간 특성 표현·· 65
[표 3-8]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의 기본 정보····· 66
[표 3-9]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의 공간 구성····· 6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10]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의 공간 특성 표현·· 68
[표 3-11]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기본 정보····· 69
[표 3-12]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공간 구성····· 70
[표 3-13]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공간 특성 표현·· 71
[표 3-14] 메모리얼공간의 선행연구 정리····· 73
[표 3-15]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77
[표 3-16] 현상학과 공간에 관련 선행연구 정리····· 80
[표 4-1] 메모리얼공간평가의 선행연구····· 88
[표 4-2] 건축현상학 이론적 측면의 요소 추출····· 91
[표 4-3] 건축현상학 실천적 측면의 요소 추출····· 92
[표 4-4] 건축현상학적 요소 추출····· 93
[표 4-5] 건축현상학적 요소 분류····· 95
[표 4-6] 감각 시스템과 건축의 관계····· 96
[표 4-7] 메모리얼공간 현상학적 평가의 예비지표 내용····· 101
[표 4-8] 전문가 중요도 조사 개요····· 103
[표 4-9] 응답자 현황····· 104
[표 4-10] 응답자의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체험····· 104
[표 4-11]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105
[표 4-12] 공간 요소별 중요도 점수····· 108
[표 4-13] 평가지표별 상관관계····· 110
[표 4-14] 감지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110
[표 4-15] 감지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12
[표 4-16] 감지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12
[표 4-17] 조형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113
[표 4-18] 조형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114
[표 4-19] 조형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11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0] 구조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 116
[표 4-21] 구조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 117
[표 4-22] 구조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 118
[표 4-23] 환경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 118
[표 4-24] 환경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 120
[표 4-25] 환경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 120
[표 4-26] 전체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 121
[표 4-27] 전체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 122
[표 4-28] 전체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 123
[표 4-29] 사회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 123
[표 4-30] 사회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 125
[표 4-31] 사회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 125
[표 4-32] FGI 응답자 현황 ····· 126
[표 4-33] 평가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 ····· 127
[표 4-34]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공간평가 항목 지표· 132
[표 4-35] 쌍대비교 문항과 척도 설명 예시 ····· 134
[표 4-36] AHP 기법 쌍대비교 척도의 설명 ····· 134
[표 4-37] AHP 조사 개요 ····· 135
[표 4-38] AHP 응답자 기본 특성 ····· 135
[표 4-39] 6개 요소의 AHP 데이터 ····· 136
[표 4-40] 6개 요소의 AHP 분석결과 ····· 137
[표 4-41] 6개 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 137
[표 4-42] 감지요소의 AHP 데이터 ····· 138
[표 4-43] 감지요소의 AHP 분석결과 ····· 138
[표 4-44] 감지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 139
[표 4-45] 조형요소의 AHP 데이터 ····· 14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46] 조형요소의 AHP 분석결과····· 140
[표 4-47] 조형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140
[표 4-48] 구조요소의 AHP 데이터····· 141
[표 4-49] 구조요소의 AHP 분석결과····· 142
[표 4-50] 구조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142
[표 4-51] 환경요소의 AHP 데이터····· 143
[표 4-52] 환경요소의 AHP 분석결과····· 144
[표 4-53] 환경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144
[표 4-54] 전체요소의 AHP 데이터····· 145
[표 4-55] 전체요소의 AHP 분석결과····· 145
[표 4-56] 전체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145
[표 4-57] 사회요소의 AHP 데이터····· 146
[표 4-58] 사회요소의 AHP 분석결과····· 147
[표 4-59] 사회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147
[표 4-60] 공간평가 항목 AHP 결과 종합····· 149
[표 4-61] 평가항목별 변환점수····· 150
[표 4-62] 감지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150
[표 4-63] 조형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151
[표 4-64] 구조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151
[표 4-65] 환경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152
[표 4-66] 전체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152
[표 4-67] 사회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153
[표 4-68] 최종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종합표····· 154
[표 5-1] 731 부대 죄증 진열관 현황····· 159
[표 5-2]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의 공간 구성····· 160
[표 5-3] 731 부대 죄증 진열관 공간평가 결과····· 16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4] 공간평가 세부지표 평가점수 결과····· 163
[표 5-5] 공간평가가 가진 함수 ····· 165
[표 5-6] 메모리얼공간평가모형 ····· 16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1]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년도별 방문자 수의 변화····· 4
[그림 1-2] 연구 흐름도····· 8
[그림 2-1] 국립 흑인역사 문화박물관····· 15
[그림 2-2] 유럽 피해 유대인 기념비····· 16
[그림 2-3] 중국 난징 침공 일본군 대학살 기념관····· 17
[그림 2-4] 노스찰스턴 해군기지 기념관····· 18
[그림 2-5] 원촨(汶川) 대지진 온라인 기념관····· 19
[그림 2-6] 메모리얼의 특성 분석····· 28
[그림 2-7] Duncan Light의 1996년~2016년사이 다크투어리즘에 관한 논문연구 횟수집계····· 32
[그림 2-8]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의 2012년 국가별 방문 통계····· 36
[그림 2-9]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36
[그림 2-10] 건축현상학 계승관계····· 43
[그림 3-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구현방법의 관계도·· 58
[그림 4-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 프로 세스·· 88
[그림 4-2] 평가지표의 중요도····· 108
[그림 4-3] 감지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1
[그림 4-4] 조형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4
[그림 4-5] 구조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7
[그림 4-6] 환경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19
[그림 4-7] 전체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22
[그림 4-8] 사회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124
[그림 4-9] 공간평가 항목의 계층 구조····· 13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10] 평가항목 영역의 AHP 중요도····· 137
[그림 4-11] 감지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39
[그림 4-12] 조형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1
[그림 4-13] 구조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2
[그림 4-14] 환경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4
[그림 4-15] 전체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6
[그림 4-16] 사회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147
[그림 4-17] 공간평가 평가점수표 계산식····· 15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Development of a Phenomenological Evaluation Model for the Dark Tourism Experience in the Memorial Space

Liu, Jiaxing
Advisor : Prof. Yoon Gab-geun,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morial space and the society has been well reflected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mmemoration. The memorial space 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gion are combined and are set up for the economy and spiritual feelings of the region based on special memories, characteristic tourism experiences and daily life needs.

In the new era, the memorial space is an important urban space dominated by spiritual symbols. It is developing towards spiritual healing and attaching importance to individual experience, connecting with the daily life of urban residents, and becoming the driving subject of black tourism. Under this context, we need to have new thinking for traditional memorial spaces, and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erception, behavior, environment and other elements, therefore, it will become an important consideration.

Currently, the memorial spac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Dark Tourism experience, while meeting the basic commemorative activities, as the visitors' behavioral and emotional needs should also b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sidered. With the expansion of the demand for Dark Tourism experience, 3D projection, VR technology, interactive media and other cutting-edge information technology is rapidly evolving into a variety of functions and functions of the facilities, but the design trend of the main body of the body practice is still the main content of the study of the memorial space, and actively explore the organic linkage between real space and virtual memorial, and strive to achieve the cultural value and social function of the human memorial space in coexistence and complementarity is a content that we cannot ign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place and environment, body and space, technology and experience, this study applies the phenomenological spatial cognition method to the memorial space, and pays attention to the cognitive elements of phenomenology as a whole to study, providing multi-dimensional experience for visitors of dark travel, so that the memorial space reflects new values and meanings in the new era. The resulting phenomenological spatial perspective provides an evaluation model for the commemorative space centered on the whole, perception and behavior of the experiencer.

Based on the spatial perspective of phenomenological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extracts 24 spatial elements of phenomenology and divides them into 6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it developed the first preliminary project evaluation table, and obtained the final spatial evaluation project through the importance analysis of the problem and the expert FGI in-depth interview. Then it conducted the spatial evaluation indicators obtained from the first screening, conducted the second expert AHP questionnaire and developed the weighted value synthesis table and project evaluation function of each project.

In this study, it validated the evaluation model, and selected the sample of the evaluation index from the newly built memorial space after 2010, and finally gave priority evaluation to 6 manager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s and analyses we obtained through the questionnaire are likely to vary according to the subjective views of the evaluators and th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ifferent departments to which they belong. From the spatial evaluation result table,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e scores of different evaluators for the spatial evaluation. From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with different propensity to score high and low, we can find similar distributions of scores by years of work or work sector.
The spatial evaluation model developed uses a significance analysis to derive the highest priority according to the evaluation items, and this detailed spatial evaluation model can be clearly evaluated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 The spatial evaluation model is an objective evaluation with the function of evaluation and professionalism, which is very beneficial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spatial evaluation.
It is hoped that when designing and renovating the memorial space in the future, the space evaluation model can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stage to improve the space experience.

Keywords: Memorial Space, Dark Tourism,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연구 흐름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간과 인간의 사상이 진보하면서부터 공간은 일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형식과 콘텐츠에 대한 욕구도 달라져 감정과 경험으로 출발하는 공간연구가 현재 건축 및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이브러햄 해롤드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1]는 심리학의 관점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심리적 욕구는 자신의 가치에 관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간과 사람의 신체적 관계와 인간에 대한 정신적 영향과 함께 공간의 궁극적 가치에 관해 연구했다.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2]는 건축을 세계와 사상 사이의 중개자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의 모든 건축과 이론은 감각적 체험과 촉각의 중요성을 통일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 국적의 중국인 I. M. 페이(Ieoh Ming Pei)[3]는 건축을 통해 공간과 사람의 관계와 신체감각이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중국의 신예 건축설계사 위나(魏娜)[4]는 '접힌 공간(Suffused Space)'을 통해 공간 디자인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오늘날 대부분 디자이너는 프로젝트 설계나 이론연구에서 공간과 인간, 그리고 장소의 관계와 신체의 감지와 행동이 디자인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흐름은 메모리얼공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먼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정현애(2018)[5]는 사회변천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의한 메모리얼공간은 추억의 매개체의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따라서 메모리얼공간을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제시하여 관광업과 더불어 힐링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

1) 랜디. 매슬로 수요층 이론에 기초한 도시 공공공간 경관설계. 2021. 중남임업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4.
2)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Wiley, 2012. p.14.
3) 필립 조디디오(Philip Jodidio). I.M. 페이 전집. 북경연합출판유한공사, 2021. p.23.
4) 위나. 접힌 공간(Suffused Space).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19. p.59.
5) 정현애. 5·18 기념공간의 변화와 활용 연구. 2018.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1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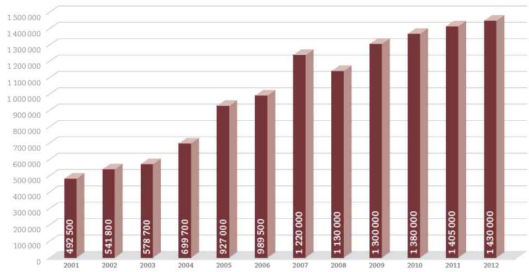
장했다. 배세연(2021)[6]은 포스트 기념 시대에 이르러 메모리얼공간의 수요도 변화한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메모리얼공간은 추억과 기억의 장소를 넘어 여행의 장소까지 포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지연(2013)[7]은 과거 공간전시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역사적 기억과 진실한 애도를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간의 콘텐츠는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시의 정서와 기념적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상학적 관점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감정, 정신, 추억을 강조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본질적 내포와 감지체험방식은 새로운 디자인적 관심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김윤정(2016)[8]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구조와 방법을 현상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정서와 분위기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공간의 분위기를 체험하는 감정의 구조를 연구하였다. 이진경(2019)[9]은 공간의 비례 질서와 빛을 현상학적 이론에 적용하여 종교에 관련된 메모리얼공간을 연구하였다. 이약성(李若星, 2014)[10]은 지각 현상학을 바탕으로 신체의 특성이 건축 속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을 설계하는 방법을 임보디드 디자인(Embodied Design)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경험은 본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했다. 공간에 관한 연구의 방향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감정·체험화 되면서 공간의 정신적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정보 시대의 정신적 문명의 전달이 중요해지면서, 기념적 공간은 도시 발전의 변혁에서 그 내용, 형태가 모두 변화되고 있으며 메모리얼공간 또한 정신적 상징이 중요한 도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신적 치유와 개체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6) 배세연. 포스트메모리세대의 다크투어리즘을 위한 메모리얼 공간디자인 연구. 202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76.
7) 우지연. 회복력 있는 도시: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24.
8) 김윤정. 체험적 정서성으로서 공간 분위기의 생성방법 연구. 2016.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290-292.
9) 이진경. 현대 기독교 건축공간에 나타난 비례 질서와 빛 현상의 시지각 관계에 관한 연구 : 르 코르뷔지에, 돔 한스 반 어 란, 알도 반 아이크 프로젝트 중심으로. 2019.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79-80.
10) 이약성. 자체 디자인(Embodied Design). 2014. 청화대학교, 박사학위. p.1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1]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년도별 방문자 수의 변화

출처: Patrichi Ioana Cristiana. "Dark tourism - a niche segment for the romanian tourism".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2013, p354. 전재 Sprawoxdanie Report,2013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의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거의 백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그림 1-1]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공간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다크투어리즘의 견인차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공공문화시설에서 중요한 구성으로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관점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메모리얼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전시·기술화에서 벗어나 체험적, 정서적 공감,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공간의 관념이 아닌 실천적 관점에서 메모리얼공간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추억과 체험을 강화하여 인간 중심적 환경에서 도시 발전과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모리얼공간의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이를 현상학적으로 인지·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념'이라는 개념이 가상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공간을 평가함으로써 전통적인 메모리얼공간에 현대적인 기념 및 정신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실적인 신체 체험을 강화하여 도시 발전의 기념적인 부분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크투어리즘이 성행하고 있는 근래의 추세에 맞춰 메모리얼공간을 좀 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확장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간 서사체험 사고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메모리얼공간의 다양화와 더불어 대중화를 기념하고, 미래 메모리얼공간과 관련된 정신적 공간의 조성을 위해 개인 체험을 강조하며, 일상에 녹아든 공간에 대한 평가의 관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인간의 감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구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메모리얼공간 인지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모더니즘 이후 점진적으로 정신적 욕구가 강조된다는 전제하에 건축에서 물질과 비물질적 요소들의 혼합 작용이 제시된 메모리얼공간에서의 인지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 평가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공간에 대한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메모리얼공간의 현상학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모리얼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고, 메모리얼공간의 내용, 기능, 현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메모리얼공간과 사람의 필요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구성 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메모리얼공간의 공간단위 구성을 명확히 하고, 후면 실증분석을 위한 공간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전체구성, 전시공간, 추모공간, 연결공간, 외부공간, 명상공간 등 6개의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다크투어리즘과 현상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과 현상학적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메모리얼공간 현상학적 평가의 목적과 의미를 정해 실증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계(공공디자인, 실내디자인, 전시디자인, 시각디자인) 및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 가중치를 정하고 평가모형을 선정한 이후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해 평가 검증을 거쳐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기념에 대한 개념과 물질적 욕구가 정신적 욕구로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는 메모리얼공간의 표현들을 살펴본다. 메모리얼공간의 내용과 기능을 파악하고, 메모리얼공간의 의식성부터 일상생활 활성화, 대중화, 기념비부터 반 기념비까지 추세를 살펴본다. 메모리얼공간의 트렌드, 기능, 본질을 통해 메모리얼공간의 공간특성을 정리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메모리얼공간의 단위 구성을 감정과 기능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목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크투어리즘의 발전 현황과 미래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의 체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현상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현상학의 개념과 방법론, 현상학의 공간관, 건축현상학의 실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간영역에서의 현상학의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관점을 연구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현상학적 연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과 현상학적 연관성을 설명함으로써 현상학적 공간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2000년 이후 다크투어리즘이 인기를 끌었던 메모리얼공간 4곳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으며, 2장에서 정리된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앞서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현상학 세 가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본 장과 앞 문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설문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4장에서는 현상학적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공간평가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항목을 만들어 1차 예비평가 지표를 도출한다. 처음 도출된 공간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중요도 분석 및 전문가 FGI를 통해 최종 공간평가 예비지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고 공간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화해 평가모형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평가모형이 검증한 공간 선정 기준은 https://www.dark-tourism.com(다크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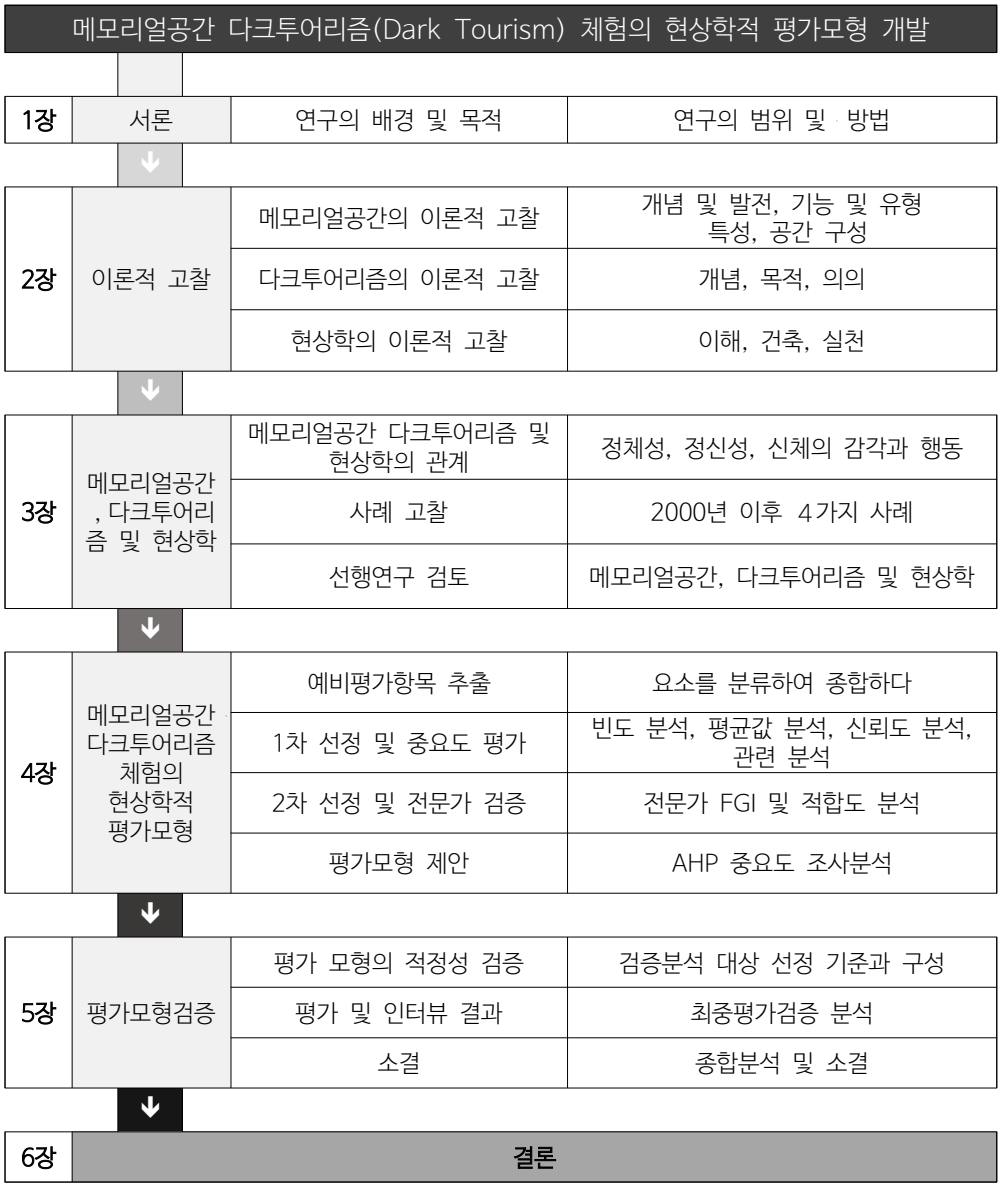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리즘 사이트)에서 중등 이상(Darkometer ranking list 4이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이후 신축한 메모리얼공간이다. 조사 대상은 디자인(실내디자인, 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시각디자인)이나 건축 분야 전문가로 설문조사를 한 뒤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제6장 전문 연구를 기초로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최종적으로 메모리얼공간 재건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3 연구 흐름도



[그림 1-2] 연구 흐름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론적 고찰

2.1 메모리얼공간

2.2 다크투어리즘

2.3 현상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이론적 고찰

2.1 메모리얼공간

메모리얼공간의 이론적 고찰은 주로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발전추세, 기능, 유형, 공간특성,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다뤄진 기초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전통적 메모리얼공간과 현대적 메모리얼공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에 새롭게 정의되는 메모리얼공간의 기념의미를 명확히 하고,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분석을 통해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할 수 있는 평가단위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1.1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및 발전

(1)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①기념의 이해

Memorial은 사전적 의미로 명사로는 '기념비' '기념물' '기념관'을 나타내며, 형용사로는 '기념하는' '추모의'를 뜻하며 고인을 기리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Memorial과 Monument는 모두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단어가 혼용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기념의 의미를 모뉴멘트와 비교한다. 강혁 외(2003)는 Monument와 Memorial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 표현 수단을 통해 공동체의 이상이나 초월적인 가치를 영구적으로 오래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서희정(2018)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어원과 변화 과정을 보면 Memorial의 전 단계인 Memorial에는 Monument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Memorial이 Monument를 포함한 더 큰 기념의 개념이라고 의미하였다. Memorial은 건축개념에서 Monument(기념물)를 포함한 기념적인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김지은(2021)은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 재향 군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념관(Vietnam Veterans Memorial)과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을 비교 설명하여 Memorial의 공간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선행연구만 보더라도 Memorial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광범위하고 적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메모리얼(Memorial)과 모뉴먼트(Monument)의 비교

연구자 (년도)	메모리얼 (Memorial)	모뉴먼트 (Monument)
김지은 (2021)	기념의 특성이 강함	조형물의 특성이 강함
	애도와 추모의 공간	조형물
	슬픔을 위로하는 장소	영웅, 인물, 사건을 기념하는 추상적인 상징물
서희정 (2018)	범위가 넓음	범위가 좁음
	기념물 포함한 공간	기념물을 중심으로
윤태건 (2016)	부조리한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victim)기념	영웅의 숭고한 희생(sacrifice)기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줌	다르게 해석하고 읽어낼 여지를 제한
	추모하는 것	축하하는 것
이현아 (2015)	과거에 대한 기억 전반	과거에 대한 연상과 상징
	모뉴먼트를 포괄하는 상위개념	메모리얼의 하위개념
	기억을 위한 건축물 기념비적 시설	기념비적인 것
주학유 (2013)	기억하는 행위에 중심을 둔 추상적 표현	기억하기 위한 물체를 지시하는 구상적 표현
	기억에 대한 감성적 언어	이성적(지시, 경고, 상기) 언어,
	기념[명사], 기념의[형용사]	기념비[명사]
문은미 (2008)	애도하는 성격이 강함	경축하는 성격이 강함
	죽음이나 상실의 슬픔을 위로하는 공간과 장소	전쟁의 승리나 위대한 영웅을 상장

* 서희정. 메모리얼에서 집단기억 특성과 공간 연출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2018. 홍익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재구성

또한 한국어에서도 '추모'와 'Memorial'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지우(2020)는 '추모'가 영어로 번역될 때 Memorial과 Cemetery의 두 가지 유사어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의미는 대체로 같지만 미묘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이가 있다. ‘Memorial’이란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죽은 자와 그 사건에 대해 회상하는 것을 말하지만 ‘Cemetery’는 고인이 중심이 되어 고인이 잠든 곳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메모리얼공간이란 다크투어리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과 치유 위주의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의 체험인지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념의 의미는 ‘Memorial’의 개념에 가깝고, 한국어로는 ‘메모리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②메모리얼공간

메모리얼공간은 오랫동안 그 본질과 내포되어있는 형식과 기능, 그리고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메모리얼공간은 역사의 실화와 형식의 상징적 전달을 강조하였다. 유진근(1996)은 메모리얼공간의 특성과 추구하는 목적은 ‘밝고 아름다운 내용’보다는 ‘어둠, 슬픔’을 지향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2000년 전후의 메모리얼공간은 그 기능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역사적인 기억의 단일함에서 정신치유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Wasserman(1998)은 추모, 기억, 치유, 지역사회 활동의 장으로서 교육과 정서가 있는 곳이며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정의하였다. 기념의 대중화와 생활화, 다크투어리즘의 활성화로 공간의 체험성과 정서적 성찰을 더욱 부각시켰다. 송경옥(2007)은 메모리얼공간의 체험을 강탈하고 기념 대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 기념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감정이입과 반성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기억을 다시 확인하고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였다. 문은미(2008)는 체험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대의 메모리얼공간을 집단 체험보다는 개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현대 메모리얼공간은 사실의 재현이나 정보전달보다는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부재를 공간에 투사하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서희정(2018)은 마야린(Maya Lin)의 ‘베트남전쟁 재향 군인 기념관’을 예로 들어 현대 기념의 효시라고 언급하였고 기념행사를 체험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직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전통 기념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가 발전하고 공간에 대한 감정 욕구가 더욱 확대되어 공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다차원적 체험과 정신적 치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지우(2020)는 현대의 메모리얼공간이 역사상의 비극과 잊혀질 위험이 있는 과거를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메모리얼공간은 기념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애도, 슬픔, 기념, 회고, 치유, 공감 등의 감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궁극적인 역할은 기억 자체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류와 기념을 통해 오늘날의 가치관을 강화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지은(2021)의 견해는 기념의 공간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현대적인 기념에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였다. 애도와 치유를 포함한 기억 표현, 관람자 체험, 소통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고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배세연(2021)은 메모리얼공간을 기억 저장매체로 삼아 과거의 사건을 직접 겪지 못한 포스트 메모리얼 세대의 다크투어리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였으며 현대 메모리얼공간에 반영된 개별 체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체험단위과 정보단위을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공간 자체에 계층적인 체험 구조를 만들어 기억을 관람객의 개별적 체험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표 2-2]메모리얼공간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장

연구자 (년도)	주장
배세연 (2021)	메모리얼공간은 기억을 저장하는 매체로 다크투어리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김지은 (2021)	애도와 치유를 비롯해 매체 역할을 하며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됨
김지우 (2020)	개인의 교류와 기념을 통해 현대 가치관을 강화함
서희정 (2018)	기념행사는 더욱 더 참여적이고 체험적임
문은미 (2008)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함
송경옥 (2007)	체험을 통해 기념 대상을 알아봄, 감정이입과 성찰을 통하여 기억하게 함
Wasserman (1998)	공간의 체험과 정서적 성찰이 더욱 돋보임
유진근 (1996)	'어둠, 슬픔'으로 명확한 정보를 전하는 경향이 강함

메모리얼공간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재정의해 본 연구의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얼공간을 정신적 공감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복합문화공간 매개체라고 정의했다. 그 이유로는 메모리얼공간은 기억, 애도, 치유 등의 기능과 함께 상징, 은유, 가상 등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현을 통해 다차원적인 신체감각과 체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모리얼공간은 다크투어리즘의 한 체험장이자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감정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메모리얼공간은 역사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 도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2) 메모리얼공간의 발전

인간의 사회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정치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문화 또한 날로 번영함에 따라, 전통적 메모리얼공간은 현대 사회의 정신적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메모리얼공간의 디자인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메모리얼공간은 명확한 기념내용과 기념정보를 가지고 공간체험과 다차원적 서사를 강조하여 개인의 감정과 집단적 기억을 자극하고 인간의 정신에 대한 치유기능을 갖는 기념적인 장소이다. 구체적으로 새 시대의 메모리얼공간은 기념주제 다변화, 다차원적 공간 서사, 반 기념비, 일상생활성, 상징성, 신체참여성, 가상체험 등 7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념주제의 다변화

사람들이 기념하는 행사는 시대에 따라 기념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기술과 시장경제의 발전 배경 아래 사회의 다양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 풍조는 전통사회와 매우 큰 차이를 낳았다. 또한 현대인은 고효율을 중시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생활의 다양화를 바라고 사람 중심, 지역적 특성, 지역적 전통 존중을 강조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도시 경관과 건축 공간은 사람의 심리, 행동, 인식에 대한 감수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 역시 함께 강조하고 있다.[11] 이는 기념 건축물을 과거와 비교하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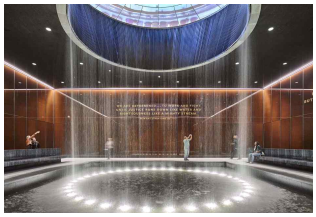
11) 정려양. "현상학과 건축사승관계 도해". 시대건축, vol.2010,no.12, 2010, p.6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념적인 건축은 다원적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의 의미는 의식을 하던 장소에서 더 많은 전시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신권과 군권이 멀어지고 인권과 자유의 사상이 강해지는 모습으로 탈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12)]

②다차원적 공간서사

메모리얼공간 정보전달 방식이 바뀌면서 기념내용은 물론 관람객과 공간의 관계도 바뀌었고,[13)] 서사에 대한 공간의 요구도 더욱 높아졌다. 기념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도 필요하고, 공간의 몰입도와 참여를 높여[14)] 기념주제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간서사 디자인은 공간 체험디자인을 지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공간 동선의 배치, 공간구조의 설계, 공간체험의 몰입도 등과 관련이 있다. 기념메시지, 기념주제, 가치 성향, 교육이념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5)] 따라서 다차원적인 공간서사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의 혁신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현대 메모리얼공간 디자인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1] 국립 흑인역사 문화박물관
출처:https://www.gooood.cn/national-museum-of-african-american-hist

③ 반 기념비

2000년을 전후한 메모리얼공간에는 이미 반 기념비(Counter-monuments)적 디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반 기념비 디자인은 전통적으로 일상 공간과 분리된 기념비보다 개연성에 초점을 맞췄다. 불명확한 경계와 방향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일상적인 도시 공간으로 끌어들였다.[16)] 일본인 건축가인 쿠마 켄고(Kengo Kuma)는 건축을 환경에 융합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건축 소재를 입자화하는 등

12) 주학유. 현대 기념건축에 대한 연구 : 기념성의 개념정의와 기념건축의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2013.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65-67.
13) 정홍민. 다감각적 건축공간을 적용한 세월호 추모공간계획. 2018.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58.
14) 박진호. 현대박물관의 전시내러티브 구조에 따른 의미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역사계박물관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1.
15) ibid., p.2.
16) Quentin Stevens, Karen A. Franck, Ruth Fazakerley. "Counter-monuments: the anti-monumental and the dialogic".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23,no.5, 2018, p.72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무질서한 설계로 건축과 환경의 융합을 꾀하였다.[17] 예를 들면 미국 9.11 국가기념광장(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유럽 피해유대인기념비(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등이 있으며 기념경관 디자인에서 기념건축물을 환경에 융합하였다. 또한 대화식도 기념물인 '반 기념비'의 구현으로 현대의 기념물에서는 명상공간으로 대화식 공간을 만들어 기념적 사건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다.[18]

[그림 2-2] 유럽 피해유대인기념비
출처:https://www.theolinstudio.com/memorial-to-the-murdered-jews-of-europe

④공간의 일상생활성

전통적으로 메모리얼공간은 관람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설계자는 크고 수직적인 기념물로 하여금 지상에 표현하고, 거대한 잣대로 경외감을 느끼게 하였다.[19] 현대의 메모리얼공간은 관람객과 메모리얼공간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 심리체험에 중점을 두며, 메모리얼공간은 단일하고 높은 기념물에서 벗어나 메모리얼공간, 기념장소로 디자인, 관람객의 심리체험에 중점을 두며 감성적인 기념물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피해유대인기념비의 설계자 피터 아이젠먼(Peter Eisenman)은 '우리는 기록이 아니라 관람자 개개인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명상을 하고 점심도 먹고 산책도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주체의 공원이 아닌, 사실적인 체험과 느낌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한다'고 하였다.[20] 현대의 메모리얼공간은 종종 관람자에게 더 많은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람자의 이성적인 비판과 사고에 더 많은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관람자의 가치관념, 미적 의식, 문화예술적 소양, 새로운 사회생활 방식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17) 이초, 동량. "아사히쿠마 연고의 은밀한 건축의향". 청도이공대학 학보, vol.35,no.4, 2014, pp.50-53.
18) Quentin Stevens, Karen A. Franck, Ruth Fazakerley. Op. cit., p.732.
19) 주학유(2013). Op. cit., pp.74-76.
20) 기쟁. "피터 에센만 인터뷰-유럽 유대인 희생자기념비 설계". 세계건축, vol.2005,no.10, 2005, p.11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⑤ 상징성

메모리얼공간에서의 상징 기법 활용은 표현력이 뛰어나며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시공간을 초월해 인물, 사물을 재구성해 디자이너의 구상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이너는 생명에 대한 사고, 특정 역사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을 작품의 표면 형식을 통해 이미지의 전형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 디자이너는 추상적인 이념과 인간적 배려를 구상적 형태로 전달해 작품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메모리얼공간은 다른 공간과는 달리 시대적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정신적인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미적 개발에 특정 공간을 활용하고 본체의 내재적 정신적 의미를 암시하는 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21)]

[그림 2-3] 중국 난징 침공 일본군 대학살 기념관
출처:https://www.meipian.cn/1w50ism9

상징적 기법은 시각, 숫자, 공간 상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난징(南京)에 있는 중국 침공 일본군 대학살 기념관(The Memorial Hall of the Victims in Nanjing Massacre by Japanese Invaders) 건축과 같이 '단도(斷刀)' 형태로 시각적인 상징을 형성하고, 경사진 광장 도로는 스크래치를 상징한다. 디지털 상징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섬뜩한 '300000'이라는 숫자는 난징대학살에서 일본군의 총검에 의해 참사한 30만 명의 무고한 동포들을 상징한다.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은 공간 디자인에 상징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육각형의 기념당은 대위성을 상징하면서도 대학살로 숨진 600만여 명의 유대인을 상징한다.[22)]

최근에는 상징적 공간이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건 자체를 상징하기보다는 사건이 낳는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전시를 주기능으로 하는 공간과 지상과 지하 또는 내부와 외부의 위치를 구분하여 보다 독립적인 공간적 특징을 가지게 하였다.[23)]

21) 강기우. "기념 전시공간의 상징적 표현기법". 과학기술혁신 가이드, vol.2008,no.13, 2008, p.94.
22) 팽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의 공간적 상징과 전시 서사". 인테리얼, vol.2017.no.4, 2017, p.97.
23) 배세연(2021). Op. cit., p.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⑥ 신체참여성

[그림 2-4] 노스찰스턴 해군기지 기념관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

안도 다다오(Tadao Ando)는 '자신의 이목구비를 통해 공간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깊이 있는 사고과정을 진행해야하며 이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 사람이 삶을 체험하고, 전통적 요소를 감지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24] 라고 하였으며 이목구비를 살려 공간의 예술적 감화력을 실감케 하는 것이 기념적인 공간의 디자인 트렌드로 하여금 공간적 경계 내부의 다양한 재질, 색채, 허실, 비례, 척도 등을 다양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전시매체를 통해 기념적인 주제 표현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25] 미국 노스찰스턴 해군기지 기념관(The Greater North Charleston Naval Base Memorial)에서 군함의 윤곽을 상징하는 곡선 패널로 도랑으로 주변을 감싼다. 프린트 금속판으로 해군 역사 화면을 붙여 음성과 빛 등을 이용해 해군 전함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활용 건축, 경관, 도표와 미디어 전시의 목적은 기념 대상이 표현하는 주제와 의미를 공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⑦ 가상체험

정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통 메모리얼공간의 가상화가 연장되어 전통 메모리얼공간의 구현방식뿐만 아니라 그 운영형태를 재구성하였다.[26] 주로 메모리얼공간에서 표현 방식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바뀌어 공간의 디지털 서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인지의 차원을 높였다. 또한 인터넷상의 메모리얼공간으로 하여금 참여자의 신체에 대한 특정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메모리얼공간에 참여자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24) 안도 다다오, 백림 역. 안도 다다오 건축론.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03, p.67.
25) 구덕화, 우휘. "기념건축의 공간형태 변천 및 디자인 트렌드 분석". 화중건축, vol.36,no.11, 2018, pp.16-20.
26) 적광영, 이정. "메모리얼공간의 네트워크화 전환과 그 문화적 영향". 중주학간, vol.2019,no.2, 2019, pp.167-17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와 같이 현대인이 기념하는 방식을 다원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발전되고 제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 예술, 기술 분야의 발전은 다원적인 측면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 특히 매개예술의 발전으로 건축은 정보전달과 감정표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오늘날의 메모리얼공간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온하고 친근한 자세로 민중의 일상에 녹아들어 생활 속 체험, 나아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메모리얼공간은 영상, 장치, 경관, 빛의 그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체험자의 다차원적 감각과 행동체험을 계발, 은유, 유도하여 참여자와 역사를 연결하는 매체이다.

[그림 2-5] 원촨(汶川) 대지진 온라인 기념관
출처http://www.xinhuanet.com/i

기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고, 가상의 인터넷 기념 형태는 보조 업태로서 역사와 문화의 기념에도 힘을 더했다. 그러나 도시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치유, 어두운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체적 실천을 주체로 하는 실체적 공간은 여전히 메모리얼공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남아 있다. 다크투어리즘[27]의 기술이 실체 공간 표현의 보조 형태로서 풍부한 공간의 체험을 통해 문화에 대한 기억을 깊게 하고 있다.

2.1.2 메모리얼공간의 기능 및 유형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능화에서 감정화로의 전환 공간의 본질과 내포는 전통기념관을 훨씬 넘어서서 일반적인 이해의 기념관과 달리 정신적,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복합공간이다. 따라서 역사관, 기념관, 명인관, 죄증 진열관 등 기념기능을 가진 공간은 모두 메모리얼공간에 속한다. 메모리얼 기능과 분류에서 메모리얼공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7) 다크투어리즘이란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 감정, 기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비극적인 사건, 사고(죽음과 재난, 재해 등)를 유적, 전시관, 공원 등의 장소를 통해 다차원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방문의 가치를 느끼는 관광이라고 정의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메모리얼공간의 기능

메모리얼공간의 기능은 발전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초기의 기능은 주로 추모, 교육, 역사기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메모리얼공간의 범위는 큰 변화가 생겨났으며 메모리얼공간의 사회발전에서의 기능적 역할은 역사적 사건, 인물 등에 관한 문화 해설과 유물 보존에서 감정적 측면에서 도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됐다. 특히 다크투어리즘의 유행으로 공간 기능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메모리얼공간의 기능을 정리하여 새로운 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메모리얼공간 기능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며, 첫 번째 방향은 박물관과 방문자 관점이다. 박희명(2011)은 박물관의 한 기능의 유형으로 봤다. 현화(2017)는 이를 참고하여 각각의 기념관을 다양한 목적에 따라 건립하였다고 봤다. 그 기능은 크게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추모, 문화교류, 교육, 경험적 교육, 서비스, 정보제공, 휴식과 오락, 역사해설의 8가지 주요 기능을 정리하였다. 김하경(2020)은 역시 박물관류의 고유기능(자료수집, 기록, 연구, 보존, 전시)에서 설명했으며 새로운 시대 아래 메모리얼공간 관람자가 주체가 되고 있으며 관람자에 대한 교육지원, 정신치유, 기념행사, 예술체험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방향은 기억과 경험의 관점이다. 서희정(2018)은 기억의 관점에서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체로 시청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애도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따라 기억, 애도, 치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메모리얼공간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김지우(2020)은 기념시설은 집단경험을 제공하고 기억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의 가치관과 이념적 취향을 대변하였다. 또한 역사를 가지고 문화, 교육, 예술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지은(2021)은 메모리얼공간의 유형(교육지원공간, 감성공간, 일상적 도시공간, 치유공간)에 따라 메모리얼공간은 기념기능, 관람 기능, 물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박물관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공간 기능을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념의 목표는 우선 기념의 대상을 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거나 기억하게 한 후, 알게 된 사실과 기억을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강화시켜 정서적 공감과 성찰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기념의 대상이 사회에 자극되고 전파되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사회 속의 개체를 치유하며, 사회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관람자의 관점에서 관람자의 체험목적에 따라 교육 기능, 감성적 체험기능, 일상적 도시 체험기능 등 3가지로 메모리얼공간의 기능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 중 교육 기능은 역사, 문화, 교육의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성적 체험은 치유, 미술 두 가지 기능을 담고 일상적인 도시체험을 교류 기능으로 한다.

[표 2-3] 메모리얼공간의 기능

기능		설명
교육적 체험	역사	역사적 사건의 과정을 역사적 사실적 관점에서 설명함 기본적인 역사적 실증을 형성함
	문화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건 체험자의 개인 기억을 집단 기억으로 만듦
	교육	관람자는 영상, 책 자료, VR 체험 등을 통해 전시 콘텐츠를 이해함
감성적 체험	치유	감정의 체험과 정신의 기탁을 통해 감정의 치유에 이뤄짐
	미술	예술적인 분위기 렌더링을 통해 관람자에게 강렬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하고 사건의 기억을 증진시킴
일상적 도시체험	교류	일상적인 활동, 집회, 교류 공간을 제공함

• 역사기능 : 단순히 사라지기 쉬운 파일이 아닌 특정한 사실과 사건을 공간적 기록의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후세에 믿을 수 있는 기억과 공간을 제공한다. 기억과 공간의 재구성은 기념식 거행으로 공간의 기념을 강화할 수 있으며, 메모리얼공간은 기념식 거행의 기초가 되지만, 정신의 뒷받침을 제공하여 기념식의 신성한 분위기와 역사적 현장감을 조성하고 역사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의식을 통해 깊은 기억을 갖게 한다.

• 문화기능 : 시대의 문화사조를 반영하고 선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발전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비사건 체험자로서 세대 간 전달, 메모리얼공간 디자이너의 홍보를 통해서만 피기념자나 사건에 대해 얀 아스만이(Jan Assmann) 말하는 문화적 기억이 형성될 것이다. 즉 일종의 의사소통 기억을 달성함으로써 사건 체험자의 개인적 기억을 집단기억으로 만드는 것이다. 메모리얼공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유일한 사회적 기억 소재가 아니며, 역사적 사건의 서술과 연관하여 기억 주체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직접 경험이나 학습을 통한 체험이 필요하다. 장소만으로 하여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차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 교육기능 : 어떤 사실과 사건을 부각시켜 더 잘 발전시키고 현대와 후세에게 이러한 사실과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기억의 형성과 메모리얼공간의 관계는 기억의 주체에 세워져 피기념자를 학습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체험을 통해 피기념자를 사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의 서술은 영상, 책 자료, VR 체험 등을 통해 지식으로 전달돼 기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치유기능 : 과거 벌어진 희비극 사건이 만들어낸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달래주는 기능을 한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 기억 이론의 영향으로 학계는 메모리얼공간이 사회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메모리얼공간은 사람들의 기억을 만들 수는 있지만, 기억의 주체는 수동적인 창조자가 아니며 기억과 공간 또한 단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쌍방향의 관계이다. 기억은 공간의 기념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간은 복합적인 기념 표현을 통해 관람자의 정신적 의존과 감정의 위로를 형성하게 한다.

• 미술기능 : 교육적 목표를 위해 강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기념물 자체의 고차원적인 예술 창작이 요구된다. 메모리얼공간 조성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작업이다. 후세에 역사적 사건을 영구화할 수 있으며 재현과 재구성의 공간을 하나의 기억매체로 만들어 기억의 소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메모리얼공간은 기념행위의 체험을 통해 기념성이 뛰어나고 체험을 통해 성스러움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기념체험은 역설적으로 공간의 기념을 강화하였다.

• 교류기능 : 현대식 메모리얼공간은 기념물로서 특별함을 넘어 현지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결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기념행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근하고 일상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면 기념은 시간의 매체처럼 사건과 일상을 중첩하는 것이지, 현실과 격리된 장소가 아니다. 과거에 머물렀던 기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기억과 현재의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기억이 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광장, 거리, 공원 등 도시의 공공 공간과 통합된 기념으로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치유적인 특성을 표현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로서 통합된 기념행사에서 기념대상은 무의식적으로도 인식될 것이다.

(2) 메모리얼공간의 유형

메모리얼공간의 유형은 사례 분석을 하기 위한 근간이 되며. 따라서 메모리얼공간의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선행연구에서 메모리얼공간의 유형별 구분서술은 명확하지 않아 연구수요에 따라 분류한다. 본 연구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찾기 위해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비교하고자 한다.

문은미(2012)는 메모리얼공간 유형을 교육공간, 감정적 공간, 일상적 도시공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김지은(2021)은 문은미의 연구를 바탕으로 치유공간을 추가하였으며, 이 분류 방법은 공간 기능을 기반으로 구분된다.

원종호(2014)는 공간의 형태를 바탕으로 메모리얼공간을 크게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공간과 '조형물' 중심의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메모리얼공간은 단일한 조형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양한 기념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간형태로 나타난다. 원종호의 연구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얼공간을 국립묘지, 개인 또는 집단묘지, 기념관, 사당, 기념공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얼공간은 기념비, 기념탑, 기념동상, 바위 등 네 가지로 나뉜다.[28)]

김수경(2020)은 기념관은 기념대상에 따라 인물기념관, 사건기념관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김지우(2020)는 기념대상에 다른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물, 사건, 신조, 복합공간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루스벨트 대통령, 백범 김구처럼 기념해야 할 대상이 사람일 때 '인물 중심'으로 분류되고 국가 차원에서 명심해야 할 참사와 기타 역사적 사건들은 '사건 중심'의 기념관으로 분류되며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처럼 개별 사건을 포함해 하나의 주제로 기념하는 공간이면 신

28) 원종호. 한국기념공간의 구성특성과기억문화론적 해석. 201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 중심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또한 필요한 기념의 대상이 여러 가지일 경우 복합 메모리얼공간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29)]

김지우(2020) 연구에서는 형태별 분류, 요소 최대화 분류, 기념의미 분류, 관람자 체험 유형 분류가 소개됐다. 형태 분류는 원종호(2014) 분류방법과 일치하며 최대화 요소분류는 기념의 개념을 최대화하는 분류 방식으로, 기념에 관한 공간의 내용을 모두 기념의 유형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념의미별 분류는 기념의 의미에 따라 기억, 애도, 반영과 치유, 의식, 집회, 토론의 장소를 의미별로 구분한 것이다. 문은미(2012), 김지은(2021)과도 비슷한 방식이다. 관람자 체험 유형별로 체험자와 공간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체험을 강조하는 분류로 서술 공간, 불확실성 공간, 도시 기능성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표 2-4] 메모리얼공간의 유형분석

표준	연구자 (년도)	주장
기능	김지은 (2021)	교육 공간, 감정적 공간, 일상적 도시공간, 치유공간
	문은미 (2012)	교육 공간, 감정적 공간, 일상적 도시공간 세 가지로 구분
형태	원종호 (2014)	'공간' 중심의 메모리얼공간과 '조형물' 중심의 공간으로 구분
기념 대상	김하경 (2020)	기념대상에 따라 인물기념관, 사건기념관으로 구분된다고 언급
-	김지우 (2020)	기념대상분류, 형태별 분류, 요소 최대화 분류, 기념의미 분류, 관람자 체험 유형 분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메모리얼공간의 분류는 매우 다양하며, 어떤 분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구내용도 달라진다. 김지우(2020) 연구의 다섯 가지 분류방식같은 경우 대상 분류법은 어떤 공간의 분석연구나 대상의 공간별 비교연구에 적합하다. 형태 분류법은 공간의 구성 특성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고 최대화 요소 분류법은 박물관, 기념관, 기록관 등 해당 공간의 기념성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기념의미 분류법은 공간의 본질, 기능, 역할을 연구할 때 적합하고 관람자 체험 유형 분류법은 공간별 체험 특성을 연구할 때 적합하다.

29) 김지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메모리얼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2020.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는 유형별 또는 목적별 메모리얼공간 분류이며, 어떤 공간의 구성을 세분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분석 방식을 채택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념대상을 4가지로 분류하면 다음 표〈표2-5〉와 같다.

[표 2-5] 메모리얼공간의 유형

인물	사건	신조	복합
역사적 사건을 행한 인물이나 신조를 이룩한 기념성이 있는 인물을 기억하는 곳	나라의 역사상 기억 및 추모해야 할 사실을 기념하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 비극적 과거 , 집단의 희생 등 메모리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국가, 나아가 인종 및 세계 등 국가의 이념이나 세계의 통사적 신념 등이 발생하는 시대의 정신을 기념하는 곳	기념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복합적 기념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념 대상,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념하는 등 기념 대상의 특성이 다수
백범기념관 (서울특별시,대한민국)	BonfireMemorial (Texas,USA)	AustralianWarMemorial (Canberra,Australia)	NationalMall (washingtonD.C.,USA)

* 출처:김지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메모리얼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2020.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3.

2.1.3 메모리얼공간의 특성

앞선 내용에서 메모리얼공간의 개념과 트렌드, 기능과 유형을 연구한 것으로, 과거에 기념비 형식인 건축을 추구했던 공간의 형태와 기본이념에서 현대적인 메모리얼공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계를 감안해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해야 하며,[30] 본 절에서는 메모리얼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기에 나타나는 메모리얼공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후속 메모리얼공간과 다크투어리즘, 현상학적 연관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메모리얼공간의 특성연구에 있어 연구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30) 주학유. 현대 기념건축에 대한 연구 : 기념성의 개념정의와 기념건축의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2013.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임화경(2010)은 공간 구성의 전개 방향에서 공간적 특성을 설명했으며 복합요소, 자유이동, 가변공간 및 다양성 구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김지우(2020)는 임화경을 기반으로 전개하였고, 공간 구성의 전개와 표현에서는 '기억'의 특수성, 서술의 공간, 흔적의 보존, 복합요소, 다양성의 표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공간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학유(2013)는 '현대사회와 건축에서 기억의 의미'와 '기념성의 개념정의' 및 기념건축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기념건축의 특성을 살펴봤다. 현대 기념건축은 이원론적 사고와 다원론적 사고, 집단성과 개별성, 개별적 집합성, 시대성과 일상성, 기억의 함축과 나열, 영원성과 지속성 등 다섯 가지 특성이 지닌 것으로 제시하였다. 유가흥(2020)은 감정적 측면의 이론을 통해 본능, 행동, 반성 등 세 차원을 바탕으로 감성성, 표현성, 상징성, 구성성, 사회성 등 메모리얼공간의 다섯 가지 감정적 특징을 제시했다.

한편, 배세연(2021)은 사회기능, 형태요소, 미디어 활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메모리얼공간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메모리얼공간의 다양한 차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서적, 구성적, 예술적 체험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와 감정, 조형과 구조, 예술과 매개체 세 가지 측면에서 메모리얼공간 선행연구의 특성을 분류하여 종합한다.

다음은 메모리얼공간의 본질, 기능, 발전추세를 결합하여 사회와 감정, 조형 및 구조, 시각과 매체 등 세 가지 방면의 공간 특성에 관해 설명한다.

(1) 사회와 감정

과거의 기념 조형물은 '모뉴먼트(Monument)'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의 메모리들은 메모리얼공간의 목적에 더 가깝고 기념의 감정과 주제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념행사는 임시성과 변화성이 있다. 기념의 주체도 유명인이나 큰 사건에서 일반인과 사회집단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사건으로 바뀌었으나, 수난자와 그 가족의 사적인 부분을 기리는 공간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기념의 목적은 제도적 기억과 애도를 넘어 사회적이고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 메모리얼공간은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감정, 교류, 교육, 치유 등의 기능과 공간 구성요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묶는다. 체험, 전시, 교류, 성찰을 통해 기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특수한 기억, 공간 서사 표현, 감정의 공감과 성찰을 부각시켜야 한다.

(2) 조형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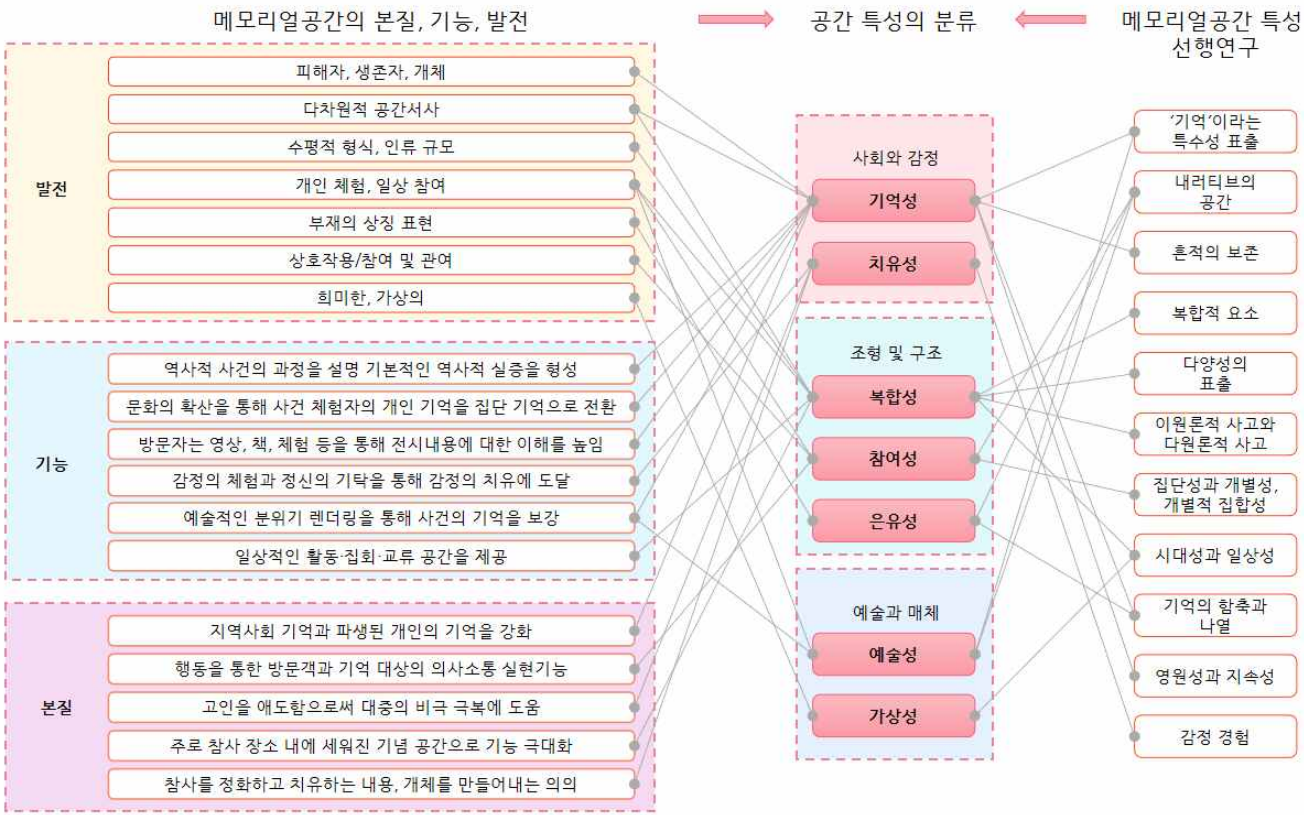
메모리얼공간은 기념가치 실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합과 변화된 공간구조로 관람자의 다차원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메모리얼공간의 형태는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는 사라지는 추세이며, 기억을 현재의 일상과 하나로 묶어 신체 체험과 공간의 정신적 치유를 강조한다. 쌍방향 소통 요소를 삽입해 기념 대상자와 시청자가 관계를 맺게 하고 행위에 대한 유도를 형성하였다. 단순한 교육적 학습이 아니라 공간의 체험을 통해 사건을 인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의 기억을 전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조형 및 구조 설계가 공간의 체험을 잘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예술과 매체

건축부재와 장식에 일정한 기호를 나타내면서 예술적 기법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뉴미디어 기술 적용도 전시 형태로 전개되어 몰입감 있고 시각화된 체험은 메모리얼공간의 정보 전달과 감정 체험에도 힘을 보탰다.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메모리얼공간의 특성을 사회와 감정, 조형과 구조, 예술과 매체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기억성, 치유성, 복합성, 참여성, 예술성, 가상성, 은유성 등 7가지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6] 메모리얼의 특성 분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4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공간단위 구성은 메모리얼공간 현상학적 인식분류 평가의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선행연구는 메모리얼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로 구체적인 연구수요에 따른 구성을 소개하며 많은 연구들이 메모리얼공간을 하나의 작은 범위로 보고 구성을 소개하였다. 박석중(2015)과 같은 전시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전시의 구성요소는 전시물(전시대상), 공간, 관람객,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전시물은 전시의 시작점이었고, 공간은 전시물과 관람객의 관계를 맺는 장소로써 관람객은 전시공간에서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람이고, 시간은 당신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당신의 코스를 계획하는 것은 관람시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서희정(2018)은 메모리얼공간의 구성요소는 전시구성요소를 따르고 있지만, 코스계획 등 관람시간과 관련된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공간과 관람자 요소 개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제외되어야 하며, 메모리얼공간 구성요소를 대상(Object), 관람자(Visitor), 공간(Space)으로 구분했지만, 일부 연구의 구성내용에 대한 소개가 명확하지는 않다. 김하경(2020)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참조점을 논하지 않고 메모리얼공간의 구성요소를 기념대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물, 공간, 방문자로 구분하였다.

위의 서술 방식은 포괄적이고 공간의 구분이 세밀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얼공간을 하나의 넓은 범위로 보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세분화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분화된 공간의 구성을 명확히 한 뒤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전시물, 공간, 대상관계 위주의 구성요소 분석이나 치유, 학습, 교류의 대기능으로 구분된 분석은 여러 사례의 종합적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가흥(2020)은 재난기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메모리얼공간을 체험적이고 감정표현의 효과가 큰 공간으로 보았다. 공간 구성에 있어 기능성과 감정적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메모리얼공간을 7가지로 구분하는데, 주요 감정 단위공간은 입구공간, 애도공간, 전시공간, 연결공간, 정원공간, 감정공간, 유적공간으로 분류하였고 배세연(2021)과 유가흥의 분류방식과 유사하였으며 이 연구는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메모리얼공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현대 메모리얼공간의 7개 주요단원공간은 전체구성, 전시공간, 상징공간, 추모공간, 교육지원공간, 연결공간, 외부환경 등으로 제시되었다.

[표 2-6]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표준	연구자 (년도)	구성요소
공간 유닛	배세연 (2021)	전체구성, 전시공간, 상징공간, 추모공간, 교육지원공간, 연결공간, 외부환경
기능과 감정작용	유가흥 (2020)	입구공간, 제향공간, 전시공간, 과도공간, 정원공간, 감정공간, 유적공간
전시 관람 방식	김하경 (2020)	기념 대상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물,공간과 방문자
	서희정 (2018)	대상 (Object) , 관람자 (Visitor) , 공간 (Space)
	박석중 (2015)	전시물(전시대상), 공간, 관람객과 시간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단위 구성에 유가흥과 배세연의 연구가 참고 될 것이다.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개념과 특성 분석을 종합하면,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구성은 기능과 감정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적 의미는 제사와 추모공간, 연결과 넘어감, 상징과 정서적 공간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적은 전시공간의 일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입구와 정원은 모두 외부공간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합할 수 있다. 상징공간은 공간의 예술적 표현이 돋보이지만, 전시공간과 같은 다른 공간에서의 상징적 기법과 의미가 중복된다. 본 연구는 상징공간이 형태, 구조, 빛의 환경 등을 통해 하나의 정경을 조성함으로써 감정적인 충동을 일으켜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기능과 감정적 작용에 따라 명상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만 교육지원공간은 감정체험이 아닌 공간으로 보고 본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각 공간의 기능과 감정적 작용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전체구성, 외부공간, 추모공간, 전시공간, 연결공간, 명상공간 등 6가지 장소의 주요 감정단위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감정단위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7] 메모리얼공간의 주요 감정단위

공간단위	개념	기능
전체구성	관람자의 경험은 일체화되어 있음. 전체구성은 특별한 교육이나 정서적 체험이 아닌 메모리얼공간 전체에 대한 표현을 강조함[31]	-각각의 공간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봄 -공간의 조직관계, 동선, 조형, 재료 등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외부공간	외부공간은 건축 외부의 환경공간으로 물리적과 비물리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는 장소경계선, 마루, 벽, 개방공간, 유기적으로 이용한 공간, 건축과 외부, 외부공간 사이 등이 있음[32]	-메모리얼공간의 외부공간은 교통의 기본 기능 외에도 감정적 디자인의 중요한 영역이다. 디자인에는 공간 조형물, 상징물, 지형, 자연 요소 등을 적용해 상징적인 감정적 장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시각적과 행동적 인도를 통해 머무는 것과 체험이 이루어짐
추모공간	추모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임 이에 따른 파생어가 추도와 위령이 있음[33] 이러한 추모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추모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추모공간이라고 함[34]	추모공간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와 사고를 통해 관람자들에게 인식됨. 감성과 정신을 통한 감각적 체험은 장소에 대한 혐오를 애틋함에 가까운 체험으로 이끎[35]
전시공간	기념적인 전시공간에서는 정보의 발신자와 수용자 사이의 일정한 공간에 일종의 또는 양방향간의 교류의 수단으로서 존재함. 보는 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관찰과 공감을 유도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36]	기념적 전시공간과 일반 박물관의 차이점은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기념대상과 기념적 주제를 놓고 전개된다는 것임. 전시공간에서의 정신적, 역사적 영향력에 더욱 중점을 둠
연결공간	연결공간은 '공간관람자가 이동하는 시간을 전제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 현상'을 체험함. 시간 연계, 변화의 의미, 심리적과 물리적 차원 발달을 위한 공간 개념을 가짐. 기능의 이질적인 공간을 연결하고 구분해 체험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임[37]	-메모리얼공간의 연결공간은 공간과 공간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념, 애도 등의 감정적 기능을 연결하여 조절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함. -이는 관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 됨
명상공간	명상은 단순한 종교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 일반인들이 많이 찾음. 명상공간은 명상활동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임. 명상의 의미는 명상공간의 기능보다는 미적 또는 형이상학적 방법이 우세함. 시대적 개념 변화에 따른 명상공간의 활용은 다양해지고 있음. 그 중 문화적 관점은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임[38]	치유환경으로서 명상공간은 감각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 장소로서 인간의 몸과 감각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신체적 행동과 심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간 속에서 인간은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환경을 감지하고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의 안정이나 정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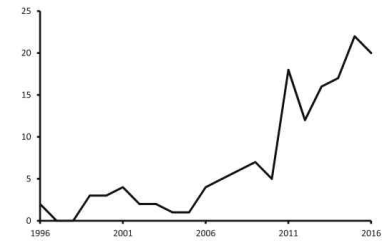
31) 배세연(2021). Op. cit., p.301.
32) 박건탁. 기념관 건축의 배치특성과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020.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35.
33) 김두이. 도심, 추모를 위한 건축 계획안. 2015.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9.
34) 진연호. 추모공간의 빛 표현 특성을 활용한 봉안당 디자인. 2021.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
35) ibid., p.2.
36) 이수우.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구조분석을 통한 기념관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0.
37) 장민지. 기념관건축의 전이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8.
38) 김주아, 황용섭, 이돈일. "현대 명상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8,no.2, 2017, pp.102-103.
39) 강민지. 다감각자극 표현요소에 의한 치유환경으로서 명상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1-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 다크투어리즘

2.2.1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용어는 Foley&Lennon이 1996년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학술집에 〈Heart of Dark-ness〉라고 거론하며 처음 게재되었다. '다크투어리즘'을 사건 및 인물을 추모하고 회상하는 의미로 교육, 회화, 오락 등의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동안 통일된 관점이 형성되지 않아 비슷한 표현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40] 로젝(Rojek, 1993)은Black-spot tourism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Black-spot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불의의 죽임을 당한 유명인의 무덤, 대량 학살이 일어난 장소 등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곳으로 정의하였다. 시톤(Seaton, 1996)은 죽음과 관련된 관광객의 활동을 죽음의 관광(Thanatour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기원은 타나톱시스(Thanatopsis, 죽음에 대한 고찰)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블롬(Blom, 2000)은 Morbid tourism을 사용해 병리 관광을 의미하였다.[41]



[그림 2-7] Duncan Light의 1996년~2016년 사이 다크투어리즘에 관한 논문연구 횟수 집계

출처:Duncan Light. "Progress in dark tourism and thanatourism research: An uneasy relationship with heritage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61,no.1, 2017, p.276.

2000년 폴리&레논(Foley&Lennon) 두 학자가 공동 저술한 〈다크투어리즘〉이란 책이 영국에서 출간되고 나서부터 주목받게 되었으며 다크투어리즘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다크투어리즘을 '역사교훈 여행'이라고 번역하였다. 김

40) 김해리.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체험에 따른 감정적 애착 및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2021.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10.
41) 준우선. "전쟁관. (views of war)이 다크투어리즘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DMZ 방문객을 중심으로". 2018.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p.7-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규만(2016)은 ‘역사교훈여행’의 어두운 부분은 비극적인 부분이 아닌 교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역사교훈 여행’이라는 용어가 번역이 적절하다고 봤으나, 어떤 혹자는 다크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박가은(2019)은 죽음, 재난, 전쟁 등의 참상과 관련된 어두운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을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본 연구에서는 다크투어리즘 키워드에 대한 고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학술 키워드와 일치시키기 위해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단어 사용 차이 외에도 구체적인 개념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다. 박상현, 이미순(2019)은 어두운 역사, 죽음, 재난, 파괴 등 다크투어리즘의 개념에 대해 연구자마다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나 시대가 발전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스톤앤샤플리(Stone&Sharpley, 2008)는 다크투어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다층적이며,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레논앤폴리(Lennon&Foley, 2000)는 비참한 죽음과 재난이 발생한 장소(Primary sites)를 방문하거나 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또는 장소(Secondary sites or Created sites)로 정의된다. Dann and Seaton(2001)은 다크투어리즘을 폭력과 범죄에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스톤(2006)은 정치적 역사적 중요성이 있고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죽음이나 재난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다크투어리즘주의로 정의하였다. 코헨(2011)은 비극적인 사건 현장에서 박물관이나 관련 교육시설을 방문해 사건 현장의 생존자 및 후손들의 증언을 듣고 실증자료 및 사진을 보거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왕길(2017)은 다크투어리즘을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관람객에게 교육이나 감성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도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정의와 관점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왕길(2017)은 다크투어리즘을 역사적 비극을 이야기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과거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안희자(2018)는 다크투어리즘을 죽음이나 재난, 폭력, 고통, 충돌 등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김해리(2021)는 역사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고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비극이 발생한 곳으로 봤다.

[표 2-8]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표준	개념 정의	연구자
(특정장소 방문) 사례의관점	역사적·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비극적 사건·사고 (죽음과 재난·재해 등)가 발생한 곳	김해리 (2021)
	역사의 비극을 다룬 곳을 방문하고,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이해함	왕길 (2017)
	죽음, 재해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관광 형태	Johnson (2015)
	죽음, 고통과 관련된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	Stone (2006)
	비극적,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죽음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장소를 방문	Tarlow (2005)
	기억, 교육,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20세기의 죽음, 재난, 비극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	Foley&Lennon (1997)
특정장소 방문에서 관광의 관점	죽음, 재난과 관런된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 형태	Johnston &Mandelart (2016)
	죽음, 재난, 재해의 장소와 관련된 관광	Lennon&Foley (2000)
	죽음과 재난의 현장이나 상업화된 장소의 재현과 방문객의 소비	Foley&Lennon (1996)
동기의 관점	전쟁,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	신새빛 (2021)
	죽음이나 재난, 폭력, 고통, 충돌 등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	안희자 (2018)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 주로 동기를 부여하는 관광	Best (2007)
	죽음과의 실제적, 상징적 조우를 위한 욕구에 의한 동기로 장소를 방문	Seaton (1996)
경험의 관점	정치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죽음이나 재앙의 장소를 방문	Stone (2016)
	관광객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고통, 죽음, 공포, 슬픔 등 어두운 감정으로 구성	Ashworth (2008)

* Duncan Light. “Progress in dark tourism and thanatourism research: An uneasy relationship with heritage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61, 2017. 재구성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어떤 연구에서는 정의된 논술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의 정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Duncan Light(2017)의 선행연구와 안희자(2018)의 연구를 본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개념조사를 통해, 네 가지 유형은 전체적인 연구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반적으로 역사학, 사회학, 예술학, 건축학 등의 분야에서 죽음과 죽음에 대한 광경과 고통, 그리고 문화와 사회에서 이를 묘사하는 연결고리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다크투어리즘은 현대와 역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각 학과에 더 많은 것을 전달하며, 기억을 강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존 정의한 개념에서 보면 다크투어리즘은 재난, 폭력행위, 비극,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과거나 나쁜 기억 등 대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곳을 관광 자원화하고 이를 테마로 하는 여행을 의미하였다.[4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크투어리즘이란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 감정, 기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비극적인 사건, 사고(죽음과 재난, 재해 등)를 유적, 전시관, 공원 등의 장소를 통해 다차원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방문의 가치를 느끼는 관광이라고 정의한다.

2.2.2 다크투어리즘의 목적 및 의미

다크투어리즘은 현재 시대의 특수목적 관광으로 국가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한 관광 형태로[43] 2000년 이후 다크투어리즘은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하나의 유행이 됐다.

정책 관점에서 보면, 많은 도시들이 관광업을 도시발전 장려 산업으로 삼았으며,[44] 관광업으로써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활동의 도입 필요성이다. 둘째, 경기 침체로 인한 고실업이다. 셋째, 관광업의 발전은 물리적 혁신과 도심 경제 부흥을 낳을 수 있다.[45]

---

42) 신새빛. 건축적 장치와 시퀀스를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전시관 건축방안: 서대문형무소 부지 내 체험 전시계획을 중심으로.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p.5-7.

43) 김명혜. 거제 포로수용소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44) 글로리아 게바라(Gloria Guevara) 세계여행 관광협의회(WTT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몇 년간 세계 각국 정부가 관광산업의 큰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졌다.
(출처:http://travel.people.com.cn/n1/2018/0326/c41570-29888559.html)

45) 조현희. 다크투어리즘의 장소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5.18사적지의 장소마케팅 전략. 2012.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역의 유산 보호와 개발에서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개발이나 유산, 장소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산관광 연계 연구를 해야만 하며, 여기에 다크투어리즘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잘 반영해야 한다.[46]

체험적 측면에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관광 소비보다는 비극적인 역사의 장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얻는 다크투어리즘 주의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낳고 있다.[47]

1	Poland	446300
2	United Kingdom	149200
3	United States	96900
4	Italy	84500
5	Germany	74500
6	Israel	68000
7	France	62000
8	Spain	54300
9	Czech Republic	48100
10	South Korea	46500

[그림 2-8]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의 2012년 국가별 방문통계

출처:Patrichi Ioana Cristiana, 2013 전재 Sprawoxdanie Report, 2013.

*Sprawozdanie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세계 10위권에 들었음.

[그림 2-9]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출처:http://www.auschwitz.org/edukacja/

이처럼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은 각도에 따라 다르다. 조현희(2012)는 도시경제와 마케팅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비극을 경험한 다양한 장소들이 비극의 기억을 상품화하여 비극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비극 소비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석윤(2014)은 역사적 관점에서 다크투어리즘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독특한 지방역사를 바탕으로 한 특수자원개발로 재탄생시켰다. 이런 비참한 곳을 관광 명소로 만든 것은 기억을 되살려 과거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노정연(2011)은 비참한 역사유적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이자 교육의 장소로 봤다. 이런 비참한 곳을 관광지로 만든 것은 기억을 되살려 과거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교육과 반성에서 김명혜(2020)는 다크투어리즘이 일반관광과 달리 인류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혹은 이전 세대들의 투쟁에서 목숨을 잃은

46) 김명혜(2020). Op. cit., p.155.

47) 박현영. 다크투어리즘 공간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상징적 표현 특성 연구 : 칼 구스타프 융의 원형 이론 중심으로. 2020.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반성의 계기가 되거나 교훈을 얻는 관광이라고 생각했다. 신새빛(2021)는 과거의 사건은 이제 인간이 직시해야 할 것이며 다크투어리즘으로 인간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교훈으로 삼기 바랬다.[48] 김해리(2021)는 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크투어리즘주의'는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관광 형태로, 실제 관광지에서의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체험을 통해 관람자들이 느끼면서 얻게 되는 것이 다크투어리즘의 의미라고 하였다.[49]

전체적으로 다크투어리즘은 비극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어두운 역사와 사건의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으로 안타까운 사건·사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주제 사상을 전파하고 비극의 역사를 재현하지 않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람자는 추모와 반성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삶과 죽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민족적 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인간 전체의 공공과제이다. 이와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자원은 생계를 위한 중요한 통로이고, 자체 가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크투어리즘은 정책과 경제적으로나 교육과 체험적으로나 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와 현대의 소통이라는 새로운 체험 형태가 된 것은 다양한 가치의 종합이며 도시발전과 사회적 외상 치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0]

48) 신새빛(2021). Op. cit., p.5.
49) 김해리(2021). Op. cit., p.27.
50) 박현영(2020). Op. cit., p.3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 현상학

2.3.1 현상학적 개념 및 방법

(1) 현상학적 개념

현상학은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에 의해 창시된 철학운동의 하나이다. 현상학은 세계와 그 내부의 다양한 실재적 또는 상상적인 대상의 존재를 세계가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현상 그 구조를 통하여 연구해 간다. 여러 가지의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그러한 것으로서 의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역으로 사물을 경험한 우리들의 의식측면에서 보면 의식이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의식의 방향을 후설은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계의 존재구조에 대한 물음은 세계를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서 의식하고 있다는 지향성의 전체 연관으로의 물음일 뿐이며 또한 그 경우에 의식과 그 대상인 세계는 서로 실체적으로 분리된 두 항으로서가 아니라 지향성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연관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연관하는 두 계기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점에서 세계의 현상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현상의 장이라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이라는 장이 '초월론적 주관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론적 주관성의 분석은 의식 내부의 구조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때마다의 대상의식과 동시에 이른바 잠재적·익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평(地平)'의 분석 또는 의식의 발생적인 '역사'로 확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 '신체성', '간(間)주관성', '수용성'더 나아가 자신을 시간 과정으로서 구성하는 주관성의 '시간화'의 작용과 '생활세계'라는 세계 개념 등이며 후설에 이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 노르베르크 슐츠(Norberg-Schulz) 등의 현상학자가 이러한 주제나 개념을 존재론 또는 언어, 지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자 경험의 분석을 통하여 의식이나 주관성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을 능가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다.[51]

(2) 현상학적 방법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과는 달리 사람이 겪는 사물에는 인류의 생존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현상학은 주체인 사람의 체험을 통해 객관적인 사물을 생활세계의 경험, 가치,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심리활동을 형성한 다음 모든 사물을 되돌아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찰과 성찰의 과정이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의 이원적 관계를 좁히고 사물과 의식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어 가치와 의미를 낳았다.[52] 에드문트 후설의 묘사와 환원사상,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현상학 사상, 메를로 퐁티의 지각현상학 사상은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을 모두 명확하게 묘사하였다.

① 묘사와 환원법

에드문트 후셀은 순수한 사실보다 인류 전체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해독하며 절대적 사실의 기준을 찾아내는 '각 과학에 대한 최종적인 평판'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사물 자체를 '환원'하는 사상적 방법을 만들어냈다. 현상학적 환원은 모든 초월물(내부적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효라는 표식을 주어야 하는것으로 즉, 그것들의 유효성은 존재와 유효성 그 자체로서, 기껏해야 유효성의 현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53] 이러한 사상인지방법을 통해 생각의 구조와 내용을 인지하고 의식을 사고의 중심으로 삼았다. 환원법은 이성주의자의 사고 방식이 아닌 순수한 묘사적 방식을 통해 사물 자체를 지향한다.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인식 방식으로 회귀하고, 진짜 직접적이고 의심받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

5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7937&cid=42140&categoryId=42140 (출처: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52) 오충. "건축지각현상학과 문화건축의 연관성 해석". 도시건설 이론연구, vol.5,no.2, 2015, p.76.
53) 후셀, 예량강 역. 현상학적 관념. 상해역문출판사, 1986, p.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 존재와 이에 대한 해석법

하이데거는 에드문트 후셀의 묘사 방법에서 그의 나름의 방식으로 현상학적 방법인 통해 해석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연구한 저서 〈존재와 시간〉은 에드문트 후셀의 '삶의 세계'를 해석한 것으로 이 책은 인류의 존재가 여러 가지 현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법'으로 풀어냈다. '이재(此在)'의 개념도 '삶의 세계'만의 해석이다.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본체론'의 방법을 세워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인류라는 특수한 존재자의 존재이해를 해석했으며, 인류의 '실존'은 세계와 연결된다는 선념적 존재방식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쓴 〈짓기·거주하기·생각하기(Building Dwelling Thinking)〉에서 건축학 분야의 문제점을 현상학적 태도와 방법론으로 창의적으로 사고를 통해 다른 학자들이 건축현상학을 연구하는 데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

③ 감지와 체험하는 방법

메를로 퐁티는 에드문트 후셀의 현상학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상학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인류의 신체를 현상학적 연구의 범주안에 넣었다. 주관적으로 인류는 신체를 통해 공간 속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세상에 즉 현실에 대한 지각와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 퐁티는 지각이 제1원칙으로서 다른 인지보다 먼저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를로 퐁티의 '지각'은 세계 만물에 대한 체험 외에 인류 자체에 대한 체험도 의미한다. 그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감지하는 중심임을 강조했고, 이로써 인류는 지각이 몸을 통해 세계로 들어와 감지되는 것을 보게 됐다. 몸을 주체적으로 참조하면 인류는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향', '척도', '근대원소(近大远小)' 같은 공간적 현상이 형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내외', '전후', '좌우', '상하' 등 상대적인 방위 및 개념이 있어야 동일 물체의 상이한 효과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2 현상학적 공간관

현상학의 사상은 교육, 예술, 음악,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특히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공간적 관점은 건축과 그 관련 학문, 예를 들면 도시계획, 경관 디자인, 실내디자인 등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현상학적 공간관에서 하이데거는 '공간이란 어떤 환경에 거주하며 인간 존재가 자신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느끼는 장소라고 정의함.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는 공간이며, 더 정확하게는 정체성을 지닌 공간'이라고 말하였다. 하이데거가 공간을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공간은 현상학적으로 치환되면서 빈 공간이나 측정이 가능한 공간이 아닌 장소의 개념으로 변하였다. 공간과 주변 사회상황의 동반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시간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며 변화적이고 유기적이며 살아있는 현상성을 지녔다.[54]

메를로 퐁티는 신체는 세상을 공간인지의 본질이라고 제시하였다. 신체를 주체의 중심으로 세상과 연결해 인체의 감각을 활용하고 환경과 인간이 융합된 반응을 통해 실제 공간의 총체적 현상을 인식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말하였다.[55] 즉, 몸과 공간은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정보의 교환 작용 등을 통해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의 본질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공간의 지각은 신체의 지각을 통해 하나의 감각만이 아니라 모든 신체의 감각을 통해 공간을[56] 인지하며 신체와 공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성적 논리보다는 직접적인 자극을 강조하였다.

이들 두 현상학 연구자의 공간적 관점을 종합하면 현상학적 공간관은 단순히 공간의 표상이 아니라 공간과 환경의 관계를 바탕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상학적 작용은 공간이 인지자의 경험으로 가는 각 단계 속에 숨어 있으며, 각 단계는 상호 관계성을 갖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체험

54) 한세미. 현상학적 관점으로 본 현대 뮤지엄 전시공간의 관람자와 대상에 관한 연구. 2013.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p.28.
55) 김지영.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분석 방법을통한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분석. 2015.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p.8.
56) 강재중. "현대건축의 현상학적 건축 특징을 위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스티븐 홀, 안도 타다오, 피터 줌터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7,no.4, 2015, p.1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조는 그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의미를 체험하고, 다시 파악하며, 재발견하는 것이다.[57] 구체적인 설계로 볼 때 오늘날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관점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은 건축이 현상(시간, 자연, 문화,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학과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현상학적 공간의 핵심은 지각체험에서 건축을 감각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장소적 환경관에 적합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다.[58]

앞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간에 대한 인식이 시대의 흐름과 체험 형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3.3 건축의 현상학적 실천

앞 내용에서 개념과 트렌드를 통해 현상학의 연구 내용과 공간적 관점을 소개하였다. 공간연구에서 현상학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공간적 관점을 건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절에서 제시한 현상학적 실천자의 디자인 요소는 4장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적용한다.

(1) 현상학에서 건축 현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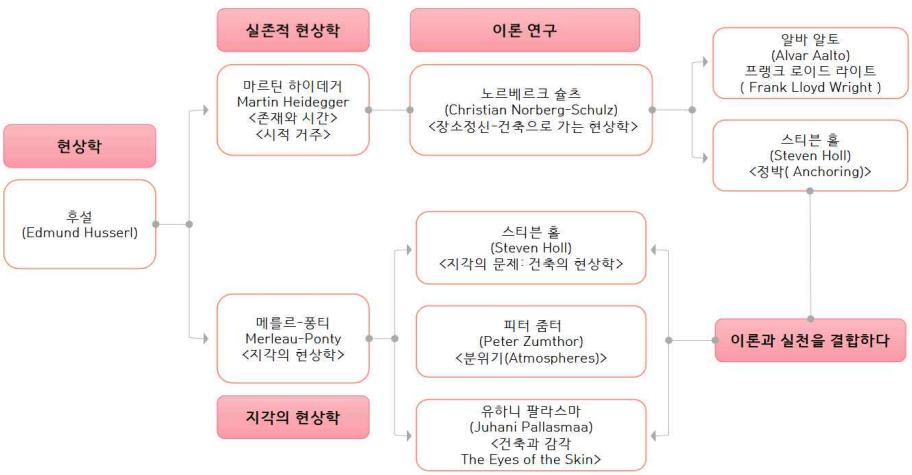
건축의 현상학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하이데거 실존주의 현상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건축에 치중하는 이론 연구이다. 건축의 장소중심화, 공간형성, 천지신인4위일체(天地神人四位一体), 층화세계 등을 주제로 건축에 대한 정적인 분석과 발생적 분석을 주요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한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건축 이론가 노르베르크 슐츠(Norberg-Schulz)의 건축현상학 사상은 하이데거와 같다. 하이데거의 현상학 이론과 노르베르크 슐츠 자신의 깊은 건축학 이론과 실천 내공을 바탕으로 건축철학을 실존주의 철학적 시각에서 탐구했으며, 그 성과는 〈장

57) 김지영(2015). Op. cit., p.10.
58) 한세미(2013). Op. cit., p.3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정신-건축으로 가는 현상학(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존재·공간·건축(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주거의 개념〉에 집중하였다. 다른 방향으로는 메를로 퐁티 지각현상학(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건축의 실천적 분석에 치중했으며 방향은 건축과 환경, 분위기, 사람의 시각, 청각, 터치, 후각, 미각, 그리고 신체 중심의 체험을 강조하였다. 그 이론의 주요 계승자인 스티븐 홀(Steven Holl)은 미국의 차세대 건축 거장으로 공간과 빛, 건축에 대한 얽힌 경험(Enmeshed Experience) 등 독특한 연구로 돋보인다. 또 핀란드 건축학자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 스위스의 건축가 피터 줌터(Peter Zumthor) 등이 지각현상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길을 넓혔다.

현상학에서 건축현상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방대한 이론 체계로, 학자들간의 연구계승관계는 주분야를 상호작용으로 발전시켰고 건축학, 철학의 학문적 연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관계는 건축현상학이론을 발전시켜 건축설계의 방법론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림 2-10〉의 계승관계도를 보면, 건축학의 발전맥락을 잘 알 수 있고, 건축가 이론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10] 건축현상학 계승관계[59]

59) 정려양(2018). Op. cit., p.1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현상학과 건축현상학의 계승관계를 통해 현상학적 공간관점의 영향을 받는 건축현상학적 이론과 실천의 사상 근원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다음 건축가의 실천적 표현으로 알 수 있다.

(2) 건축현상학의 실천

최근 많은 전문가 학자들이 건축에서 현상학에 대한 사고를 자신의 작품으로 설명한다. 특히 지각현상학이 투입된 이후 학자들은 공간과 관련된 명확한 탐색 경로인 건축과 인류의 관계를 신체적,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으며 이 관계를 통해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에서 드러나는 사람과 공간의 관계와 일치한다. 공간은 단순한 사용 기능만이 아니라, 현상학은 공간의 사회성과 정신성을 강조하고, 인류의 신체적 감지를 통해 공간과 행위를 연결시켰다.

건축현상학의 실천은 정서적 공간에서의 현상학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상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세 건축가의 실천적 관점을 소개하였으며 설명을 통해 현상학적 공간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음 장에서는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과 현상학적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① 유하니 팔라스마의 현상학적 실천

서구의 시각중심적 사고는 근대 이후의 기술과 자본의 흐름에 힘입어 사회구조 전반에 세계화, 보편화를 불러왔다. 유하니 팔라스마에 의하면 현대건축은 이미지로 상품화되고 소비되면서 지역성과 역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예술적 과잉관념화로 인해 건축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며 만들어내는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의 의미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하니 팔라스마는 건축은 예술적 개념을 넘어 공간속에 실재하면서 인간의 일생과 닿아있음으로 인간 존재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60]

60) 김옥영, 노지화. "현대건축에 나타난 '여러 감각이 관여'하는 건축경험에 관한 연구 : 유하니 팔라스마의 건축이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3,no.3, 2021, p.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를로 퐁티 철학에서 지각체험을 중시한 것이 유하니 팔라스마에게 영향을 미쳤다. 메를로 퐁티에 의하면 하나의 감각에만 의존한 경험은 불안정하여 자연스러운 지각이 될 수 없고, 몸 전체를 통한 동시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지각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지각은 감각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하니 팔라스마는 이러한 주장과 연관 지어 건축의 경험은 단순히 시각이나 전통적 개념의 오감이 아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아 전이되거나 융합되는 '여러 감각이 관여'하는 경험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몸을 통한 건축적 경험에서 모든 신체 감각과 지각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촉진되고 더 확장되어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지각현상학을 건축학 분야에 적용하려 노력했고 건축과 관련된 열두 가지 주제를 요약하였다.

[표 2-9] 유하니 팔라스마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

번호	요소	내용
1	연속적인 선	연속적인 윤곽선이 물체의 특징을 만들고 묘사하며, 건축공간의 적극적임과 소극적인 두 가지 면을 보여줌
2	곡선	곡선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둘러싸여 역동적인 운동 현상을 연출함
3	구멍	구멍 연결은 서로 대립하는 양면이고, 물질과 비 물질은 공존함
4	물질	물질의 본질, 무게, 텍스쳐, 온도, 내부 투과성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체감 인상임
5	촉각	촉각은 시각적으로 무의식적이며 인간적인 건축물은 촉각에 기분 좋은 세부를 제공함
6	접합	건축의 시작과 재료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함
7	햇빛	빛은 건축설계에서 가장 강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은 조명의 구성요소여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빼놓을 수 없음
8	세부	건축의 세부는 건축의 실체와 우리 몸 사이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세부에 눈과 신체의 접촉을 준다. 세부는 건축의 축소판임
9	경관	자연경관 또한 도시환경은 건축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관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임
10	구조	구조는 건축의 골격이며, 지지대 외에 건축의 기본적인 형식과 특징, 그리고 운율과 척도의 조화를 이룸
11	기둥	기둥은 중요한 건축 요소임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직성과 받드는 것과 관련이 있음
12	계단	계단은 공간 속에서 수평과 수직 사이에 위치하는 역동적인 비스듬한 운동을 창조함

* 출처:Juhani Pallasmaa, Hai Fang. Sensuous minimalism.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 2002, p.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하니 팔라스마는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서 감각적 건축을 주장했다. 감각적 건축은 건축에서 감각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각적 지각에 기반, 빛과 색채, 다 시점, 감성적 디자인, 부드러움, 경쾌함, 변화감 등이 그가 제안하는 감각적 건축의 특징을 이룬다.[61]

[표 2-10] 유하니 팔라스마의 건축사례

작품명	그림	출처
Rovaniemi Art Museum Finland (1984-1986) 핀란드		https://berloga-workshop.com/blog/1002-rovaniemi-art-museum.html
Itäkeskus Shopping Centre, Helsinki, (1989-1991) Helsinki 핀란드		https://www.familywithkids.com/finland/en/catalog/itis-shopping-center-eastern-helsinki-finland#tab-card-publications
Kamppi Centre (2003-2006) Helsinki 핀란드		https://www.wikiwand.com/en/Juhani_Pallasmaa

사례를 통한 유하니 팔라스마의 실천에서 현대 인류의 시각적 이미지 취향과 이성적 사고를 깨뜨리려는 그의 시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유하니 팔라스마는 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해독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탐구하고 있으며, 건축을 포괄적으로 감상하여 건축 환경의 힘과 구체적인 체험을 신체의 모든 감각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62]

②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실천

스티븐 홀의 건축사고는 초기 유형학적인 관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만의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그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이해하

61) 박신화. "건축의 살(flesh) : 유하니 팔라스마(J. Pallasmaa)의 건축적 경험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79, 2018, p.214.
62) Juhani Pallasmaa. "Design for Sensory Reality: From Visuality to Existential Experience". Architectural Design, vol.89.no.6, 2019, p.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방법으로 현상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다양한 감각과 지각의 경험을 그의 건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적 경험은 우리가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고 체험하는데 있어 새로운 틀을 제공했다.[63]

스티븐 홀은 지속적으로 강연과 글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구현된 자신만의 독특한 콘셉트와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수채드로잉을 통해 끊임없이 유기적인 다양한 형태와 현상적 공간 구성에 대해 탐구하고 이렇게 수립된 개념들은 그의 건축적 담론으로 축적되어 현상적 공간을 구현하는 직관적인 영감을 설정하며 다양한 공간체험을 제공했다.[64]

스티븐 홀이 보기에 건축은 다른 예술형식보다 건축의 색채, 질감, 세부 묘사를 깊이 체험하도록 이끌었고, 다양한 지각체험과 지각의식을 일깨우기에 충분하였다. 스티븐 홀은 1994년 〈A+U〉 잡지에 〈지각의 문제: 건축의 현상학〉을 발표하면서 건축설계에서 지각 경험을 중시해야 하는 디자인을 강조하였으며, 책에서 그는 '현상적 영역(Phenomenal Zon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건축현상을 인용, '현상적 영역'이 보는 이의 지각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봤다. '현상적 영역'의 개념은 얽힌 경험(Enmeshed Experience), 투시공간(Perspectival Space), 색채(Color), 빛과 그림자(Light and Shadow), 밤의 공간성(Spatiality of Night), 길게 이어진 시간과 지각(Time Duration and Perception), 물, 소리와 세부묘사 등을 포함한다.

[표 2-11]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

번호	요소	내용
1	얽힌 경험	객체와 필드의 융합임 공간에 대한 인간의 감각은 전, 중, 원경의 침투와 빛, 재료, 주관적 요소를 융합해 교차하는 지각 기반을 형성함
2	투시공간 (불완전한 지각)	사람들의 지각은 일련의 겹침과 도시 시상의 투시에서 발전하였음 투시는 각도와 속도에 따라 펼쳐지며 지각원칙에 따라 도시공간을 조성함
3	색채	환경과 기후, 문화는 색채를 정하고 색채에 대한 체험도 정할 수 있음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색채, 공기의 특질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색채 개념을 낳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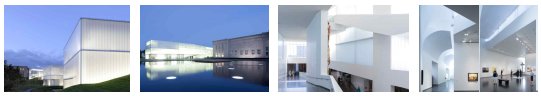
63) 장현주, 박찬일.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 방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5,no.2, 2016, p.153.
64) ibid., p.16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빛과 그림자	건축의 지각 정신과 형이상학적 힘은 실체와 허공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 투명성, 광택성에서 나옴
5	밤의 공간성	야광과 야간공간은 도시 공간의 형식과 형태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켰음
6	길게 이어진 시간	장소와 공간에 대한 체험은 계속됨 건축의 공간 경험은 끊어진 시간을 메워 '길게 이어진 시간'으로 만듦
7	물	물의 여러 상태는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고, 반사, 굴절, 공간 뒤집기와 빛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현상경'으로 볼 수 있음
8	소리	공명음, 재료의 진동수, 근리를 통해 공간을 재정의할 수 있음
9	세부-촉각영역	완전한 건축 공간은 재료와 세부의 촉각 영역에 달려 있음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 개념은 인식과 지각경험에 그 본질을 두고 시간성을 내포하며, 환경, 감각,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건축적 표현을 통해 구현하였다. 또한 스티븐 홀은 대지에 응축된 건축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장소적 특성과 맥락을 활용하여 환경적 상황을 유입하거나 지형과 경관을 융합했다. 또한 자연광의 자발적인 형상, 반음영의 형이상학적 지각, 공간의 기하학과 물성을 통한 공감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을 구현하여 정서적, 지각적 의미생성으로서의 공간체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5]

[표 2-12] 스티븐 홀의 건축사례

작품명	그림	출처
Knut Hamsun Center (1994-2009) 노르웨이		https://www.archdaily.com/31221/knut-hamsun-center-steven-holl-architects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7-2007) 미국		https://www.archdaily.com/789147/iwan-baan-photographs-steven-holls-nelson-atkins-museum-for-its-ninth-birthday
Nanjing Sifang ArtMuseum (2005-2013) 중국		https://www.stevenholl.com/zh-hans/project/nanjing-sifang-museum/

65) 장현주(2016). Op. cit., p.15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와 같이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구현된 다양한 현상적 공간체험은 건축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장소적 경험을 생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장소와 융합된 공간의 현상적 체험은 빛과 색, 시간의 응축에 의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관람자의 지각적 사고를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스티븐 홀의 현상적 공간 구현 및 디자인방법은 정서적 의미생성을 촉진시키는 장으로써 현대의 뮤지엄 건축공간의 디자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66]

③ 피터 줌터의 현상학적 실천

피터 줌터의 건축은 특히 물질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재료의 사용을 대범하게 또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작품에서 중심적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건축 작품을 전개해 나갈 때 항상 새로운 각도와 상상력을 동원하며, 감각적이며 후각, 미각, 촉각, 청각 그리고 시각에도 기여를 한다.[67] 피터 줌터는 자신의 건축적 접근을 이렇게 말한다. '건축은 자신만의 세계를 소유한다. 그것은 인생과 특별한 자연적인 관계를 지니며, 메시지나 심볼로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건축에 포함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인생의 봉투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68]

피터 줌터의 건축은 구조와 형식이 뚜렷하고 논리적이며 디자인 아이디어와 재질을 엄격하게 따르며, 설계의 초기에 피터 줌터는 건축을 일종의 '분위기'라고 언급한다. 그는 손에 그려진 시각적 이미지를 정확한 단어를 찾아보고 공간의 형식, 재질, 색채, 빛의 그림자, 소리를 정의하며, 그가 조성한 공간에선 늘 감화력이 관람자와 거주자, 관람자에게 전달된다. 피터 줌터의 〈분위기(Atmospheres)〉라는 책에서 피터 줌터는 건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방식을 소개하며 건축 창작에 있어 '분위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는 이 책에서 건축 창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는 12가지 요소를 설명하였다. 건축의 몸(The Body of Architecture), 물질의 양립성(Material Compatibility), 공간의 소리(The Sound of a Space), 공간의 온도(The Temperature of a Space), 주변 사물(Surrounding

66) 장현주(2016). Op. cit., p.162.
67) 이상준, 김주연, 이종서. "피터줌터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0,no.1, 2009, p.342.
68)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Birkhauser, 2006, p.6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bjects), 안정과 유도 사이(Between Composure and Speduction), 여유와 유혹 사이(Between Composure and Seduction), 내부와 외부의 긴장(Tension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친밀함의 수준(Levels of Intimacy), 사물을 비추는 빛(The Light on Things), 환경으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surroundings), 일관성(Coherence), 아름다움의 형태(The Beautiful Form).

[표 2-13] 피터 줌터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

번호	요소	내용
1	건축의 몸	-몸 자신은 사람의 몸을 건드림 -세상의 여러 물질과 재료들을 모으고 혼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건축의 가장 위대한 것임
2	물질의 양립성	-물질의 상호작용임 -서로 다른 물질의 조합이 빛을 발함
3	공간의 소리	-소리를 모으고 증폭시키고 전달함 -이것은 방의 독특한 형태, 여러 마감재로 처리된 표면, 재료를 사용한 방식과 관련이 있음
4	공간의 온도	-모든 건축은 특정한 온도를 갖고 있음 -이런 면에서 온도는 물리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임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 발에 닿는 촉감 속에 존재함
5	주변의 사물	(사물의) 실존은 물질의 존재로부터 나옴
6	안정과 유혹 사이	-사람이 건축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고려함 -건축은 조형예술인 동시에 시간예술임
7	내부와 외부의 긴장	-건축은 지구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작은 박스를 세움 -그 순간 실내와 실외가 생긴다. 내부와 외부의 미묘한 전환, 놀라운 장소의 느낌임
8	친밀함의 수준	-근접성과 거리의 문제임 -건축의 척도의 활용, 정도의 사밀감, 친근감, 거리감의 창조임
9	사물을 비추는 빛	일종의 영적인 느낌까지 있음
10	환경으로서의 건축	모두가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됨
11	일관성	-모든 사물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감 -각자 자기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에 도달함 -여러 사물이 각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일관성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움
12	아름다운 형태	궁극적인 형태는 체험자를 감동하게 해야 함

* 출처:https://blog.naver.com/yuntae4511/222472383575(2022.2.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피터 줌터의 모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 요소로 끊임없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재료이자 물성들은 각각의 주제, 즉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물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공간의 구성요소로 사용함으로서 상징적인 의미,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피터 줌터의 디 자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지역적(장소성)이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지역적 기반들은 건축을 구축하는데 의미를 두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나 도시의 구성 요소인 건축물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되 도시 전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본질적 파악이 어려우며, 도시의 구성 특징들은 자연속의 건축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터 줌터 건축의 특징은 주변환경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69]

[표 2-14] 피터 줌터의 건축사례

작품명	그림	출처
Shelters for Roman archaeological site (1986) 스위스		https://www.douban.com/photos/photo/2197000636/#image
Kolumba - Erzbischöfliches Diözesanmuseum (2007) 독일		https://www.archdaily.com/72192/kolumba-musuem-peter-zumthor/25-custom?next_project=no
Bruder Klaus Kapelle (2007) 독일		https://www.douban.com/note/717990068/?type=like&_i=5272020ubX1GY_

피터 줌터는 그의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성과 지역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70] 피터 줌터의 건축은 현란한 조형적 효과, 표현만을 위한 기술적 장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건축은 장소와의 관계, 문화적 컨텍스

69) 이상준, 김주연, 이종서.(2009). Op. cit., p.343.
70) 김자영. "피터 줌터의 작품에 나타난 재료와 빛의 공간적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르더 클라우스 채플과 콜룸바 뮤지움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0,no.5, 2011, p.9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트상에서의 맥락, 그리고 공간의 근원적인 경험을 주요한 매체로 사용한다.[71] 피터 줌토르의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프로젝트는 건축의 더 의미 있는 특징들을 보여준다.[72]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건축가별, 건축용도별 그리고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감각적 건축경험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3명의 건축가의 건축적 사고와 작품은 문화적 정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각을 중점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감각적 요소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축경험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몸의 감각과 지각' 요소와 '몸의 움직임과 행동' 요소가 동시에 지각되고 개인적, 사회적인 '정서적 내면성'의 요소가 더해져서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진정한 건축경험이 될 수 있으며, 축척된 감각과 경험은 끊임없이 재구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감각경험의 재구조화 과정은 3명의 건축가 모두에게 있어 건축적 사고와 구축과정 전반에서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적 사고와 작품의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 감각이 관여' 하는 건축경험적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유하니 팔라스마와 스티븐 홀, 피터 줌터는 물질과 환경의 본질적 감각 차원에서 '인간의 다감각적 경험으로써의 건축'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방향에 있어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감각적 참여'의 경험은 현대 건축 특히 정서와 체험 중심의 건축(박물관, 예술관, 기념관 등)의 목표이자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건축현상학의 실용적 관점은 전체적인 체험과 경험, 지각 및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공간평가 방법을 제공하였다. 본 절에는 세 현상학 연구자가 주목한 현상학적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후속 논증 부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확장 및 통합하여 현상학적 평가요소를 공식화하고, 마지막으로 메모리얼공간 관련 사례를 평가할 예정이다.

71) 김자영(2011). Op. cit., p.87.
72) 김자영(2011). Op. cit., p.9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

3.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의 관계

3.2 메모리얼공간의 사례

3.3 선행연구 검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

3.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의 관계

21세기의 관광 형태는 단체 관광에서 개인 관광으로, 익숙한 장소에서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오지까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광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행 형태가 즐거움 위주에서 정신 고양과 영적 추구로 넘어 인간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73] 개인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체험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두운 관광체험은 기본적으로 관광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세계와 방문객 내부세계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노정연(2011)이 관련된 실험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크투어리즘의 문화적 속성은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감지 및 역사적 요인은 다크투어리즘을 선택할 때 중요한 속성이다.[74] 그러려면 장소가 갖는 특이성이 다른 형태의 관광과는 다른 성격의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관람자는 관광 행위자로서 행위를 통해 체험을 의미화하고 행위의 본질을 제시하며 관광객의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현상을 도출했다. 관람자가 겪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개인의 행동과 주관적이고 의식적 측면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75] 메모리얼공간은 문화적 지식을 인간의 일상으로 들어와 도시의 기억을 강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정신적 요망에 만족시킨다.[76]

하지만 메모리얼공간은 다크투어리즘의 수용체로서 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73) 김현주. "뉴 투어리즘의 대안, 음식관광". 한국관광정책, no.67, 2017, pp.79-84.
74) 배세연(2021). Op. cit., p.301.
75) 황지영. 템플스테이체험과관광진정성인식에대한현상학적연구 : van Manen 방법론을 중심으로. 2017.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3.
76) Ebru Erbas Gurler, Basak Ozer. "The Effects of Public Memorials on Social Memory and Urban Identity".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2013,no.82, pp.86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우가 많다. 우지연(2013)은 도시 구성원들이 함께 겪는 트라우마 속 회복과 사회 치유, 정서 재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김지우(2020)는 한국의 메모리얼공간은 시간이 지났지만 뚜렷한 전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단했으며 오늘날의 관람자 수요 변화나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역사의 기념방식이 권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억과 기념에 대한 역사적 증명을 바탕으로 감성과 풍부한 메모리얼공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많은 학자가 기존의 공간과 '사람의 신체 이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 표현을 모색하고 있다. 악내화(岳乃华, 2011)은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메모리얼공간의 특징과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기념대상에 대한 기억, 애도, 치유, 역사를 기억하는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의 몸과 활동, 지방에 대한 감각, 시간에 대한 감각,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였다. 원에진(2020)은 메를로 퐁티의 신체이론을 애도와 결합해 관람자들이 신체의 지각을 통해 느끼는 상실, 죽음을 진정한 애도로 만들어 신체와 애도, 공간의 관계성을 밝혀주며, 애도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의 애도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채원 외(2020)는 메를로 퐁티의 이론을 응용하여 복잡한 문화공간을 연구했다. 복잡한 문화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학적 특징과 현상학적 공간 경험을 반영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연구자의 현상학적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은 다크투어리즘에 관해 토론하였다. 전반적으로 메모리얼공간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메모리얼공간이 주는 정신적 욕구는 무시할 수 없다. 도시진흥발전이나 사람들의 정신적 욕구 발전이나 전통의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메모리얼공간은 그 자체로 완결의 미적이고 상징적인 가치를 중시한 반면 현대도시의 메모리얼공간은 공공공간으로서 체험과 소통과정을 중시하였다. 관람자의 체험은 메모리얼공간의 구조와 연관되어 다양한 체험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공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관람자와 물리적이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메모리얼공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한 메모리얼공간은 감성적 디자인 요소의 연구와 공간 전시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선 등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간의 전체적인 인지적 고려가 포괄적이지 않고 체험자 중심의 사고가 부족하고, 건축현상학은 장소구성으로 메모리얼공간의 기념정서의 정확성과 연속성, 완전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감각적 체험을 장소구조의 근거와 결과물로 삼아야 한다.

건축현상학의 이론과 실천연구를 전제로 그 연구방법을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접목하여 다음 장에 거시적인 이론지도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연관성 설명하고자 한다.

(1) '정박(Anchoring)'과 다크투어리즘 장소 기억의 연관성

건축의 대가 I. M. 페이(Ieoh Ming Pei)는 '건축가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그것(장소와 그 역사)을 발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 시들어 버릴 수 있고 흥분하지도 않고 성취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77] 노르베르크 슐츠는 '한 장소의 정체성은 블록, 일반적인 공간 배치와 특성의 명료성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경우에도 강한 장소는 기지, 취락, 건축 세부와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78] 스티븐 홀은 발굴 프로젝트와 장소와의 독특한 관계를 의미 있게 보고 이를 '정박'이라고 불렀다. '정박'을 거치면서 건축가는 그 장소에 깃든 독특한 자연 환경적 특질과 역사 인문적 함의를 발굴하여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보존을 바탕으로 한 메모리얼공간 배치와 서열조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정 장소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얼공간의 기념 경지를 근원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특징 없는 동일하고 균질적인 '장소'를 구체화된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활성화하는 바탕이 된다.

77) 필립 주디디오, 재닛 애덤스 스트롱, 이가결 역. 베이위밍 전집. 전자공업출판사, 2011.
78) 노르베슈츠, 시식명 역. 장소정신: 건축현상학으로 나아가다. 화중과기대 출판사, 20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얽힌 경험(Enmeshed Experience)'과 다크투어리즘 공간체험의 연관성

스티븐 홀은 몸이 공간을 누빌 때 느끼는 모든 것이 '얽힌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광경은 앞·중·원경의 빛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사람의 진행 과정은 겹겹이 펼쳐지는 공간의 동선이다. 얽힌 경험은 한순간의 감각 포착이 아니라 행진하면서 겹겹이 쌓인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과 이를 통해 공간 전체의 경지에 대한 체험이다. 즉, 얽힌 경험은 사람이 공간의 진행 과정에서 정적인 상황조성과 동적인 스토리텔링 조직에 대한 체험이며, 메모리얼공간 차원에서 디자이너가 공간의 각 요소를 활용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얽힌' 디자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얽힌 디자인에서 공간은 계층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각 공간적 요소가 다른 요소의 중경, 원경, 조경, 대경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평가연구는 하나의 요소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 관계, 체량 관계를 따져 공간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

(3) '시적 거주(Poetical Dwelling)'과 공간 다크투어리즘 정신과 정서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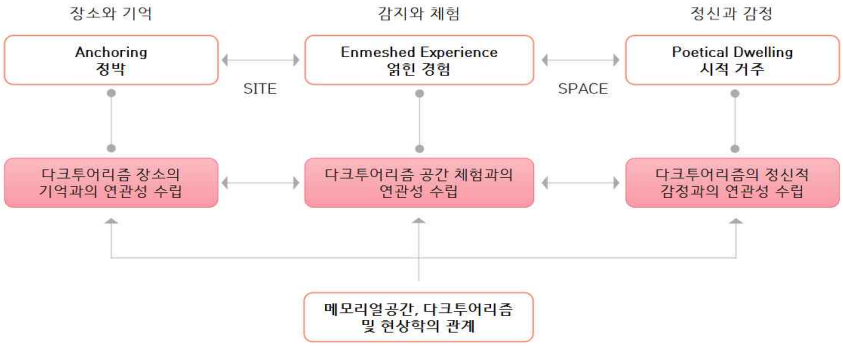
하이데거는 홀더린(Holderlin)의 시 중 '사람의 시적인 거주'를 매우 추앙하며, 이를 '신들의 현재에 있으면서 사물의 본질에 가까운 떨림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현상학에서는 이 시구를 공간정신의 원천, 즉 '시'가 장소정신의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다. '거주(栖居)'는 '정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적'인 건축과 공간을 도출하여 장소정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축과 공간을 말한다. 장소정신은 건축과 공간의 체험적 특질로서 구체적인 건축과 공간의 조형, 형태, 인터페이스 처리 등 지각계에 포착되고 감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형태를 시사하며 메모리얼공간은 내부와 외부공간 자체는 말할 수 없으나, 건축가가 전하고 싶은 장소정신과 사상의 함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구성요소의 표현이다. 건축은 공간서열의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노드로서 얽힌 체험요소 중 가장 표현력이 뛰어나고 직관적인 요소이며, 공간의 구성요소로는 비례와 척도, 빛과 색채, 재질과 근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의 특질적 표현을 통해 메모리얼공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은 내·외부 공간장소의 의미와 비범한 연관을 완성하였다. 메모리얼공간은 행위와 감정발생을 기념하는 장소이다. 공간설계를 할 때 건축가는 공간형태의 상징으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이후 인터페이스의 처리와 빛의 활용에 맞춰 삼자적 시너지를 통해 공간의 정서적 특질을 표현하고 공간정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현상학적 '시의 주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도시발전의 필연적인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얼공간의 감성과 경험연구에 대한 현실적 의미가 강하며,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에게 좋은 경로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메모리얼공간을 재조명할 수 있으며, 또한 메모리얼공간인 다크투어리즘의 체험을 향상시켜 도시의 역사와 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적 욕구에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및 현상학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한다.



[그림 3-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구현방법의 관계도

3.2 메모리얼공간의 사례

2000년 이후 다크투어리즘이 새로운 절정에 달하면서 국지전, 지진, 비행기 추락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쟁, 재난 유형의 메모리얼공간 체험이 다크투어리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앞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피터 호헨하우스(Peter Hohenhaus, 다크투어리즘의 연구자)가 https://www.dark-tourism.com 웹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이트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순위(Darkometer 순위)[79]를 중간 이상(Darkometer ranking list 4이상)의 3가지 유형 사례 중 4개를 분석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주로 지역에서 영향력과 독특성이 있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작품이며, 디자인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팀이 설계하거나 이미 설계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둘째, 규모는 3000㎡ 이상이며 공간기능이 비교적 우수한 곳이다. 셋째, 일정한 소리, 빛, 전기와 가상기술을 결합할 수 있어 체험성이 강한 곳으로, 사례공간 특성의 기본 정보, 공간 특성의 표현, 공간 구성의 방식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사례를 조사한다.

[표 3-1] 사례 선정 기준

사례명	유형	독특성	Darkometer 순위
베를린 유대박물관	홀로코스트	패전국이 전쟁을 반성하여 설립하였음	7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		유대 국가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7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	핵재난	핵 재난의 위치	10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	수용소	확장하여 재개방 (2021년 개방)	4

3.2.1 베를린 유대박물관

베를린 도심과(Judisches Museum) 가까운 데에 세워진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80]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 최초의 홀로코스트(Holocaust) 박물관이다.[81] 박물관은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 박해와 학살의 역사를 포함해 2,000년 동안의 독일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전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추념까지 포함하면 역사적 유물과 생활기록이 주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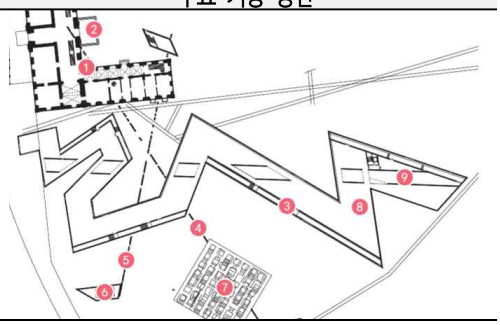
79) 1-3 -- a rating within this bracket means only mildly dark.
4-6 -- a rating within this range means medium dark.
7-9 -- these are the really dark places.
10 -- this top rating means the very deepest darkest of the dark.
(출처:https://www.dark-tourism.com/index.php/netherlands/18-main-menus/mainmenussubpages/597)
80) https://www.jmberlin.de/liste-museumsgeschichte
81) 이정화.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베를린유대박물관". 전시디자인연구, vol.9,no.1, 2012, p.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뤄 전시물 3,900여 점에 달한다. 박물관의 지그재그로 배치한 건축은 망가진 다윗의 별을 상징하며, 시간의 터널을 열어주고 독일 유대인들의 2000년 생활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베를린의 랜드마크로 건축구상에서 지하입구 형식을 통해 신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연계시켰고 이런 건축 양식을 통해 도시와 유대인의 관계를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과 예술, 건축의 결합을 통해 유대인의 역사와 비참한 운명을 유대 기호와 공간관계로 풀어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잇는 운반체가 됐다.

[표 3-2]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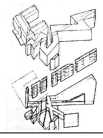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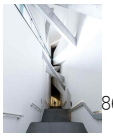
<table>
<tr><th colspan="4">프로젝트 이름</th><th>주요 기능 공간</th></tr>
<tr><td colspan="4">베를린 유대박물관</td><td rowspan="6">  </td></tr>
<tr><th>지역</th><th>오픈 타임</th><th>면적</th><th>설계자</th></tr>
<tr><td>독일
베를린</td><td>2001</td><td>3,500m²</td><td>Studio
Libeskind</td></tr>
<tr><th colspan="4">도면 정보</th></tr>
<tr><td colspan="2">1.입구</td><td>2.유리의 정원</td><td>3.연장 축</td></tr>
<tr><td colspan="2">4.망명 축</td><td>5.대학살 축</td><td>6.대학살탑</td></tr>
<tr><td colspan="2">7.망명정원</td><td>8.전람하다</td><td>9.메모리 공백</td></tr>
</table>

(1) 공간 구성

베를린 유대박물관은 원래 18세기 바로크 베를린 박물관을 기반으로 확장된 분기형 건축이다. 디자이너 다니엘 리베스킨드는 구관과 신관을 이색적인 방식으로 연결해 박물관의 출입구 디자인을 구 바로크 양식의 본관 내부로 설계했고, 관람객은 구관에서 신관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신관의 길은 세 줄이 그사이를 가로질러 비교적 참신하다. 첫 번째 길은 예각으로 기울어진 전시 공간으로 향한다. 다른 길은 20m 높이의 검은 굴뚝같은 공간인 성탑으로 이어지며, 안으로 들어서면 과거 유태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가만히 서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길은 바닥에 수직으로 나지 않는 경사진 격자형 평면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구성된 야외 호프만 공원으로 연결된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험난한 걸음을 내딛는 유태인들의 고단한 여정이 국경을 넘어 해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3]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공간 구성

공간 구성	사진	내용
전체구성		다니엘 리베스킨드는 '조직'과 '관계'라는 두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두 가지 라인을 구현했다. 하나는 많은 다른 원소에 의해 조각으로 분할된 직선이고. 다른 하나는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 표현이다.[82]
외부공간	83)	외부에서는 바로크 기존 건축, 새 박물관 본체(유대인 기념관), E.T.A Hofmann 정원, 높은 탑 등 4개의 단독 건물들을 볼 수 있다. 그 형태는 선명하고 독립적이어서 주제별로 각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추모공간	84)	사람들이 전시장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좁지만 깊고 위로 뻗은 원통 모양의 공간이 보인다. 지붕 선루프에서 들어오는 빛은 공간의 공허함을 증가시켜 관람자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추모의 공간을 마련한다.
전시공간	85)	조형적 공간 디자인과 적절한 색채 적용을 통해 기존의 박물관 전시형식을 탈피해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연결공간	 86)	지하에서 분리된 세 개의 길에서 비교적 많은 경로 변화를 주어 노드 공간으로의 전환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상설 전시공간으로 통하는 연속축은 8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길고 좁은 계단 칸이다. 이 계단은 각 층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벽면에는 긴 대각선 창문이 있어 공간의 방향성을 부각시켰다.
명상공간	87)	박물관의 한 축 끝에는 무거운 철문 뒤에 숨어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공간은 매우 높고 윗부분에만 약간의 빛이 있다. 이 공간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슬픈 분위기를 느끼며 생각과 명상을 하게 된다.

(2) 공간의 특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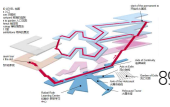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공간적 특성을 표현할 때, 서사적 기법을 적용해 전시 내용과 결합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표현했는데 신체의 경험적 특성은 다중 참관노선을 통해 강화된다. 장치와 음향광학 기술을 통해 공간의 예술성을 높이고 감

82) 이정화.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베를린유대박물관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전시디자인연구, vol.2008,no.11, 2008, p.9.
83) https://www.sohu.com/a/484717938_121124385
84) https://zhuanlan.zhihu.com/p/258085820
85) http://blog.sina.com.cn/s/blog_161f83a500102whw3.html
86) https://zhuanlan.zhihu.com/p/258085820
87) https://www.sohu.com/a/484717938_12112438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각과 지각 체험의 차원을 확장했다. 갤러리, 정원 등을 통해 일상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했고 공간의 감성적 체험은 가상의 공간 및 빛과 어둠의 처리를 통해 강화되고 일종의 '부재'가 '존재'로 강조되며 '공허함'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난다. 구체적인 특성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3-4]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공간 특성 표현

특성	사진	표현
기억성	88)	홀로코스트의 축은 홀로코스트 피해를 입은 일부 유대인들의 개인 물품과 사진, 서류, 기념품 등을 전시한다. 공간 형태의 변화를 결합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전시 내용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전시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
참여성	 89)	지하 1층에는 4개의 구역이 있는데, 미샤 쿠볼의 공간장치 외에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디자인한 홀로코스트의 축, 망명의 축, 연장의 축 등 3개의 축을 설계했다. 세 개의 축은 서로 다른 참여 체험을 선사한다.
은유성	90)	건축 언어는 직선과 접선을 응용했다. 서로 다른 두 건축선은 각각 잃어버린 뒤 회복되지 못한 베를린의 역사와 역사 속 유대 문화가 차지하는 깊이를 상징한다. 두 벽이 평행선처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갈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복합성	91)	박물관은 일상적인 전시공간과 함께 갤러리, 유리 정원 등을 통해 일상적인 도시 교류 공간을 형성했다.
예술성	92)	박물관에 이스라엘 조각가 메나쉬 카디시만의 설치 작품인 팔렌 리브스(낙엽)가 전시되어 있다. 만 개가 넘는 둥근 얼굴들이 두꺼운 쇠쟁반에서 잘려나갔고, 입이 큼직하게 벌어졌다. 그들은 소리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치유성	93)	망명정원 다니엘 리베스킨드에는 7x7 총 49개의 커다란 시멘트 기둥이 세워져 있다. 시멘트 기둥에 식물을 심어 이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기념비에 생기를 더해준다. 무성한 풍경은 삶의 희망을 준다.
가상성	94)	박물관은 예술가의 설치 작품을 가져와 회전식 투영으로 벽과 바닥, 천장에 조명을 투사해 이리저리 움직인다. 거울의 반사와 번뜩이는 빛 펄스를 통해 명암의 변화를 만들어내 일종의 건물과 피부 사이의 공명을 이끌어낸다. 번개나 등원의 명암 변화, 그리고 배경음이 장면을 구성하여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 역사의 시대로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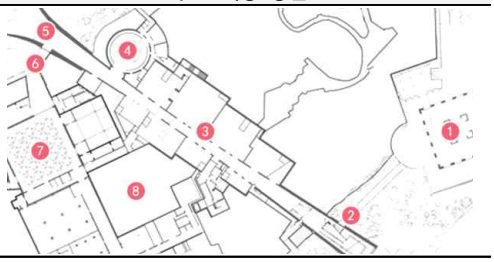
88) https://www.vsszan.com/forum.php?mod=viewthread&tid=107555&from=&attachpage=13
89) https://zhuanlan.zhihu.com/p/258085820
90) https://www.sohu.com/a/167720098_281892
91) https://gs.ctrip.com/html5/you/travels/306/1638835.html
92) https://history.sohu.com/a/211714173_479934
93) https://history.sohu.com/a/211714173_479934
94) https://m.sohu.com/a/246206745_306436/?pvid=000115_3w_a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2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

2005년 건립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Yad Vashem Holocaust Museum)[95]은 캐나다 국적의 이스라엘 디자이너 모세 사프디(Moshe Safdie)가 디자인한 것이다.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길이는 180m, 각기둥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벽면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다. 4,200여㎡의 부지에 총 10개의 전시공간이 있는 주요 전시공간은 각 전시 공간마다 홀로코스트 역사의 한 부분을 전시한다. 사진이 전시된 대부분의 이전 박물관 전시회와는 달리, 새 박물관에는 세계 대학살 생존자, 박물관 및 기념비의 280개의 예술품과 2,500개의 소개 및 개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전시품이 있다.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은 기록, 연구, 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람자들이 체험과 교류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또한 매년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행사를 열어 역사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96]

[표 3-5]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의 기본 정보

<table>
<tr><th colspan="4">프로젝트 이름</th><th>주요 기능 공간</th></tr>
<tr><td colspan="4">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td><td rowspan="5">  </td></tr>
<tr><th>지역</th><th>오픈 타임</th><th>면적</th><th>설계자</th></tr>
<tr><td>이스라엘
예루살렘</td><td>2005</td><td>4,200m²</td><td>Moshe
Safdie</td></tr>
<tr><th colspan="4">도면 정보</th></tr>
<tr><td colspan="2">1.관광객센터</td><td>2.입구</td><td>3.전시장</td></tr>
<tr><td colspan="2">4.네 명의 녹당</td><td>5.조망구</td><td>6.출구</td></tr>
<tr><td colspan="2">7.정원에 가라앉다</td><td>8.기념당</td><td></td></tr>
</table>

(1) 공간 구성

기념관은 다리를 통해 입구와 출구를 연장했고 입구에 휴게소가 있으며, 주 전시공간은 반으로 둘러싸인 작은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형식과 건축구조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건축의 질감과 구조를 잘 보여준다. 이 공간에는 줄이 있

95) https://www.yadvashem.org
96) http://mil.news.sina.com.cn/2005-03-17/0726273589.htm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며 관람객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각 전시장은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사건을 챕터 형식으로 보여준다. 관람 후에는 출구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멀리 바라보거나 명상을 할 수 있고 주요 전시관 외에도 기념관, 갤러리, 가라앉은 정원 등의 기능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표 3-6]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의 공간 구성

공간 구성	사진	내용
전체구성		기념관의 외형은 삼각형 구조로 별다른 장식이 없다. 내부는 조명이 없고, 복도 전체가 지붕의 긴 채광창에 의해 공간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다. 출구는 산 중턱에 있고 아래쪽 골짜기가 보인다. 독특한 환경과 고도가 다른 공간, 명암 등이 다른 공간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한다.
외부공간	97)	기념관은 반쯤 땅에 묻혀 있다. 건물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있고 긴 복도와 플랫폼을 통해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은 공원에 있고, 기념당, 가라앉은 정원 등과 다양한 형태의 체험코드를 형성했다.
추모공간	98)	추모공간(기념당)은 매끄러운 콘크리트와 거친 돌을 사용했고, 실내는 반듯하며 윗부분은 약간 융기됐다. 깨끗하고 캄캄한 바닥에는 22개 나치 수용소의 이름과 꺼지지 않는 희미한 불빛이 새겨져 있다.
전시공간	99)	전시관은 10개의 전시장이 긴 복도로 연결돼 있는데 전시관마다 전시 내용이 다르다. 전시는 홀로코스트 속에서 살해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연결공간	100)	기념관 입구에는 긴 통로를 만들어 관람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구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관람자의 감성을 달래준다.
명상공간	101)	기념관 내부 출구에 골짜기를 마주한 전망대를 설치해 관람자들은 성찰과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주제를 승화시켜 사고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2) 공간의 특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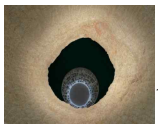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간적 특성표현에 있어서 빛과 상징적 요소의 작용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기호의 반복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인상이

97) https://www.yadvashem.org/museum/holocaust-history-museum.html
98) http://blog.sina.com.cn/s/blog_715d89fe0102w7ka.html
99) https://www.archdaily.com/179679/yad-vashem-holocaust-museum-safdie-architects
100) http://blog.sina.com.cn/s/blog_4dc5ae5301010a83.html
101) http://itech.ifeng.com/41608304/news.shtml?&back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형성되어 기억이 강조된다. 파고드는 공간 형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차단된 공간을 만들어 경험을 강조하고 공원 환경과 추모공간을 통합하여 일상 공간의 참여감을 높이고 체험의 감정을 완화시켜 감정의 치유를 돕는다. 조명 환경의 설계를 통해 공간의 시공간이 강조되었으며 물의 가상 반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다.

[표 3-7]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박물관의 공간 특성 표현

특성	사진	표현
기억성	102)	쐐기형 단면의 공간은 깊은 협곡처럼 위압감을 준다. 이러한 공간 형태는 입구 로비, 중심축 공간, 그리고 야외경관구역의 구조물에서 여러 번 등장하여 주제를 명확히 하고 기억을 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성	103)	기념관에서는 S자 모양의 전시유선이 중앙의 축선 공간을 가로지르며 축선 공간이 주는 기념을 여러 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은유성	104)	기념관은 재료와 형태를 통해 환경 속에서 일정한 은폐를 이루고 있다. 하늘에서 보면 이 긴 모서리 기둥은 예루살렘 옛 도시까지 가는 화살처럼 보인다.
복합성	105)	메모리얼공간은 공원 환경에서 관람과 체험을 만족시키면서 일상적인 공간을 많이 형성한다. 내려앉은 정원처럼 올리브나무가 매트릭스 형태를 이루고 있어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관람자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예술성	106)	기념관 중축 구역과 각 전시장에 많은 자연광의 조명을 사용하여 면적이 작은 지붕창이 어두운 실내 공간과 대비를 이루도록 한다. 공간은 기념하는 목적을 살리면서도 묵직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치유성	107)	기념관과 공원이 결합하여 다양한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공간 간, 그리고 공간과 경관 간에는 많은 감정 노드가 형성된다. 체험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마음의 편안함과 감정의 치유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가상성	 108)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적용하지 않고 자연의 비물질적 요소와 건축의 실제 구조를 조합한 것이다. '명록당'에는 길이 약 10m의 거꾸로 된 테이퍼가 있는데, 그 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바닥이 지하 바위 속으로 뻗어있다. 또 다른 바닥의 테이퍼에는 대학살 희생자 사진과 개인 기록 600개가 올려져 있다. 테이퍼 상단에 새겨진 사진은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밑부분의 테이퍼 물에 거꾸로 남아 있다.

102) http://travel.qunar.com/p-oi5103774-yiselieyoutaidatushaji
103) http://travel.qunar.com/p-oi5103774-yiselieyoutaidatushaji
104) https://www.archdaily.com/179679/yad-vashem-holocaust-museum-safdie-architects
105)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1/27/c_139702211_4.htm
106) http://blog.sina.com.cn/s/blog_4dc5ae5301010a83.html
107) http://travel.qunar.com/p-oi5103774-yiselieyoutaidatushaji
108) https://www.archdaily.com/179679/yad-vashem-holocaust-museum-safdie-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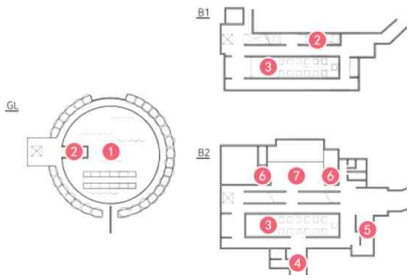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3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

나가사키평화공원은 원자폭탄의 중심지인 북쪽 구릉에 위치해 있으며 공원 내에는 평화기념상, 평화기념관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다.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Nagasaki National Peace Memorial Hall for the Atomic Bomb Victims)은 2001년 공사가 시작되어 2003년 개장하였다. 이는 물에 대한 갈망 속에 숨진 원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계됐다. 매일 밤 기념관의 원형 수반(水盘)에는 7만 개의 불빛이 비춰져 원래 원자폭탄을 당한 7만 명의 생명을 상징한다.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은 기념공원과 연계하여 전쟁유적 보존과 기념시설 건립을 도시 전체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켰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과 전시 방식은 나날이 현대화되고 다양해졌으며 연구와 자료수집, 전시와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다.[109)]

[표 3-8]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의 기본 정보

<table>
<tr><th colspan="4">프로젝트 이름</th><th>주요 기능 공간[110)]</th></tr>
<tr><td colspan="4">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td><td rowspan="4"> 
</td></tr>
<tr><th>지역</th><th>오픈 타임</th><th>면적</th><th>설계자</th></tr>
<tr><td>일본
나가사키</td><td>2003</td><td>15,391m²</td><td>쿠류 아키라
(AkiraKuryu)</td></tr>
<tr><th colspan="4">도면 정보</th></tr>
<tr><td colspan="2">1.수반</td><td colspan="2">2.진입계단</td><td>3.추모공간</td></tr>
<tr><td colspan="2">4.추모공간 전실</td><td colspan="2">5.영정수기 열람실</td><td>6.평화정보코너</td></tr>
<tr><td colspan="2">7.교류 홀</td><td colspan="2"></td><td></td></tr>
</table>

(1)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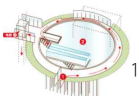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원폭 사상자 유족의 요구를 충분히 중시해 건축 대부분을 땅에 묻었다. 건축의 지상 부분은 둥근 모양의 '수반'이다. '수반'은 '참관'하는 순환도로로 건축

109) https://new.qq.com/rain/a/20201022A00NUR
110) 배세연(2021). Op. cit., p.17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입구는 수반 사이로 지하로 통하며 지하 1층, 2층이 주요 기능 공간이다. 지하 1층에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도실과 추모실이 있고 지하 2층은 건축의 핵심 부분인 기도공간과 함께 희생자 정보검색, 기록 열람 공간, 국제협력 교류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표 3-9]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의 공간 구성

공간 구성	사진	내용
전체구성	 111)	지하 1층에는 회고록과 기념관 다락이 있다. 회고록 구역은 폭격 생존자나 가족, 지인들이 기증한 원폭 회고록을 제공한다. 기념관 다락방에서는 기념관과 그 기능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이 다락방의 창문은 지하 2층 기도공간을 내려다보면서 관람자들이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평화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공간	112)	기념관은 공원 환경에 위치하며 주변 나무들이 함께 건축을 둘러싸며 기념관 주변에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차량 소음의 영향을 줄이고 주변 건물, 차량에서 방문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했다.
추모공간	113)	추모 공간에는 1m짜리 유리로 된 네모난 기둥 12개가 서 있고 조명이 내장돼 있다. 디자이너는 이 투명한 네모난 유리 기둥 12개를 교묘하게 활용해 관람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적 공간의 높이와 질감을 부각시킨다.
전시공간	114)	평화기념관은 원폭 희생자 노트를 수집, 검색 및 열람하는 것을 건축의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노트 전시공간에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 관계자들이 제공한 원폭 투하 경험기록 일부가 전시돼 있다.
연결공간	115)	추모 공간 현관은 애도 공간으로 들어서기 전 관람자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곳이다. 모니터 화면에는 본관에 등록된 원폭 사망자의 이름과 영정이 각각 표시돼 있다.
명상공간	116)	교류와 휴게실 앞에는 잔잔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한가운데에는 물이 가득하다. 이곳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가끔 교류 학습도 할 수 있다.

(2) 공간의 특성 표현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의 공간적 특성을 표현함에 있어 과거역사를 위한 기도가 더욱 돋보인다. 물, 빛, 참관의 세 가지 요소인 디자인은 예술성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상상력을 강화했다. 물을 사용하여

111)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12)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13)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14)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15)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16) https://www.peace-nagasaki.go.jp/zh/video-long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물에 대한 희생자들의 욕망을 은유하고, 자연광 설계를 통해 시간적 차원을 공간에 담아 참여성을 높여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부각시켰고 인공적 점광원 디자인으로 공간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가상성 또한 부각시켰다. '참관' 체험과 소통의 공간에서 명상을 통해 관람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일상과 추억이 결합한 풍부한 행사와 다큐멘터리, 공원과 기념관의 결합은 일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일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희생자 기록 및 명단 표시를 통해 역사적 기억과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표 3-10]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의 공간 특성 표현

특성	사진	표현
기억성	117)	기도실은 원폭의 중심 방위를 향하고 있다. 실내 맨 끝으로 가면 유리로 만든 원폭 희생자들의 명부 선반이 놓여 있다. 전쟁의 희생양으로서 설움을 담는다.
참여성	118)	내부적으로 폐쇄된 지하 추모 공간(기도실)에 있는 관람자들도 지상의 벽 기념비로 둘러싸인 선루프의 방향성을 활용해 물질적과 심리적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의 방향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은유성	119)	설계자는 고인이 죽을 때까지 갈구하는 물을 건축의 맨 윗부분에 배치해 전쟁의 아픈 기억과 평화를 상징하는 희망을 고정시켰다.
복합성	120)	평화공원 내부에 건립된 기념관은 일상적인 도시활동과 함께 전시, 축복, 강좌, 희생자 사연 공유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체험을 진행한다.
예술성	121)	이 기념관의 전체적인 디자인 주제는 '물, 빛, 순행, 기도공간 구축'이다. '정적 건축공간의 성질이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유성	122)	원형의 수판은 고요하고 맑으며 신비롭다. 잔잔한 물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닦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거대한 수판을 둘러싼 '순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성의 기도로 이끈다.
가상성	123)	수판에 있는 미약하지만 밝은 7만개 이상의 빛은 1945년 유엔에 보고된 원폭 희생자의 수를 나타낸다. 광케이블은 슬레이트의 작은 구멍을 통해 7만 망령의 평화를 상징하는 빛을 물속에 투영했다. 차가운 색채의 기념비 거꾸로 비친 그림자와 부드러운 빛이 물속에서 흔들리면서 기원과 추모의 정서를 자극한다.

117)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18) http://travel.qunar.com/p-pl5752194
119)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20) http://travel.qunar.com/p-pl5752194
121) https://www.peace-nagasaki.go.jp/zh/video-long
122)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123)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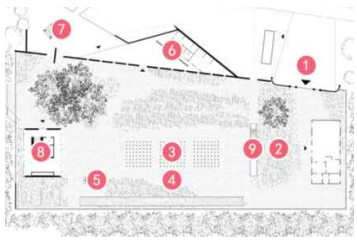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4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Nationaal Monument Kamp Amersfoort New museum)[124]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기념관으로, 부지 면적은 3817m² 이다. 장소 디자인의 일부는 2005년에 완공되었으며 이후 디자인은 2021년에 완공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이곳은 약 47,000명의 수감자들을 위한 환승역이자 강제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경관과 건축 및 전시물 등은 수용자와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억압과 불공평,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간체험을 통해 전면에 드러낸다.[125]

새로워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은 건축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 기존 도시의 역사 유적과 주변 생태계가 어우러지도록 했다. 기존 기능에서 교육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좀 더 중요한 방식으로 삼았고, 전시 교류, VR 체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관람자의 지식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126]

[표 3-11]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기본 정보

<table>
<tr><th colspan="4">프로젝트 이름</th><th>주요 기능 공간</th></tr>
<tr><td colspan="4">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td><td rowspan="3">  </td></tr>
<tr><th>지역</th><th>오픈 타임</th><th>면적</th><th>설계자</th></tr>
<tr><td>네덜란드</td><td>2021</td><td>3,817m²</td><td>Inbo</td></tr>
<tr><th colspan="4">도면 정보</th></tr>
<tr><td colspan="2">1.입구</td><td colspan="2">2.원장 모형</td><td>3.발자취</td></tr>
<tr><td colspan="2">4.커맨더 버그 부츠</td><td colspan="2">5.시계탑</td><td>6.관 (2005)</td></tr>
<tr><td colspan="2">7.원시전망탑</td><td colspan="2">8.지하 전시 공간입구</td><td>9.전시공간 출구</td></tr>
</table>

(1) 공간 구성

건축, 경관, 전시는 긴밀한 통합 관계를 보여준다. 건축 설계에서 인보(Inbo)는 낮선 블록을 끼워 넣어 경관을 어지럽히는 대신 의도적으로 주변 경관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관람자들이 원래의 대문을 통과하면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열린 정원

124) https://www.kampamersfoort.nl/
125) https://www.gooood.cn/kamp-amersfoort-exhibition-by-tinker-imagineers.htm
126) https://gavindesign.com/helanerzhan-jinianguansheji.htm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열린 정원은 지하박물관의 새로 지은 지붕으로, 사람들이 정원을 거닐며 유서 깊은 수용소의 흔적과 다양한 추상적 예술품을 탐색할 수 있다. 지하 전시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은 이곳에 감금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캄프 아메르스포르트 수용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고 지하 전시공간을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서면 관람자의 시선은 예전에 사형 집행장이었던 곳으로 향한다.

[표 3-12]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공간 구성

공간 구성	사진	내용
전체 구성	127)	이것은 공허함과 초라한 체험을 중심으로 한 쇄신과 확장의 한 예이다. 디자이너는 비어 있는 외부공간을 지나 새로운 지하전시관에 이르는 코스를 만들었다. 빛에서 어둠으로,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코스는 관람자들에게 심리와 행동 체험을 선사했다.
외부공간	128)	-외부공간은 유적을 충분히 보존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내려앉은 전시공간은 바닥에 충분한 정원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관람자 센터 건축은 경사진 지붕의 설계를 통해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추모공간	129)	석인 기념 조각상은 관람의 종점이다. 이곳에서는 관람자들이 조형물을 둘러싸고 추모행사를 할 수 있다.
전시공간	130)	전시공간에서는 수용소의 삶이 드러난다. 벽에 있는 큰 폭의 지도는 죄수들이 드나드는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은 단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 거대한 기둥 위의 사진들은 그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초상화 아래 서랍에는 사물이 전시돼 있어 오디오 기기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연결공간	131)	넓은 정원과 정원의 모형, 군화 등을 통해 연장된 과도기 체험을 형성하여 지하 전시공간 관람을 위한 심리적 준비를 구성한다. 전시공간 출구는 좁고 긴 계단을 통해 아래쪽 어두운 공간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밝은 공간으로 감정의 전이를 이루고 있다.
명상공간	132)	지하 관람이 끝나면 관람자들은 성찰하는 공간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현대 사회의 곤경에 대해 생각한다. 그 공간을 관통하는 발자국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맡은 역할을 상기시킨다. 정면에 수직으로 된 거울 벽은 소감을 적는 데 사용한다.

(2) 공간의 특성 표현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공간적 특성은 역사유적과 잘 결합해 있다. 장치, 조각, 흔적을 통해 장소의 기억을 높였고 동반자의 스트레스, 권위, 믿

127) https://www.gooood.cn/camp-amersfoort-national-monument-by-inbo.htm
128) https://www.gooood.cn/camp-amersfoort-national-monument-by-inbo.htm
129) https://www.kampamersfoort.nl/rondleiding-en-educatie/rondleiding-en-projecten-educatie/
130) https://www.gooood.cn/kamp-amersfoort-exhibition-by-tinker-imagineers.htm
131) https://www.gooood.cn/camp-amersfoort-national-monument-by-inbo.htm
132) http://itech.ifeng.com/41608304/news.shtml?&back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음 등에 대한 더 많은 사고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형성하였다. 전시의 효율적인 디자인을 통해 대비된 기법을 적용해 사건의 은유를 형성하였고 건축 형태의 소멸은 메모리얼공간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강화하여 일상적인 공간 경험의 감각을 형성한다. 빛과 거울을 예술화하여 공간의 효과를 만들고 사건의 사고를 형성하며 뉴미디어의 활용은 사회적 실험과 VR체험을 통해 대중에게 경고와 교육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치유의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표 3-13] 캄프 아메르스포르트수용소 국립기념관의 공간 특성 표현

특성	사진	표현
기억성	133)	유리 발자국은 지하 다목적 공간에 로맨틱한 조명을 제공했다. 수감된 사람들은 비록 없어졌지만, 이 구상적인 예술품은 계속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참여성	134)	기념관은 관람자를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웠다. 초등학생이 실내와 실외를 둘러보고 박물관의 교육카드를 첨부하는 식이다. 학생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게 하고, 질문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게 한다. 이 밖에 중학교·대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체험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융합해 역사의 이해를 높였다.
은유성	135)	-식당의 커다란 유리벽은 전망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용소 운영 시 절대적인 관찰 통제를 상징한다. -전시는 오늘날의 불공정 현상을 반영한다. 기둥 뒤에는 기아, 학대, 차별 등 수용소에서의 범죄가 진열돼 있다.
복합성	136)	건축은 은폐된 디자인을 통해 일상적 공간과 기념공간의 거리를 좁혔다. 자연과의 친밀함은 사람들이 건축에 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저절로 생겨났다.
예술성	137)	-유리로 만든 발자국은 정원 예술품의 포인트다.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서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던 사람들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다. -명상공간의 미묘한 불빛과 연기 효과 속에서 벽은 관람자 자신의 영상을 반영한다. -'내가 방금 뭘 겪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치유성	138)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성찰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의 어려움을 집단에 알리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이 흑백이 아니며 사람은 누구나 매일 자기 행동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상성	139)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성찰 프로그램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매체로 한다. 박물관의 특수한 환경에서 오늘날의 여러 가지 화제를 탐구한다.

133) https://www.gooood.cn/camp-amersfoort-national-monument-by-inbo.htm
134) https://tinker.nl/en/work/national-monument-kamp-amersfoort
135) https://tinker.nl/en/work/national-monument-kamp-amersfoort
136) https://www.gooood.cn/camp-amersfoort-national-monument-by-inbo.htm
137) https://tinker.nl/en/work/national-monument-kamp-amersfoort
138) https://tinker.nl/en/work/national-monument-kamp-amersfoort
139) https://tinker.nl/en/work/national-monument-kamp-amersfoor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5 소결

네 가지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메모리얼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의식과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며, 공간의 종합성과 복합성이 강화되었고, 건축 양식과 자연의 결합도 충분히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부한 공간 구성과 다양한 공간 표현방식은 다크투어리즘을 위한 더 좋은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장소의 온전함을 중시하며, 건축, 경관, 장치, 전시 등이 전체적으로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와 연관된다. 물, 빛 등 가상 요소의 설계가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소재와 구조에 대한 인식도 강화됐으며 동시에 공간의 체험 기능도 강조되었다. 변화된 관람경로 설정을 통해 관람자의 행위 또한 제한하였다.

건축과 환경 관계에서 메모리얼공간은 상징을 강조하면서 자연의 요소들을 건축공간과 연결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지형과 구조의 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환경과 연관시키고 빛 요소를 적용하여 시공간 차원을 증가시키고, 물 요소를 적용하여 기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공간 구성에서도 공간의 기능이 확장됐다. 다양한 공간 구성이 기념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정원, 공원 등 외부 환경의 디자인은 긴장감과 억압된 마음을 감정적인 관점에서 긴장과 우울을 해소한다. 갤러리, 행사 개최, 임시 전시 등을 통해 일상적인 도시 행사를 기념하는 것은 기념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공간의 특성표현에 있어서 동적 시공간은 중요한 설계원칙이 되고, 많은 건축 요소를 다루고, 이들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시각화와 가상화의 결합한 형태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여기에 종교나 역사 상징의 광범위한 사용은 전시회에 많은 문화적 의미를 제공했다. 또한 사례에서 볼 때, 새로운 기술들도 기념공간에 보다 풍부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몇 세대가 지나고 기억이 사라졌을 때도 관람자와 시민들은 이곳에서 체험하고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새로운 방식으로 진입하여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공간이 되고 있다.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 모두 이런 공간에서 자신의 정신적 안식처를 찾을 수 있으며, 미래의 도시 발전에서 풍부한 체험 콘텐츠가 포함된 정신적 공간은 도시 발전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 선행연구 검토

3.3.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기념하는 현상학적 인지평가 연구에 관한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각 키워드의 연관성,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모형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1) 메모리얼공간의 선행연구

기념에 관한 연구는 공간, 시설, 예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건축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에서 기념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표 3-14〉.

[표 3-14] 메모리얼공간의 선행연구 정리

논문 방향	연구자 (년도)	연구 제목	출처
메모리얼 공간	박건탁 외 (2021)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의 외부공간구성 특성 분석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o.73
	장민지 (2021)	기념관건축의 전이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우 (2020)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근 외 (2019)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2
	윤선영 (2015)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911 기념관의 전이공간 비교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o.49
	왕월도 (2014)	주체의식 차원에서의 기념건축물 창작방법 구축 연구	하얼빈 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우대성 (2006)	도시 기념적 건축의 건립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메모리얼 공간의 기억과 표현	배세연 (2021)	포스트메모리세대의 다크투어리즘을 위한 메모리얼공간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정윤 (2019)	메모리얼 뮤지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현애 (2018)	5·18 기념공간의 변화와 활용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희정 (2018)	메모리얼에서 집단기억 특성과 공간 연출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홍민 (2018)	다감각적 건축공간을 적용한 세월호 추모공간 계획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희정 외 (2017)	기념공간에서의 집단기억특성과 공간연출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4
메모리얼 공간의 치유 기능	윤여희 (2018)	치유환경에 있어서 추모공간의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열 (2016)	전쟁참사 기념건축의 감정표현 디자인 연구	북경건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지연 (2013)	회복력 있는 도시: 트라우마를다루는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악내화 (2011)	지각현상학에 기초한 기념 공간장 설계 연구	하얼빈 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해서 메모리얼공간을 이해한다면,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메모리얼공간의 기억과 표현, 메모리얼공간의 치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메모리얼공간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우대성(2006), 왕월도(王月涛, 2014), 윤선영(2015), 김희근 외(2019), 김지우(2020), 장민지(2021), 박건탁 외(2021)이 있다. 우대성(2006)은 차별화된 건축과정이 기념적 건축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재된 브랜드 가치를 부여한다고 봤다. 현대에 요구하는 기념적 건축은 모양이나 크기(부피, 높이) 등의 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행동 발생의 핵심으로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왕월도(2014)는 기념적 건축을 건축하는 방법과 규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집단정신이 미치는 각 의식적 차원의 의식활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의식 차원의 구분근거를 설명하고, 각 의식 차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주체 의식 차원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윤선영(2015)은 기념관의 목적이 희생자나 사고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기본가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념관은 사회교육과 공중의식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연결공간은 서로 다른 두 공간 사이의 연결부분으로 정의되는데, 연결공간이 없는 박물관(기념관)은 체험이 부족하다. 김희근 외(2019)는 학살 기념관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곳으로, 매년 수천만 명의 관람자에게 학살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전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건축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관람 속에서 체험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관람자들이 간접적으로 시대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우(2020)는 사회 속에서 메모리얼공간의 물리적 특징과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민족적 권위주의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던 자기 확인의 기념비가 퇴락한 것이다. 현대는 애도와 슬픔, 기념, 성찰, 치유와 동정 등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궁극적인 역할은 기억 자체를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류와 기념을 통해 오늘날의 가치관을 강화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기념관의 후속 디자인은 개별 관람객의 정서체험 등 다양한 체험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민지(2021)는 기념물의 인식과 취미가 문화적 성숙에 기반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념관의 역할은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유물 및 기념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사회교육과 외부 의견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박건탁 외(2021)는 기념관의 외부공간을 연구한 결과, 외부공간 중 가장 큰 층위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메모리얼공간은 상징적인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어야 하며, 또한 기념관에 편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외부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둘째, 메모리얼공간의 기억과 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메모리얼공간의 기억특성에 따라 기억의 관점에서 표현요소를 연구하고, 메모리얼공간의 특징을 연구한다. 서희정 외(2017)는 메모리얼공간의 기억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집단기억의 매체로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미래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집단기억특징과 메모리얼공간 표현요소의 관계를 고찰하여 집단기억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요소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현애(2018)는 메모리얼공간이 단순한 형식적이고 예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를 창작한 주체의 기억과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국가 공식 기억과 국민의 억압된 기억이 형식화되는 과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기억은 검증된 집단기억으로 표현돼 기념공간에 투영된다. 통일시대를 맞아 소통과 화합, 통합과 관련된 기념 매체가 중요해지고 있다. 서희정(2018)은 재건된 사건 공간 체험을 통해 기억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념관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기억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홍민(2018)은 기념관이 수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었던 날은 이제 지나갔다고 봤다. 관람자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념관 정보를 얻는 시대이다. 다 감각적 기술은 시각뿐만 아니라 다 감각적 체험과 메모리얼공간 체험을 통해 일련의 기억을 기념하도록 유도한다. 조정윤(2019)은 다층적 기억의 유형 요소가 현대기념박물관에 등장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기념적 기념, 과도적 기념, 기호적 기념 등의 요소는 현재 기념박물관의 중요한 요소이며, 설립 당시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세연(2021)은 과거의 규범을 현대에 전달하는 기억매체로 '형식적 문제'와 '세대 간 변화 문제'를 꼽았다. 기념관의 '공간적 특징'과 '체험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간의 감정과 정신적 치유 체험을 기념하는 선행연구이다. 악내화(岳乃华, 2011)는 현대 메모리얼공간이 관람자 스스로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체험을 제공한다고 봤다. 메모리얼공간은 신체와 동작, 장소와 시간의 감각으로 사람과 호흡하며 기억, 애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한다. 우지연(2013)은 역사 사회학자들이 역사적 사건의 참뜻을 꾸준히 전달하는 트라우마 재현 시각,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트라우마 치유 시각과 디자이너가 가진 형식과 기호적 시각 사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디자인 콘텐츠는 도시의 트라우마 아물기를 돕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정서적·기념적 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상열(李爽悦, 2016)는 외상 재활의 3단계를 연구하여 트라우마에 담긴 요소와 메모리얼공간을 분석하여 그 시기의 감성체험과 치유의 특징을 알아냈다. 누구나 동정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메모리얼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윤여희(2018)는 생사의 의미가 공존하는 기념하는 곳에서 생명을 반영하는 사색공간이 치유의 힘을 갖는다고 봤다.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존의 아물거림 요소에 관한 연구를 통해 메모리얼공간에 적합한 친생물적 디자인 속성과 패턴 요소를 도출하였다. 추모하는 장소로서 인위적으로 이런 요소를 갖춘 메모리얼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자의 연구 성과와 함께 현대 메모리얼공간을 전통적인 메모리얼공간과 차별성을 갖는 공간으로 보고 메모리얼공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기념의 주제, 형식, 체험방식, 기능적 역할 등이 초기에 비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감정적 및 정신적 기능이 중요한 방향이 되어 전체적인 공간의 다차원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연결, 입구, 추모 등 감정적 공간의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체와 감각이 공간디자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관한 선행연구

21세기 다크투어리즘은 새로운 관광 방식이 되었다. 앞선 연구에서는 정책, 문화, 역사, 자연유산 보호 등 다양한 차원의 내용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연구로, 사람의 행동 의도와 다크투어리즘 공간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그러므로 앞선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표 3-15〉.

[표 3-15]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논문 방향	연구자 (년도)	연구 제목	출처
다크투어리즘의 방문동기와 행동의도	김해리 (2021)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체험에 따른 감정적 애착 및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보루카 (2018)	DMZ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경험 분석 : 방문동기, 감정, 편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준우선 (2018)	전쟁관(views of war)이 다크투어리즘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DMZ 방문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세명 (2017)	서대문형무소 방문객의 동기유형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트리아나 외(2017)	다크투어리즘 관광자의 감정반응 포지셔닝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왕길 (2017)	다크투어리즘 목적지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제약요인이 브랜드자산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중 기념관의 비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상현 (2017)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관광객의 선택속성과 방문동기가 관광지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 UN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하나 (2014)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스토리텔링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어두운 여행과 관련된 공간	김보현 (2021)	다크투어리즘 스펙트럼 분류표 분석에 의한 전시공간 연출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새빛 (2021)	건축적 장치와 시퀀스를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전시관 건축방안 : 서대문형무소 부지 내 체험전시계획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세연 (2021)	포스트메모리세대의 다크투어리즘을 위한 메모리얼공간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현영 (2020)	다크투어리즘 공간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상징적 표현 특성 연구 : 칼 구스타프 융의 원형 이론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가은 (2019)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천주교순교자기념관의 전시스토리텔링 기획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첫째, 다크투어리즘의 방문 동기와 행동 의도에 대한 연구는 김한나(2014), 정세명(2017), 트리아나(2017), 왕길(2017), 박상현(2017), 서보루카(2018), 준우선(2018), 김해리(2021)가 있다. 김하나(2014)는 과거의 죽음과 재난, 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밀접한 장소나 사건을 찾는 다크투어리즘이 새로운 관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서사적 요소는 다크투어리즘 방문 동기와 행동 의도에서 뚜렷한 매게 역할을 한다. 정세명(2017)은 현대인들이 관람을 단순한 관람과 즐거움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교훈을 얻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트리아나 외(2017)는 체험 중심의 전시 매체를 도입해 관람자들이 전시자료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관람자들에게 비참한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환경, 체험을 매체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왕길(2017)은 다크투어리즘에서 감정적 공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관람자들이 감정에 젖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죽음과 학살 등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집중된 만큼 무리한 콘텐츠와 과도한 상업화 개발은 피해야 한다. 박상현(2017)은 다크투어리즘이 개인의 욕망과 목표를 뛰어넘는 관광으로 최근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봤다. 다크투어리즘은 역사를 존중하고 깊이 되돌아보는 기억을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보는 데 집중한다. 서보루카(2018)는 집단의 차이로 다크투어리즘과 정서적 획득에 대한 체험, 완화와 사회적 유대 개선의 욕구가 다르다고 봤다. 준우선(2018)는 다크투어리즘을 둘러보는 데 관람자의 전쟁에 대한 이해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관람자의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칙은 전쟁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그들의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매체 역할을 한다고 봤다. 김해리(2021)는 다크투어리즘 체험은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다크투어리즘으로서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람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독특하거나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둘째, 다크투어리즘 관련 공간연구에서 박가은(2019)은 다크투어리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크투어리즘으로서의 열사기념관의 특징을 밝혔다. 또한, 전시 스토리텔링 이론에 대한 탐구를 통해 몰입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텔링 이론과 전시 스토리텔링 기획에 대해 고민하였다. 박현영(2020)은 다크투어리즘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 표현방식과 특징이 공간을 통해 전달된다고 봤다. 따라서 개념공간 해석에는 정신분석적 방법이 필요하다. 원형의 개념(원형은 일종의 정신분석방법론)을 통해 다크투어리즘 공간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다크투어리즘 공간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김보현(2021)은 적절한 현실적 균형과 상징적 표현으로 공간을 구축하여 관람자들에게 효율적인 체험을 제공했다고 봤다. 무조건 스펙트럼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무효이며, 전시 공간의 특성에 맞게 스펙트럼 강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신새빛(2021)은 다크투어리즘의 추상적 요소들이 장치, 서열, 공간의 사용을 통해 어떻게 건축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크투어리즘의 건축 방법을 탐구했다. 배세연(2021)은 기념관도 다크투어리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재료와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제공한다고 봤다.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결합하여, 사회의 변천, 사람의 욕구의 변화로 인해, 다크투어리즘은 이미 전 세계의 새로운 여행 방식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개인의 욕구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행의 행동과 동기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꼼꼼한 기획은 더 나은 여행 경험을 만들고, 전시, 휴식, 교육 등 수요를 새롭게 요구한다. 단순한 마케팅과 과도한 공간개발이 공간의 경험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메모리얼공간은 이러한 형태에서 기본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더욱 풍부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 체험을 제공하여 다크투어리즘의 재방문율을 높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현상학과 공간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 공간연구는 구조, 조형, 소재, 색채 등 실체 분야에 집중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감정, 정신, 감각, 문화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현상학에 기댄 공간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의 현상학적 공간연구를 다음과 정리한다 〈표 3-16〉.

[표 3-16]현상학과 공간에 관련 선행연구 정리

논문 방향	연구자 (년도)	연구 제목	출처
현상학과 공간	원예진 (2021)	고유한 신체의 경험을 통한 애도 공간 특성 연구 :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배현 (2020)	기념 건축공간의 장소정신 조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예진 외 (2020)	고유한 신체의 경험을 통한 애도 공간 특성 연구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8
	이채원 외 (2020)	복합문화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특성 분석 : M.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vol.23, no.3
	이진경 (2019)	현대 기독교 건축공간에 나타난 비례 질서와 빛 현상의 시지각 관계에 관한 연구 : 르 코르뷔지에, 돔 한스 반 데어 란, 알도 반 아이크 프로젝트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형형칠 (2018)	몸의 지각론에 의한 국내 건축도시 재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동희 (2018)	전통건축 공간의 지각현상학적 오감체계 특성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광용 (2017)	현대 건축공간에 나타난 빛의 현상학적 지각과 공간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공간현상학에 관한 연구는 고광용(2017), 형칠(2018), 신동희(2018), 이진경(2019), 이채원 외(2020), 장배현(张培显, 2020), 원예진 외(2021)가 있다. 고광용(2017)은 신체의 개입은 시각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분의 감각을 통한 공간체험을 의미한다고 봤다. 현대 건축 공간에서 단순히 빛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개입을 통해 빛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형형칠(2018)은 다양한 신체감지 시스템의 체험이 도시계획 패러다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과거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흔적을 통해 재현된 도시 공간은 일반 공간보다 훨씬 더 침략적인 신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도시 혁신 프로젝트에 적용하자는 현상학적 개념이 제시되었다. 신동희(2018)는 건축공간이 인간의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공간적 분위기와 관람자의 정서를 변화시켜 공간적 분위기에 활력을 주고 현상학 공간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지각 시스템에서 오감(五感)의 특징인 공간지각이 인간과 공간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이진경(2019)은 기독교 건축에서 공간의 비례와 빛 현상은 종교의 본질과 신적인 체험을 추구한다고 봤다. 공간의 형태와 빛은 시각적 감각으로 구현되며, 빛은 공간의 건축형식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채원 외(2020)는 인간은 복잡한 문화공간의 내적인 의미와 기능적 특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한다고 봤다. 인간의 감정개선과 문화예술콘텐츠 발전을 위한 현상학적 및 복합적인 문화공간 확장이 필요하다. 원예진(2020)은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독특한 신체체험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애도이론과 결합하여 생존자들이 철저하게 애도하고 슬픔을 극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봤다. 장배현(张培显, 2020)는 메모리얼공간의 특징과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기념물을 신체와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가 신체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봤다. 원예진 외(2021)는 메를로 퐁티의 신체체험 중심의 현상에 기반을 두었다고 봤다. 이런 애도의 공간은 자신과 무관한 것을 애도하고, 인간의 역사가 주는 교훈과 성찰을 육체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결합하여 공간의 감정과 체험이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상학은 장소 정신, 신체감지, 행동, 시간 등에서 공간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 왔다. 현재 현상학적 연구는 더욱 세부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빛 환경의 조성, 시간과 운동, 재료와 감촉은 눈의 주도적인 위치를 깨뜨리고, 몸을 공간에 두고 사고한다. 감각적 교차로 전체적인 공간 감각을 이루며 공간의 기억을 더하고, 정신적으로 공간을 마주하며 승화시킨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2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메모리얼공간의 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공간기능의 확대를 모색하고, 메모리얼공간의 정서적 체험과 정신치료의 표현적 특징에 대한 연구로 발전한다. 메모리얼공간의 매체 기능은 주로 감지와 행위체험과정에서 나타내며,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묘사는 기존 연구자마다 비슷했지만 특징과 구성의 정의는 차이가 있었다. 메모리얼공간체험의 한 가지 트렌드로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공간의 표현적 특징보다는 교육방식, 홍보수단 차원에서 공간이 동기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감각과 체험의 중요한 연구방향으로서 공간인지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물질요소와 비물질요소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탐구했으나, 향후 감정과 경험을 주체로 하는 공간평가와 방안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에서 주목됐다. 본 연구는 고광용(2017), 이정(2018)의 견해에 동의한다. 기술의 혁신으로 공간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술 재창출은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며, 기술 편향이 메모리얼공간으로 가져오는 문화적 결과물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수정하고 변혁할 필요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신체 실천을 주체로 한 디자인 트렌드는 여전히 메모리얼공간 연구의 주요 내용이며, 현실공간과 가상기념의 유기적인 연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인간 메모리얼공간으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공존, 보완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앞으로의 연구 추세를 종합해 보면 현상학의 건축 분야 연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신체감각, 시각체험, 체험적 부분과 구조 등의 연구에서 현상학적 그림자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상학이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적용하는 종합적이고 정체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현상학적 공간인지 방법을 메모리얼공간에 적용했으며, 현상학적 인지요소를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고 다크투어리즘을 하는 관람자에게 다차원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메모리얼공간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치유적 공간이 지속적인 관심 속에 메모리얼공간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트랜드, 기능의 정리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로 메모리얼공간의 특성을 분류하여 연구함으로써 현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2) 세계적으로 다크투어리즘이 성행하는 추세 속에서 메모리얼공간을 다크투어리즘의 장소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도시의 발전 수요에 대응하여 현대적 메모리얼공간이 도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체험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강화하는 다크투어리즘 테마공간으로서 메모리얼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크투어리즘을 공간체험의 시각으로 재정의하여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의 본질적 이의를 명확히 하였다.

(3) 현상학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론과 실천의 계승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실천사례를 통해 현상학적 공간적 관점과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현상학 이론적 관점을 실천적 관점과 결합함으로써 완전한 현상학의 공간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감지와 행동, 전반적인 체험에 집중하는 감정 관련 공간 설계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4)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현상학적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체험과 감지를 강화하는 공간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미래 메모리얼공간 신축과 재건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메모리얼공간의 평가지표 구축

4.1 메모리얼공간평가의 선행연구

4.2 평가항목 선정

4.3 평가 예비지표 검증

4.4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4.5 소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메모리얼공간의 평가지표 구축

현재는 메모리얼공간 평가의 방식을 환경, 녹지율, 기능 구역 배치, 장소 시설, 전시, 사회봉사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이념도 목표, 수단, 재료, 형식을 건축으로 하는 논리가 많아 건축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체험이 소홀했다.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역사적 기억과 정신을 기념하는 장소로서, 사건의 의식장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의 애도와 도시 일상의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간 분위기 조성과 이를 기념하는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

제2장에서는 건축현상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축현상학의 이론적 요점과 공간을 생각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 기능 위주였던 모더니즘과 달리 공간의 사고에 대한 현상학적 사색은 공간의 역사성과 감수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체험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건축현상학의 관점이 메모리얼공간의 체험 특성 표현과 연관되어 있음을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현상학에 대한 관계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본 장에서는 공간현상학적 인지평가를 기념하는 평가요소를 요약과 평가지표로 설명한다. 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기념하는 현상학적 평가함수를 개발해 후속 사례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4.1 메모리얼공간평가의 선행연구

메모리얼공간의 개념과 형식적 특징은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지만 메모리얼공간의 평가방법은 기존 박물관의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전시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김주연(2002)의 연구는 전시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종 전시 완성까지 전시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다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부터 박물관까지의 전시평가는 크게 선행평가, 형성평가, 최종평가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완성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다만 전시평가로는 가늠할 수 없는 개인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리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전시평가가 전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완전하고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봤다.

공간적 부분요소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이지선(2015)은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감성의 개념과 감성평가방법을 정리하고 감성평가법의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실행 가능한 감성어휘 평가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18쌍의 감성평가 어휘가 있으며 평가항목은 콘크리트 면 층 공간의 일반적 감성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된 평가대상으로 면 층 요소를 변인설정의 평가도구로 하여 시행하는 감성평가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내용상 본 논문은 연구의 일부분이다. 메모리얼공간은 일반공간과 달리 기호적 은유적 특징이 강하다. 표면적으로 연구는 기념의 의도를 깊이 파고들어 메모리얼공간 디자인의 요점을 찾아내지 못한다.

종합 요소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사금(謝錦, 2015)은 기념적 정원 경관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남경 중심지역의 12개 전형적인 기념 정원 경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기념적인 정원 경관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를 이론 연구와 현지조사 연구를 통해 정리하여 구성요소, 공간구조, 공간형태, 환경요소, 조화공생 등 5가지로 나뉘었다. 남경 중심지역의 전형적인 기념적 정원경관 종합평가체계 모형은 차원 분석법과 모호수학 평가법(AHP-Fuzzy)을 활용해 구축됐으며 구축된 평가모형을 활용해 남경 중심지역의 전형적인 기념적 정원 경관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남경시의 기념적 정원경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의견을 제출했으며 이 평가방식은 여러 구성요소별로 종합평가가 이뤄졌지만, 공간디자인의 사회성은 물론 관람자의 감각과 체험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관광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임방(2018)은 연구보고서, 기사, 박물관의 관련 법령 조례, 평가지표,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박물관의 이론적 고찰, 현황 및 관련 내용 고찰, 한국과 중국의 평가제도 등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박물관 평가제도가 관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광 차원에서 박물관 등급제를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관람자 서비스 품질과 전시 품질, 경영 체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으나 공간의 정서적 매체 역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간과한 채 공간과 관람자의 체험을 접목하지 못했다.

공간 서사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조시경(2018)은 모든 공간이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공간에서 서사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기획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간의 서사 구조를 잘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와 전달 방법을 찾고 공간의 기획과 출력이 구조적인 서사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분석하는 평가가 개발됐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취합한 결과 25개 서사 공간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서사구조 틀을 설계해 평가를 완성했다. 이 평가지표를 다양한 메모리얼공간에 적용할 수 없고, 일부에만 적용할 뿐 평가지표를 표준화하는 방안은 미흡했다.

전략과 관리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는 2016년 11월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박물관 평가·인증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운영 및 관리 평가를 통해 공공박물관의 운영을 확인하고 대중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이다.[140] 2017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영전략, 경영관리, 사업관리, 고객관리 등 4개 평가지표에 따라 전국 190개 공공박물관(등록 3년 이상 된 것)을 평가했다.[141]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월 전국 227개 공공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개선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데이터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설립 목적 달성', '조직·인력·시설·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공책임' 등 5가지 범주에서 이뤄진다.[142] 이 평가 방식은 주로 전략과 경영 관점에서 평가한다. 시설, 교육, 관리능력, 업적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시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관리자 시각의 내용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어 공간지각력과 공간체험성에 대한 관람자의 욕구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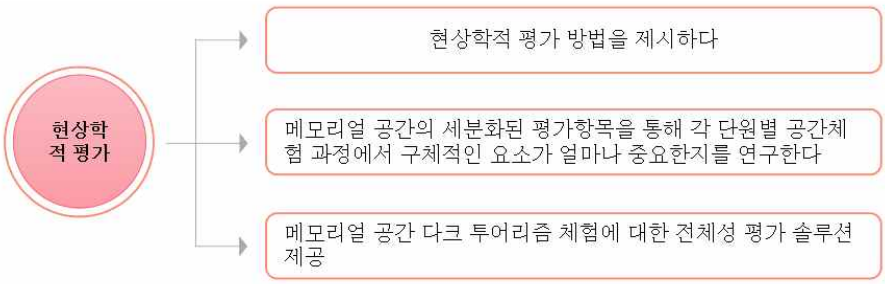
140) 출처: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141) 출처: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142) 출처: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 메모리얼공간평가의 선행연구

평가 방향	연구자 (년도)	평가방법
전략과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2019)	"설립 목적의 달성도"、"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공적 책임" 등 5가지 범주에 대해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경영전략, 경영관리, 사업관리, 고객관리 등 4개 평가 지표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지 3년 이상 된 공공 박물관을 평가하였다.
공간 서사	조시경 (2018)	다양한 평가요소를 취합한 결과 25개 서사공간의 설계을 바탕으로 평가요소를 도출했다.
관광	임방 (2018)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박물관 등급제 평가방법을 관광 차원에서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을 탐구했다.
종합 요소	사금 (2015)	남경 주요 도시에 있는 전형적인 기념비적 정원경관 종합평가시스템 모형은 차원분석법과 모호수학평가법(AHP-Fuzzy)을 활용해 구축됐다.
공간적 부분요소	이지선 (2015)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감성용어로 평가항목을 평가한다.
전시	김주연 (2002)	전시평가는 선행평가, 형성평가, 최종평가로 나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완성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앞선 연구는 본 평가의 연구기반을 제공했으며 전시디자인, 박물관디자인, 기념시설, 관련 정책법령 등의 조사를 통해 연구의 평가절차와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본 논문의 관점에 맞게 평가프로세스를 제시하면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 프로세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 평가항목 선정

평가함수 모형을 만들기 전에 평가 항목에 대한 수집과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현상학적 평가요소를 수집하여 예비평가항목의 요소지표를 추출한다. 둘째, 전문가 조사로 프로그램의 예비지표를 검증하고 분석(중요도 평가)한다. 셋째, 전문가 FGI로 세부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한다. 넷째, 최종 평가 항목을 도출한다.

4.2.1 예비평가항목 요소 추출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의 현상학적 평가는 건축현상학의 이론과 실천의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본 연구의 공간적 평가요소를 추출한다. 또한 메모리얼공간 연구의 중심은 공간 본체의 기본 기능에서 공간 체험과 감정 표현으로 옮겨갔다. 많은 관련 연구들이 건축, 경관, 시설 등 기본적인 기능요소로부터만 분류되어 연구되고, 체험자들의 체감에는 관심이 없으며, 메모리얼공간은 모델화의 산물이 되어 정서성과 장소성을 상실했다. 메모리얼공간 환경에 대한 사회발전이 요구하는 감정과 체험의 요구사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생리적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능적 완성도, 전시형식, 시각적 기호를 분류하는 연구만으로는 메모리얼공간 체험과 체계적인 연계가 어렵다. 또한 공간적 요소는 생리적과 심리적 내포가 겹쳐서 진정한 의미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적인 정체성 평가를 위해 건축현상학을 방법으로 하여 메모리얼공간의 본질과 기능을 결합하였다. 현상학 연구에서 장소적, 정신적, 신체적 감지의 물질적과 비물질적 요소를 통해 메모리얼공간을 묘사하고, 신체적 감지와 행동 체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모리얼공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소 추출에는 먼저 노르베르크 슐츠의 건축현상학을 정리하여 '존재 공간과 건축공간', '장소정신과 건축의 의미' 두 가지 연구에서 현상학적 요소를 정리한다. 그리고 앞선 현상학 실천자인 유하니 팔라스마, 스티븐 홀, 피터 줌터 그리고 건축현상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중요 연구자인 로버트 매카터(Robert McCarter), 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르 폰마이스(Pierre von Meiss)를 통해서 다섯 명의 연구자들의 중요한 관점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명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 24가지 주요 공간 요소로 요약한다.

(1) 건축현상학 이론적 측면의 요소 추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르베르크 슐츠는 〈건축의향〉, 〈존재·공간·건축〉, 〈서양건축의 의미〉, 〈장소정신: 건축의 현상으로〉, 〈건축의 의미〉와 〈건축: 존재, 언어, 장소〉 등을 저술했다. 건축현상학에 대한 기본 관점을 종합해 보면 '존재공간'과 '장소'라는 두 가지 기초 개념이 드러난다. 핵심 사상은 하이데거에서 직접 유래했으며, '공간'에 관한 하이데거의 전후기 사상을 결합시켜 건축현상학의 출발점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143]존재 공간과 건축공간의 측면에서 노르베르크 슐츠는 존재 공간과 건축공간 사이에 구조적인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포함하였다. (1) 장소와 노드(Node), (2) 노선과 축선, (3) 영역과 지역이다. 건축공간은 크게 경관, 도시, 주택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경관 단계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 이미지를 결합하여 경관 형태를 변형시키는 지속적인 탐색을 해 왔다. 도시 단계는 지역, 노선, 노드 등의 개념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주택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그 본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내부 공간을 이룬다.[144] '존재공간'과 '건축공간'에 관한 노르베르크 슐츠의 연구는 그의 건축현상학의 전체 이론적 틀과 해석 방법을 구성했다.

장소정신과 건축의 의의 측면에서 노르베르크 슐츠는 건축현상을 환경현상의 반영으로 보았으며 그 중 환경현상은 자연환경, 인공환경, 장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그는 자연환경 현상에 대한 인식이 '자연 요소의 체량, 질서, 특징, 빛, 시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봤으며 인공환경에서 현상이 주는 의미는 현상(Visualization)과 보완(Complementation), 상징(Symbolization) 세 가지 측면을 통해 형성된다.

143) 정태용.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5,no.6, 2016, pp.92-93.
144) 등파, 나려, 양녕. "노르베르그 슐츠의 건축현상 학설평". 과학기술과 변증법, vol.26,no.2, 2009, p.5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를 바탕으로 노르베르크 슐츠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만들어 장소정신의 개념을 제시했다.[145] 그는 장소가 이러한 전체로서 물질적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공간적 특징보다 장소정신이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봤으며 건축의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의미 있는 이른바 장소 정신을 얻을 수 있느냐가 건축 작품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표4-2] 건축현상학 이론적 측면의 요소 추출

존재 공간과 건축공간			장소정신과 건축의 의미				
장소와 노드	노선과 축선	영역과 지역	자연환경 현상				
구분 단계			체량	질서	특징	빛	시간
경관 단계	도시 단계	주택 단계	인공환경 현상				
연결성	지역, 노선, 노드	폐쇄성과 근접성		현상	보완	상징	

요소의 추출

연결성	폐합성	접근성	체량	질서	특징	빛	시간
노드	지역	노선	현상	보완	상징		

(2) 건축현상학 실천적 측면의 요소 추출

건축현상학의 실천은 건축현상학을 연구하여 공간 평가에 활용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실천적 관점에서 요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더욱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 앞선 내용에서는 유하니 팔라스마, 스티븐 홀, 피터 줌터 등 세 가지 주요 현상학 연구자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유하니 팔라스마의 공간요소는 주로 연속적인 선, 호선, 구멍, 물질, 촉각, 접합, 빛, 세부, 경관, 구조, 기둥, 계단이 있다. 스티븐 홀의 공간요소는 얽힌 체험, 투시 공간(불완전한 지각),

145) 전민주, 김연정. "장소의 형성 요인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성 연구 : C. N. Schulz의 장소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no.1, 2018, p.11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색채, 빛과 그림자, 밤의 공간성, 길게 이어진 시간과 지각, 물, 소리, 세부가 있다. 피터 줌터의 공간요소는 주로 건축 본체, 자재 호환성, 공간의 소리, 공간의 온도, 주변의 물건, 진정과 유도 사이, 실내외의 장력, 밀접 정도, 만물의 빛, 주변 환경의 건축, 결합 일치, 미의 형식이다.

또한 로버트 매카트와 유하니 팔라스마가 공저한 〈인지건축〉도 있다. 책은 공간, 빛, 지경과 장소 등 건축과 밀접한 12가지 주제를 틀로 잡아,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해 현상학에 기반한 공간적 사고를 설명했으며 공간요소로는 공간, 시간, 물질, 중력, 빛, 정적, 거소, 방, 의식, 기억, 지경, 장소가 있다.

피에 폰메스의 〈건축의 요소〉는 한 서유럽 건축가의 시각으로 쓰였다. '완형심리학' '현상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 형식, 장소, 구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공간지각성과 관념적 사고를 도출했다. 〈건축의 요소〉의 주요 공간 요소로는 감지 현상, 질서와 비질서, 도량과 평형, 결과 사물, 공간, 빛과 그림자, 장소, 형식과 재료, 중력미학, 신체와 복면이 있다.

위의 관점은 건축가가 오랜 기간 실천해 온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현상학적 건축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건축가들은 신체감지, 행동체험, 장소와 환경관계, 세부처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건축현상학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건축사별로 다른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현상학적 관심의 감지, 체험의 내용에서는 일치성이 있으며, 〈표4-3〉은 이러한 건축가들의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 건축현상학 실천적 측면의 요소 추출

연구자/출처	요소					
유하니 팔라스마/ 〈감각적 미니멀리즘〉	연속적인 선	호선	구멍	촉각	접합	빛
	세부	경관	기둥	계단		
스티븐 홀/ 〈건축의 현상학〉	얽힌 체험	투시 공간	색채	빛과 그림자	밤의 공간성	시간과 지각
	물	소리	세부			
피터 줌터/ 〈분위기〉	건축 본체	자재 호환성	공간의 소리	공간의 온도	주변의 물건	진정과 유도 사이
	실내외의 장력	밀접 정도	만물의 빛	주변 환경의 건축	결합 일치	미의 형식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버트 매카트와 유하니 팔라스마/ 〈인지건축〉	공간	시간	물질	중력	빛	정적
	거소	방	의식	기억	지경	장소
피에 폰메스/ 〈건축의 요소〉	감지 현상	질서와 비질서	도량과 평형	결과 사물	공간	빛과 그림자
	장소	형식과 재료	중력미학	신체와 복면		

(3) 건축현상학적 요소의 정리

앞선 건축현상학적 이론과 실천의 요소들을 정리했고 본 절에서는 앞선 요소들을 정리하여 총 24가지 세부요소를 도출했다,〈표4-4〉.

표의 일부 요소는 합병 또는 분해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열두 가지 주제 중 물질적 요소들은 둘러싸인 관계, 재료효과, 온도로 분해되었고 구조와 기둥은 구조와 배치로 통합되면서 현상 구역의 빛과 그림자, 밤의 공간적 요소가 합쳐져 빛으로 바뀐다. 분위기 12요소 중 건축 본체 요소가 둘러싸인 관계, 재료효과로 분해되었었고 건축의 요소 중 감지 현상은 행동 유도, 촉각, 소리, 시각 관계로 분해된다. 장소요소는 전체감각, 경관(지경), 구조와 배치(경로)로 구분된다. 공간적 요소는 구조와 배치, 내외관계로 나뉜다. 또한 재료효과과 촉각 두 요소 표현의 의미가 유사하고 촉각이라는 단어에는 재료에 대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촉각을 통합하여 사용한다.

[표 4-4] 건축현상학적 요소 추출

순번	요소	실천적					이론적	빈도수
		유하니 팔라스마	스티븐 홀	피터 줌터	로버트 매카트, 유하니 팔라스마	피에 폰메스	노르베르크 슐츠	
1	전체감각		●	●	●	●	●	5
2	질서성	●		●	●	●	●	5
3	체량					●	●	2
4	행동 유도	●		●		●		3
5	허실관계	●						1
6	색채		●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둘러싸인 관계	●		●	●	●	●	5
8	온도	●		●	●			3
9	촉각	●				●		2
10	연결성	●		●		●	●	4
11	빛	●	●	●	●	●	●	6
12	세부	●	●					2
13	경관	●		●	●	●	●	5
14	소리		●	●		●		3
15	물		●					1
16	구조와 배치	●				●		2
17	교통관계	●					●	2
18	지속적인 체험		●				●	2
19	시각 관계		●			●	●	3
20	물건			●		●		2
21	내외관계			●		●		2
22	밀접 정도			●	●		●	3
23	사회문화				●			1
24	상징성				●	●	●	3

(4) 메모리얼공간에서의 현상학적 요소의 응용분석

앞선 내용의 현상학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 건축현상학은 사람의 감각체험 및 공간 그리고 환경의 관계를 잣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공간 조성 및 체험이 정신적과 정서적 체험 욕구를 충족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측정기준은 공간전반에 대한 배치, 역사문화, 건축환경과 신체감각체험 등 다방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각 유형별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기 쉽도록 앞선 내용을 통해 정리된 24가지 요소들을 분류한다. 선행연구에서 장현주 외(2016)는 건축과 환경의 관계와 다 감각 융합 감성 사고라는 두 현상학적 공간의 특징에 따른 공간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강재중(2015)은 현상학적 공간연구에서 공간을 지각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신체감각과 신체움직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건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현주 외(2016)의 분류방식은 실존주의현상학과 지각의 현상학의 공간적 관점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봤다. 즉 공간과 환경의 관계를 전체로 보고 자연과 인문환경이 공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신체체험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개인의 신체체험이 공간인지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앞 내용에서 정리하는 요소들을 공간환경의 영향과 신체체험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후속 연구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용이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요소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공간환경 영향은 공간환경과 사회문화 관계에 대한 사고로서 환경요소, 전체요소, 사회요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체험은 체험자가 공간체험 과정에서 느끼는 감지와 활동에 관한 생각으로, 해당 요소를 감지요소, 조형요소, 구조요소 세 가지 세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표 4-5〉. 다음은 여섯 가지 세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표4-5]건축현상학적요소분류

분류 표준		요소 분류	24가지 추출요소				
신체체험	신체감각	감지요소	온도	촉각	소리	시각관계	색채
	신체움직임	조형요소	체량	행동유도	밀착도	질서성	
			허실관계	연결성	세부		
		구조요소	둘러싸인 관계	구조와 배치	교통관계	내외관계	
공간환경의 영향	공간환경과 사회문화 관계	환경요소	빛	경관	물	물건	
		전체요소	전체감각	지속적인 체험			
		사회요소	사회문화	상징성			

①감지요소

신체는 주변을 감지하고 체험하는 매체를 하며 각 부분이 이를 감지하고 체험하는 도구이다. 시각이 우선이고, 시각 외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지각 시스템이 있다. 이들 지각 시스템은 건축환경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탐색하며, 연계를 통해 상호 촉발하고 실증함으로써 풍부하고 포괄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현상학적 건축의 실천에 있어서 유하니 팔라스마의 〈피부의 눈-건축과 감각〉은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 시스템 및 신체감각에 대해 실천적 관점에서 공간과 관련되어 많이 저술 하였다 〈표 4-6〉.

관람자들은 메모리얼공간 체험과정에서 외부 환경정보를 지각 시스템을 통해 전달받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지각 시스템의 감지에 주목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어떤 요소가 감지를 촉발시키는 자극과 민감한 부분을 쉽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각과정에서의 체험이 위 다섯 가지로 뚜렷이 분해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사람의 체험이 서로 교차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표 4-6] 감각 시스템과 건축의 관계

감각	영향	감각기관	내용
시각	촉각은 시각에 영향을 줌	눈	시각에 우선권이 있지만 시각의 관찰도 촉각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가 많음
청각	소리는 공간적 친밀감에 영향을 줌	귀	소리는 내적인 경험을 만듦 소리는 우리가 공간과의 친근함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함
촉각	오감이 촉감을 자극할 수 있음	피부, 기관	피부는 물질의 결, 무게, 밀도와 온도를 느끼게 함 촉각은 우리를 시간과 전통으로 연결함
후각	냄새 영향 추억	코	콧구멍은 냄새를 통해 과거에 망각했던 화면을 불러일으킴 코는 냄새를 통해 눈으로 사물을 찾게 됨
미각	촉각과 색채는 미각을 자극함	혀	특정한 색채, 정교한 디테일은 입안의 느낌을 불러일으킴
신체	주변 환경은 기억에 영향을 줌	근육과 뼈	신체는 알고 기억할 수 있음 건축의 의미는 신체와 감각 속의 오래된 울림과 반응에서 비롯됨

②조형요소

공간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이해하며, 체험하는 운반체이다. 바로 공간의 체량, 허실관계, 세부, 질서관계 등 인체의 기능을 통한 다양한 지각으로 인해 다양한 감각이 형성된다. 이러한 조형요소의 적용은 관람체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관람객의 행동을 유도하며, 존재의 체험과 존재의 느낌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체험 자체를 강화시켜 준다.

실천에서도 건축가들은 조형요소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제시했다. 대니얼 리버스킨은 '공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은 공간은 몸과 마음, 감정과 이성, 기억과 상상을 다루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어딘가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어딘가에 있지 않다는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146] 스티븐

146) Daniel Libeskind. Breaking Ground: Adventures in Life and Architecture. Penguin Group(USA)Incorporated, 2004. P22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홀은 쑤저우 왕사원(苏州网师园) 건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멋진 디테일과 꼼꼼하게 다듬은 비율의 잣대, 정자마다 특색이 있고 건축은 그 안에 들어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메모리얼공간은 충돌하는 조형물, 높은 조형물, 상징적인 조형물 등으로 심리적인 느낌을 다르게 표현한다. 원형, 삼각형, 다각형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심리와 행동을 유도하여 세부처리, 허실 관계, 질서 관계, 연결성 등에 대한 장식적인 처리도 관람객의 감정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③구조요소

공간의 구조는 공간을 인식하는 기초가 되고, 관람자들이 그 구조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공간이다. 메를로 퐁티는 인간 주체 운동이 공간과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봤다. 메모리얼공간은 주체운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주체운동에서 건축은 일종의 시공관념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간은 시공간적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하며, 사람의 신체적인 운동 체험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연결한다. 공간의 둘러싸인구조, 구조배치관계, 교통관계 등은 체험과 인식을 통해 우리가 기념한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명상하며 기념감정이 마음속 깊이 무한히 이어진다.

메모리얼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간의 둘러싸인구조, 내외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구조요소이다. 둘러싸인 공간은 심리적으로 영역의식의 안정감, 열린 공간이 만들어내는 열린 시선과 느긋함을 주며 밀폐된 메모리얼공간에서 관람자들은 장소가 주는 체험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사람들의 신체 운동 체험에서 공간 노선의 구조 형식은 공간 배치의 기본 설계 패턴으로 공간 체험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기념적 공간의 노선구조 형태는 주로 체험자가 그 자리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 전체에서 유도하거나 주체의 능동성을 전체적으로 자극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기념공간 분위기의 렌더링함으로써 신체의 운동체험이 주체 관람자의 내면에 와닿는다.

기념적 공간에서 경로 공간에서의 바닥의 변주와 인터페이스의 기울기를 동적으로 감지하는 체험은 공간의 수직 방향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동시에 기념적 공간에서 운동하는 신체는 공간 객체와 사람 주체의 감지를 중첩과 교차하는 투시 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험으로 연결한다. 기념적 공간 속의 시각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신체가 공간에 대한 풍부한 체험이다. 신체의 운동과 시선의 효과적인 결합은 공간 속에서 시차효과를 만들어내며, 시차에서는 기념적 공간질서에 대한 체험이 실제 주체운동 지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다.

④환경요소

‘정박’을 통해 메모리얼공간의 건축환경을 장소에 배치한 후, 건축가는 ‘얽힌 체험’이라는 환경요소를 활용해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얽힌 체험’의 과정에서 건축가는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나타나는 위치 관계, 체량 관계를 잘 따져 경관이 장소의 분위기에 대한 정확한 조성을 보장해야 하며 식물, 수체, 조각, 석경, 건축, 경로 등에서 주로 달성한다.

빛, 물, 식물, 조각 등 환경적 요소가 물질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분위기를 핵심으로 하는 기념적 건축의 실체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物)’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존경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공간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물’도 구조와 표면이 양분된 순수 객체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유형’의 이중 지표 속에 놓인 ‘물’이 될 것이다. 메모리얼공간 디자인에는 빛, 물, 식물 등 자연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이 자주 적용되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한다. 주체적인 관람자에게 마음속의 깊은 지각의식을 심어줌으로써 표현하려는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⑤전체요소

공간의 소재, 세부, 색채, 조형, 채광 등은 사람의 모든 지각이 하나의 완전한 기억 시스템으로 통합된 독특한 체험이다. 개체의 기억에 침전된 이러한 체험은 다원적 표현의 경로를 거쳐 집단적 기억으로 이어지며 ‘초월적 체험’이 되는 ‘말할 수 없는’ 복합적 인식을 구성한다. 사람이 건축공간을 걸으면 주변이 서로 다른 형식, 기능별로 구현된 요소들로 구성돼 ‘얽힌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연속적인 감각과정으로, 사람이 공간행진을 하면서 그 주변에 공간들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과정으로 이를 통해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체험하게 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모리얼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정적인 상황조성과 동적인 구성 조직은 공간의 감각, 구조, 조형, 환경, 사회적 요소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얽힌 체험'의 공간 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일종의 이념적 지도이자 공간요소의 상호연계에 대한 반응이며, 동시에 의미의 주제와 생활 속의 활동내용을 준비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얽힌 체험은 관람자들에게 지속적인 감지를 받게 하고 공간에 대한 정서적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공간의 모든 노드(Node)의 조성은 주체적인 체험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부각되는 콘텐츠이다.

⑥사회요소

공간의 정신, 특색은 그 공간이 처한 환경과 사회적,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공간은 현지 풍습과 생활습관을 따르는 방식으로 일반적 생활을 구축한다. 노버슈츠의 말처럼 건축 설계는 '일상의 생활세계'를 원형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생활세계가 전부의 진실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공간과 생활세계 속 사람들의 관계는 주로 축거(築居)와 서거(栖居)로 표현되며 이 두 부류의 주거 방식은 어떤 체진관계로 표현된다. 축거(築居)는 '주둔하다', '여기 머물다'로, 사람이 '평평하다'는 생활에 어느 한 곳에 산다. 주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가 아니라 '사람이 대지에 존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일반 생물의 서식, '편안하게 살자'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거지를 보호하며 보장하는 의미이다. 서거는 만물과 함께하는 유주(留駐)로 존재의 의미를 깊이 드러낸다.

서거는 사람이 '재(在)'한다는 표현과 사람이 '재'한다는 본질적 특징을 통해 공간에 대한 깊은 체험을 얻는 것이다. 메모리얼공간은 서거의 사상이 잘 나타나며, 도시 일상의 생활공간으로서 고인의 영혼의 귀결, 생자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기탁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잊혀지지 않는 공간 체험은 시간과 공간, 물체가 모두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이러한 체험과 인지는 종종 시공간과 건축의 위치 변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한 기억체험을 구성하며 상징은 관람자와 건축의 거리를 좁히고 기억과 체험을 통해 공간의 통합적 인식을 완성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2 평가항목의 예비지표

제3장 메모리얼공간은 다크투어리즘 체험과 현상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방식의 선행연구 대비를 통해 관람자와 공간의 관계를 현상학적 시각으로 탐구하는 평가 방식을 명확히 했다. 현상학 이론과 실천 연구에서 공간적 요소를 추출한 후 공간적 요소를 종합해 여섯 가지 유형별로 정리하고 살펴봤다.

감지 측면에서는 온도(심리적 감수성), 촉각, 소리, 색채, 시각 관계는 신체에 의존하여 공간에 대한 기본감각을 형성하는데, 그중 촉각이 가장 풍부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눈에 보이는 물체까지도 원거리의 촉각감각(유하니 팔라스마)을 형성한다.

조형 측면에는 체량이 큰 건축, 구조물 비율 척도에서 인체와의 비교를 통한 복합적인 감수성이 주를 이룬다. 또한 행동유도는 구체적인 디자인 조형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유도로, 질서성은 공간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공간 도식적 사고이다. 인터페이스 허실관계, 연결성, 건축 세부는 공간장식 방법과 세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다.

구조적인 측면에는 에워싸는 방식마다 다른 기초 공간을 형성하며 공간구조 형식, 조직 관계, 내외 환경 관계의 서로 다른 '얽힌' 처리가 공간 체험을 형성한다.

환경 측면에는 경관구조물, 조각, 예술장치 등이 노드(Node)적 배치를 통해 연속적인 공간 체험의 토대를 이룬다. 빛, 물, 경관 산석 등 자연적 요소 도입으로 장소의 분위기를 살리고, 경관을 빌려 서정적인 목적을 가진다.

정체성 측면에는 전체적인 감각, 지속적인 체험의 두 가지 측면은 신체와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인지 체험이고, 전체적인 체험은 공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속적인 체험은 감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사회적 측면에는 스티븐 홀의 말대로 '건축마다 그 터전, 환경, 문화에서 발전해야 한다. 건축 현상과 직결된 독특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공간의 인식은 환경에 대한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문화가 만들어내는 의식행사, 장식기법, 생활방식 등이 공간과 시간의 연계를 이루고 공간의 상징도 역사 기억의 일부이며 체험자는 기호적 인식을 통해 역사를 회상하고 증명한다.

앞서 제시된 평가 예비지표는 관람객의 공간체험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평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절은 현상학적 공간평가의 예비지표 항목을 제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표 4-7〉과 같다.

[표 4-7] 메모리얼공간현상학적 평가의 예비지표 내용

요소	세부 지표 내용	중요도 평가 점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감지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의 시각적 요소들은 관람자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의 음향적 요소들은 체험 내용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그림과 영상 요소를 충분하게 사용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의 촉감적 체험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했는가?					
	관람자들은 전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체험만족도를 한 단계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에 적용된 색채는 추모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조형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지형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튀어나오지 않고 적당히 은폐되어 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여러 추모 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구조 및 조형물을 활용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의 외관은 은유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외관 디자인을 이용해 관람자의 동선 유도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유질서과 무질서한 조형 디자인을 통해 체험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					
	벽면의 조형 변화(편칭, 분할 등)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공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체험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테일 부분까지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벽, 천장, 바닥 간의 연결 부분은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벽면과 천장 디자인은 각각의 공간이 지닌 허(虛)와 실(實)의 특징 및 관계를 적절히 반영했는가?					
구조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및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가?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잇고 있는 관람자의 동선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메모리얼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빛을 활용한 요소가 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배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다양한 방식의 행위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바닥, 천장, 벽면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간에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부여했는가?					
	전이공간(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 부분)은 관람자의 효과적인 체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환경 요소	관람자가 신속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는가?					
	메모리얼공간의 외부 경관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경관도로의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감정을 이완시키는 휴식공간을 구비하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에 조성된 분위기는 추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전체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체험 방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가?					
	공간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서사가 지닌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에는 연속적인 감정체험노드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관람자들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요소	메모리얼공간은 일상적인 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기념과 애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는가?					
	정기적으로 사회 행사를 개최하는가?					
	직업과 연령에 따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해당 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심리 치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 평가 예비지표 검증

4.3.1 1차 중요도 조사 개요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현상학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전에 예비평가 항목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에 추출한 42개 현상학 예비지표 항목을 검증하고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자인(공공디자인, 실내디자인, 전시디자인, 시각디자인), 건축 및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다. 조사 방법은 대면 위주로 하였고 조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부 원거리 응답자와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전문가 대상으로는 온라인과 e메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업계 전문가와 석·박사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였으며 박물관, 기념관, 역사관 등 관련 전문가는 '기타'로 표시됐다. 중요도 조사는 리커트 5단계 척도로 측정한다. 응답자의 경험 강도에 따라 '매우 낮다' 1점, '낮다' 2점, '보통' 3점,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 순으로 나열했으며 해당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IBM Social Science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 분석으로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관련 분석, 그룹 간 평균값 분석을 포함한다. 조사내용과 응답자는 〈표 4-8〉, 〈표 4-9〉과 같다.

[표 4-8] 전문가 중요도 조사 개요

구분	설명
조사명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평가항목의 중요성 조사
대상자(모집단)	공간디자인 전공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응답자 수(표본)	100명
조사 방법	면접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이메일 수합
조사 기간	2022년 3월 18일 ~ 4월 1일(2주간)
통계분석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빈도(Frequencies), 상관(Correlations), 신뢰도(Reliabiability) 등을 수행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9] 응답자 현황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0	100.0
성별	남자	46	46.0
	여자	54	54.0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5.0
	전문가	55	55.0
전공	실내디자인	32	32.0
	전시디자인	9	9.0
	공공디자인	14	14.0
	시각디자인	16	16.0
	건축	9	9.0
	기타	20	20.0
경력	3년 미만	34	34.0
	3년~5년	13	13.0
	6~10년	12	12.0
	11~20년	28	28.0
	20년 이상	13	13.0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36.0
	석사	25	25.0
	박사 재학	18	18.0
	박사 수료	13	13.0
	박사	8	8.0

조사 응답자의 현황과 기본 특징을 보면 남성은 46%, 여성은 54%였으며, 전공 정도에 따라 예비전문가가 45%, 전문가가 55%였다. 전공에 따라 실내디자인 학과가 32%로 가장 많았고 시각디자인(16%), 공공디자인(14%), 건축과 전시디자인(9%), 기타 학과는 20%였다.

학력 데이터에 따라, '3년 미만' 34%, '3~5년' 13%, '61~0년' 12%, '11~20년' 28%, '20년 이상' 13%였다. 또한 전공에 따라 대학~석사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고, 석사 25%, 박사 재학 18%, 박사 수료 13%, 박사 8% 순이었다.

[표 4-10] 응답자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체험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00	100.0
당신은 평소에 메모리얼공간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가?	거의 없음	10	10.0
	주 1~2회	11	11.0
	주 3회~4회	0	0.0
	한 달 1~2회	21	21.0
	6개월 1~2회	58	58.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모리얼공간 견학 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상적인 체험	21	21
	관광	26	26
	기념행사	10	10
	특수교육	9	9
	예술체험	34	34

메모리얼공간 체험 데이터에 따라, '거의 없음' 10%, '주 1~2회' 11%, '주 3~4회' 0%, '월 1~2회' 21%, '6개월 1~2회' 58%를 차지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체험 메모리얼공간을 방문한 응답자는 전체의 33%에 달했다. 메모리얼공간 관람 체험목적은 예술체험이 34%로 가장 많았고 관광과 일상적인 체험 각각도 26%, 21%, 기념행사 10%, 특수교육 9%를 차지하였다.

[표 4-11]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요소	세부 지표	질문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감지 요소	시각적 요소의 유도	이 메모리얼공간의 시각적 요소들은 관람자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가?	7	0.751
	음향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 메모리얼공간의 음향적 요소들은 체험 내용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	이 메모리얼공간은 그림과 영상 요소를 충분하게 사용했는가?		
	재료 촉감의 체험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의 촉감적 체험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했는가?		
	정보 획득의 원활도	관람자들은 전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이 메모리얼공간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체험만족도를 한 단계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는가?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이 메모리얼공간에 적용된 색채는 추모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조형 요소	메모리얼공간의 은폐화 추세	이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지형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튀어나오지 않고 적당히 은폐되어 있는가?	9	0.870
	조형물의 독창성	이 메모리얼공간은 여러 추모 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구조 및 조형물을 활용했는가?		
	조형의 은유적 특징	이 메모리얼공간의 외관은 은유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외관 디자인의 유도	이 메모리얼공간은 외관 디자인을 이용해 관람자의 동선 유도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공간 질서유무	이 메모리얼공간은 유질서과 무질서한 조형 디자인을 통해 체험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벽면의 조형 변화(편칭, 분할 등)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공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는가?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이 메모리얼공간은 체험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테일 부분까지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형의 연결	벽, 천장, 바닥 간의 연결 부분은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공간 인터페이스 체험의 변화	벽면과 천장 디자인은 각각의 공간이 지닌 허(虛)와 실(實)의 특징 및 관계를 적절히 반영했는가?		
구조 요소	공간의 복합적인 기능	이 메모리얼공간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8	0.893
	사유공간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및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가?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잇고 있는 관람자의 동선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공간성과 시간성	이 메모리얼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빛을 활용한 요소가 있는가?		
	공간의 배치	이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배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다양한 행위 체험	다양한 방식의 행위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바닥, 천장, 벽면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간에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부여했는가?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전이공간(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 부분)은 관람자의 효과적인 체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환경 요소	공간의 몰입도 조성	관람자가 신속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7	0.859
	공간의 안정감	이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이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는가?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메모리얼공간의 외부 경관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환경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관도로의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감정을 이완시킴	감정을 이완시키는 휴식공간을 구비하는가?		
	조성된 분위기	이 메모리얼공간에 조성된 분위기는 추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전체 요소	각각 공간의 연관성	이 메모리얼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5	0.829
	다양한 체험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체험 방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가?		
	서사적 공간	공간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서사가 지닌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연속적인 공간 체험	이 메모리얼공간에는 연속적인 감정체험노드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관람자들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일상적인 체험	메모리얼공간은 일상적인 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6	0.8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소	애도의 기능	기념과 애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는가?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정기적으로 사회 행사를 개최하는가?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직업과 연령에 따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이 메모리얼공간은 해당 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감정의 치유 기능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심리 치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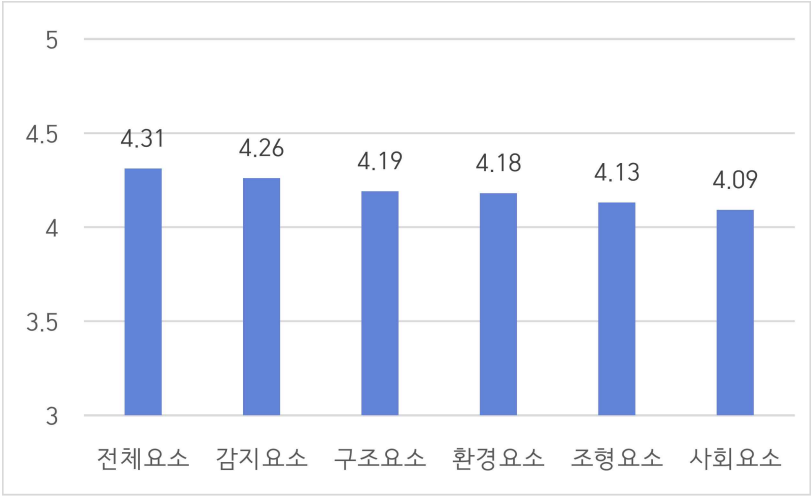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와 각각의 공간특성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이 일관성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하고 문제 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된다. α 계수의 값은 0~1 사이이며,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음, 0.7~0.8사이이면 높음, 0.6~0.7사이이면 신뢰도가 보통, 0.6이하이면 신도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간 체험 문제의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이었다. 특히 구조요소(0.893), 조형요소(0.870), 환경요소(0.859)가 0.85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3.2 1차 중요도 조사 결과

(1) 평가지표의 중요도

현상학적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모든 항목이 4점(높음) 이상이었다. 이 중 전체요소는 4.31, 감지요소는 4.26, 구조요소는 4.19, 환경요소는 4.18, 조형요소는 4.13로 모든 지표에서 사회 요소는 4.09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감지요소는 중요도 점수가 높을 뿐 아니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값도 0.481로 작게 나와 평균치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반면 사회적 프로그램은 표준편차가 0.621으로 가장 커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평균에서 떨어진 수치가 많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2] 평가지표의 중요도 (단위 : 점)

[표 4-12] 공간 요소별 중요도 점수(단위 : 점)

요소	세부 지표	(순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감지 요소	시각적 요소의 유도	(2)	3.00	5.00	4.26	0.481
	음향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					
	재료 촉감의 체험					
	정보 획득의 원활도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조형 요소	메모리얼공간의 은폐화 추세	(5)	2.89	5.00	4.13	0.558
	조형물의 독창성					
	조형의 은유적 특징					
	외관 디자인의 유도					
	공간 질서유무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조형의 연결					
	공간 인터페이스 체험의 변화					
구조 요소	공간의 복합적인 기능	(3)	2.50	5.00	4.19	0.604
	사유공간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공간성과 시간성					
	공간의 배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양한 행위 체험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환경 요소	공간의 몰입도 조성	(4)	2.57	5.00	4.18	0.600
	공간의 안정감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환경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					
	감정을 이완시킴					
	조성된 분위기					
전체 요소	각각 공간의 연관성	(1)	2.80	5.00	4.31	0.562
	다양한 체험					
	서사적 공간					
	연속적인 공간 체험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사회 요소	일상적인 체험	(6)	2.17	5.00	4.09	0.621
	애도의 기능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감정의 치유 기능					

주1: Base N=100

(2) 평가지표 간 상관관계

평가 지표가 서로 예측하는 두 변수 간 선형 상관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두 지표 간의 선형상관도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완전부 선형상관-1에서 완전부 선형상관+1 사이에 분포)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4보다 높으면 상관관계가 있고 ±0.7보다 높으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각 평가지표별표 간은 0.6(약수 포함) 이상의 정상태(+)로 확인됐다. 모든 지표 간은 유의한 상관관계이며, 특히 구조요소-감지요소(0.772), 구조요소-조형요소(0.763), 조형요소-감지요소(0.743), 전체요소-구조요소(0.740), 전체요소-환경요소(0.736), 환경요소-구조요소(0.724), 사회요소-조형요소(0.717), 사회요소-환경요소(0.706), 사회요소-구조요소(0.704), 지표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3] 평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감지요소	조형요소	구조요소	환경요소	전체요소	사회요소
감지요소	1					
조형요소	.743** (.000)	1				
구조요소	.772** (.000)	.763** (.000)	1			
환경요소	.659** (.000)	.655** (.000)	.724** (.000)	1		
전체요소	.643** (.000)	.696** (.000)	.740** (.000)	.736** (.000)	1	
사회요소	.622** (.000)	.717** (.000)	.704** (.000)	.706** (.000)	.664**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3.3 1차 중요도 조사 분석

(1) 감지요소

평가항목 중 감지요소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26)를 보면(리커트 5단계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4.20), 전문가(4.23)보다 여성(4.32)과 예비 전문가(4.30)의 감지요소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 응답자의 전공은 공공디자인(4.45), 실내디자인(4.37), 기타(4.33), 시각디자인(4.07), 건축디자인(4.06), 전시디자인(3.97) 순이였으며, 경력 중요도는 3~5년(4.56), 20년 이상(4.23), 3년 미만(4.26), 6년~10년(4.21), 11~20년(4.16) 순이었다. 그리고 학력은 박사 재학, 석사(4.34), 대학 재학~석사 미만(4.28), 박사 수료(4.20), 박사(3.86) 순이었다.

[표 4-14] 감지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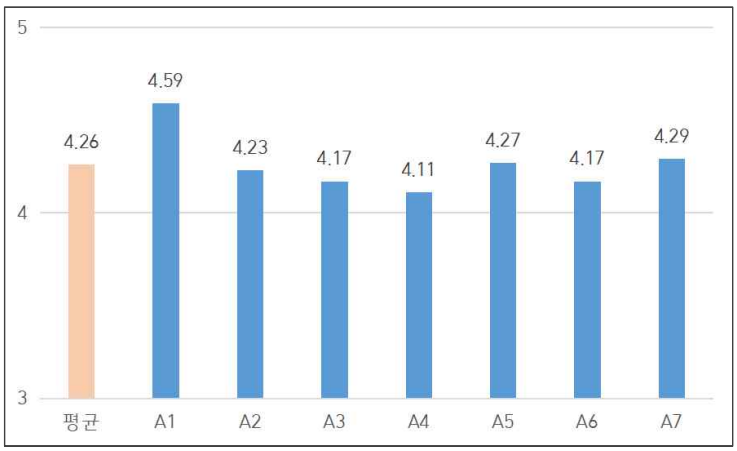
요소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감지요소	전체		100	4.26	0.481	-	-
	성별	남자	46	4.20	0.50	1.266	0.208
		여자	54	4.32	0.46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30	0.45	-0.754	0.453
		전문가	55	4.23	0.5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공	실내디자인	32	4.37	0.44	2.478	0.037
		전시디자인	9	3.97	0.44		
		공공디자인	14	4.45	0.46		
		시각디자인	16	4.07	0.52		
		건축	9	4.06	0.45		
		기타	20	4.33	0.48		
	경력	3년 미만	34	4.26	0.47	1.664	0.165
		3년~5년	13	4.56	0.24		
		6~10년	12	4.21	0.57		
		11~20년	28	4.16	0.51		
		20년 이상	13	4.23	0.48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4.28	0.52	1.845	0.127
		석사	25	4.34	0.37		
		박사 재학	18	4.34	0.49		
		박사 수료	13	4.20	0.50		
		박사	8	3.86	0.46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001 (***), p<.01 (**), p<.05 (*)임

감지요소(전체 평균 4.26)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A1-시각적 요소의 유도'(4.59), 'A2-음향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4.23), 'A3-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4.17), 'A4-재료 촉감의 체험'(4.11), 'A5-정보 획득의 원활도'(4.27), 'A6-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4.17) 순이었다, 'A7-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4.29).



[그림 4-3] 감지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15] 감지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평가지표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감지요소	A1	0.0	0.0	7.0	27.0	66.0	4.59	0.621
	A2	0.0	0.0	20.0	37.0	43.0	4.23	0.763
	A3	0.0	3.0	16.0	42.0	39.0	4.17	0.805
	A4	0.0	1.0	24.0	38.0	37.0	4.11	0.803
	A5	0.0	2.0	12.0	43.0	43.0	4.27	0.750
	A6	0.0	4.0	14.0	43.0	39.0	4.17	0.817
	A7	0.0	1.0	14.0	40.0	45.0	4.29	0.743

주: Base N=100

감지요소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7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보면 'A1'과 'A3', 'A1'과 'A6', 'A4'와 'A6'을 제외하고는 모두 0.6이하, 유의한 수준인 0.05이하 또는 0.01이하로 선형적 연관성을 보였다. 상관계수로 선형상관성 정도를 살펴보면, 'A1'와 'A2'의 상관계수는 0.520로 다른 지표에 비해 정선형상관성이 높았다. 즉, A1과 A2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메모리얼 공간은 'A1'과 'A3', 'A1'과 'A6', 'A4'과 'A6' 등에서 상관관계는 없다.

[표 4-16] 감지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A1	A2	A3	A4	A5	A6	A7
A1	1						
A2	.520** (.000)	1					
A3	-.041 (.685)	.248* (.013)	1				
A4	.375** (.000)	.436** (.000)	.205* (.040)	1			
A5	.305** (.002)	.331** (.001)	.325** (.001)	.470** (.000)	1		
A6	-.020 (.840)	.228* (.022)	.447** (.000)	.156 (.121)	.320** (.001)	1	
A7	.304** (.002)	.433** (.000)	.221* (.027)	.370** (.000)	.493** (.000)	.218* (.030)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조형요소

평가항목 중 조형요소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13)를 보면(리커트 5단계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4.16)이 남성(4.10), 전문가(4.18), 예비 전문가(4.08)보다 더 중요하다. 응답자의 전공은 실내디자인(4.22), 공공디자인(4.19), 기타(4.15), 시각디자인(4.01), 전시디자인(3.99), 건축디자인(4.06)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력 중요도는 3~5년(4.32), 6년~10년(4.29), 11~20년, 20년 이상(4.11), 3년 미만(4.03) 순이였으며, 학력은 박사 재학(4.29), 박사 수료(4.22), 석사(4.13), 대학 재학~석사 미만(4.08), 박사(3.8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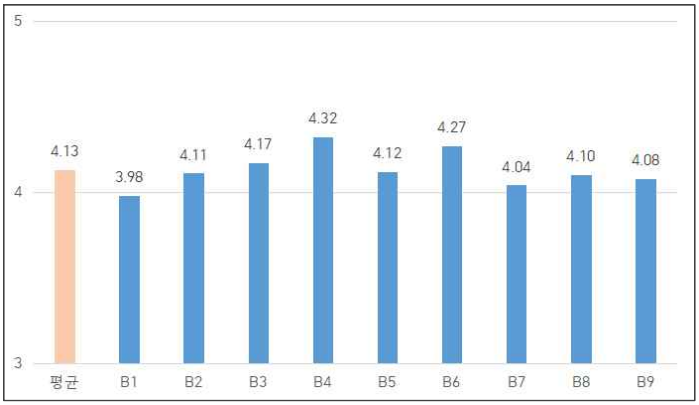
[표 4-17] 조형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요소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조형요소	전체		100	4.13	0.56	-	-
	성별	남자	46	4.10	0.56	0.587	0.558
		여자	54	4.16	0.56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08	0.60	0.862	0.391
		전문가	55	4.18	0.53		
	전공	실내디자인	32	4.22	0.56	0.487	0.785
		전시디자인	9	3.99	0.46		
		공공디자인	14	4.19	0.70		
		시각디자인	16	4.01	0.68		
		건축	9	4.06	0.08		
		기타	20	4.15	0.52		
	경력	3년 미만	34	4.03	0.60	0.866	0.487
		3년~5년	13	4.32	0.50		
		6~10년	12	4.29	0.56		
		11~20년	28	4.11	0.49		
		20년 이상	13	4.11	0.65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4.08	0.65	0.911	0.461
		석사	25	4.13	0.57		
		박사 재학	18	4.29	0.52		
		박사 수료	13	4.22	0.37		
		박사	8	3.89	0.35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001 (***), p<.01 (**), p<.05 (*)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형요소(전체 평균 4.13)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B1-메모리얼공간의 은폐화 추세'(3.98), 'B2-조형물의 독창성'(4.11), 'B3-형태의 은유적 특징'(4.17), 'B4-외관 디자인의 유도'(4.32), 'B5-공간 질서유무'(4.12), 'B6-공간형태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4.27), 'B7-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4.04), 'B8-형태의 연결'(4.10), 'B9-공간 인터페이스 체험의 변화'(4.08) 순이었다.



[그림 4-4] 조형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18] 조형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평가지표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조형요소	B1	1.0	6.0	18.0	44.0	31.0	3.98	0.910
	B2	0.0	3.0	16.0	48.0	33.0	4.11	0.777
	B3	1.0	2.0	17.0	39.0	41.0	4.17	0.853
	B4	0.0	1.0	11.0	43.0	45.0	4.32	0.709
	B5	0.0	3.0	18.0	43.0	36.0	4.12	0.808
	B6	0.0	0.0	10.0	53.0	37.0	4.27	0.633
	B7	0.0	3.0	23.0	41.0	33.0	4.04	0.828
	B8	0.0	2.0	25.0	34.0	39.0	4.10	0.847
	B9	0.0	2.0	19.0	48.0	31.0	4.08	0.761

주: Base N=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형요소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9개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를 보면 'B3'과 'B6', 'B3'과 'B7'을 제외하고는 모두 0.8이하, 유의한 수준인 0.05이하 또는 0.01이하로 선형적 연관성을 보였다. 상관계수로 선형상관성 정도를 살펴보면, 'B8'과 'B9'의 상관계수는 0.740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정선형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B8과 B9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메모리얼공간은 'B3'과 'B6', 'B3'과 'B7' 등에서 상관관계는 없었다.

[표 4-19] 조형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	1								
B2	.646** (.000)	1							
B3	.499** (.000)	.672** (.000)	1						
B4	.511** (.000)	.449** (.000)	.460** (.000)	1					
B5	.347** (.000)	.317** (.001)	.395** (.000)	.691** (.000)	1				
B6	.290** (.003)	.247* (.013)	.064 (.529)	.413** (.000)	.529** (.000)	1			
B7	.269** (.007)	.276** (.005)	.090 (.371)	.391** (.000)	.506** (.000)	.634** (.000)	1		
B8	.330** (.001)	.520** (.000)	.368** (.000)	.451** (.000)	.440** (.000)	.476** (.000)	.599** (.000)	1	
B9	.309** (.002)	.429** (.000)	.321** (.001)	.383** (.000)	.510** (.000)	.500** (.000)	.524** (.000)	.740**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3) 구조요소

평가항목 중 구조요소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19)를 보면(리커트 5단계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4.23)이 남성(4.15), 전문가(4.25), 예비 전문가(4.12)보다 더 중요하다. 응답자의 전공은 실내디자인(4.34), 공공디자인(4.30), 기타(4.22), 전시디자인(4.07), 시각디자인(4.04), 건축디자인(3.82)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력 중요도는 3~5년(4.50), 11~20년(4.25), 20년 이상(4.24), 6년~10년(4.14), 3년 미만(4.03) 순이였으며, 학력은 박사 재학(4.49), 석사(4.18), 대학 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석사 미만(4.17), 박사 수료(4.13), 박사(3.7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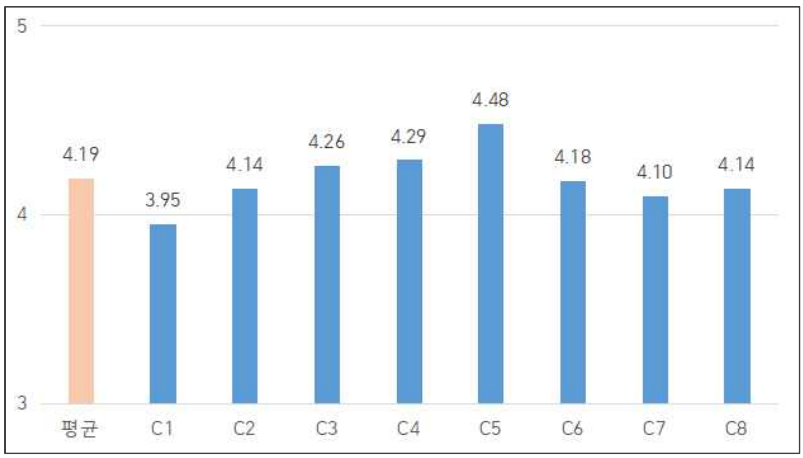
[표 4-20] 구조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요소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구조 요소	전체		100	4.19	0.60	-	-
	성별	남자	46	4.15	0.66	0.656	0.514
		여자	54	4.23	0.56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12	0.67	1.137	0.258
		전문가	55	4.25	0.54		
	전공	실내디자인	32	4.34	0.45	1.508	0.195
		전시디자인	9	4.07	0.36		
		공공디자인	14	4.30	0.61		
		시각디자인	16	4.04	0.78		
		건축	9	3.82	0.53		
		기타	20	4.22	0.73		
	경력	3년 미만	34	4.03	0.65	1.611	0.178
		3년~5년	13	4.50	0.38		
		6~10년	12	4.14	0.86		
		11~20년	28	4.25	0.51		
		20년 이상	13	4.24	0.50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4.17	0.67	2.353	0.059
		석사	25	4.18	0.59		
		박사 재학	18	4.49	0.48		
		박사 수료	13	4.13	0.48		
		박사	8	3.75	0.54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001 (***), p<.01 (**), p<.05 (*)임

구조요소(전체 평균 4.19)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C1-공간의 복합적인 기능'(3.95), 'C2-사유공간'(4.14), 'C3-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4.26), 'C4-공간성과 시간성'(4.29), 'C5-공간의 배치'(4.48), 'C6-다양한 행위 체험'(4.18), 'C7-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4.10), 'C8-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4.14) 순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5] 구조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21] 구조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평가지표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조형요소	C1	0.0	2.0	27.0	45.0	26.0	3.95	0.783
	C2	0.0	5.0	19.0	33.0	43.0	4.14	0.899
	C3	0.0	1.0	16.0	39.0	44.0	4.26	0.760
	C4	0.0	2.0	14.0	37.0	47.0	4.29	0.782
	C5	0.0	2.0	6.0	34.0	58.0	4.48	0.703
	C6	0.0	3.0	20.0	33.0	44.0	4.18	0.857
	C7	0.0	3.0	19.0	43.0	35.0	4.10	0.810
	C8	0.0	2.0	18.0	44.0	36.0	4.14	0.779

주: Base N=100

구조요소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8개 세부지표의 상호관계를 보면, 검증의 유의한 확률은 0.01 이하이며, 두 지표변수 모두 선형상관성을 갖는다. 상관계수로 선형상관성 정도를 살펴보면, ‘C7’과 ‘C8’의 상관계수는 0.650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정선형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7’과 ‘C8’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C2’와 ‘C5’, ‘C5’와 ‘C7’ 지표 간의 상관관계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관계수의 정도는 적다. 메모리얼공간인 ‘C2’와 ‘C5’와 ‘C5’와 ‘C7’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2] 구조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C1	C2	C3	C4	C5	C6	C7	C8
C1	1							
C2	.512** (.000)	1						
C3	.446** (.000)	.567** (.000)	1					
C4	.584** (.000)	.516** (.000)	.534** (.000)	1				
C5	.466** (.000)	.356** (.000)	.463** (.000)	.534** (.000)	1			
C6	.540** (.000)	.544** (.000)	.470** (.000)	.584** (.000)	.509** (.000)	1		
C7	.454** (.000)	.438** (.000)	.498** (.000)	.575** (.000)	.394** (.000)	.585** (.000)	1	
C8	.591** (.000)	.505** (.000)	.433** (.000)	.513** (.000)	.540** (.000)	.552** (.000)	.650**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4) 환경요소

평가항목 중 환경요소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18)를 보면(리커트 5단계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4.23)이 남성(4.12), 예비 전문가(4.19), 전문가(4.17)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전공은 공공디자인(4.48), 실내디자인(4.33), 시각디자인(4.11), 전시디자인, 기타(4.00), 건축디자인(3.99)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력 중요도는 3~5년(4.52), 11~20년(4.10), 20년 이상(4.23), 6년~10년(4.08), 3년 미만(4.13) 순이였으며, 학력은 박사 재학(4.29), 석사(4.23), 박사 수료(4.22), 대학 재학~석사 미만(4.18), 박사(3.70) 순이었다.

[표 4-23] 환경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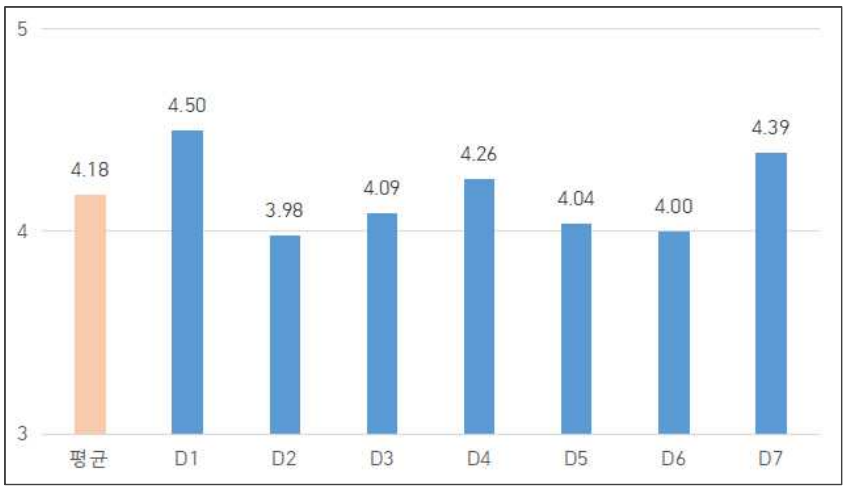
요소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환경요소	전체		100	4.18	0.60	-	-
	성별	남자	46	4.12	0.60	0.905	0.368
		여자	54	4.23	0.60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19	0.62	-0.205	0.838
		전문가	55	4.17	0.5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공	실내디자인	32	4.33	0.49	2.224	0.058
		전시디자인	9	4.00	0.61		
		공공디자인	14	4.48	0.54		
		시각디자인	16	4.11	0.66		
		건축	9	3.89	0.65		
		기타	20	4.00	0.64		
	경력	3년 미만	34	4.13	0.59	1.317	0.269
		3년~5년	13	4.52	0.35		
		6~10년	12	4.08	0.83		
		11~20년	28	4.10	0.56		
		20년 이상	13	4.23	0.65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4.18	0.68	1.538	0.197
		석사	25	4.23	0.61		
		박사 재학	18	4.29	0.45		
		박사 수료	13	4.22	0.48		
		박사	8	3.70	0.55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001 (***), p<.01 (**), p<.05 (*)임

환경요소(전체 평균 4.18)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D1-공간의 몰입도 조성'(4.50), 'D2-공간의 안정감'(3.98), 'D3-주변 환경과 어우러짐'(4.09), 'D4-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4.26), 'D5-환경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4.04), 'D6-감정을 이완시킴'(4.00), 'D7-조성된 분위기'(4.39) 순이었다.



[그림 4-6] 환경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24] 환경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평가지표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환경요소	D1	0.0	1.0	8.0	31.0	60.0	4.50	0.689
	D2	1.0	4.0	23.0	40.0	32.0	3.98	0.899
	D3	1.0	3.0	13.0	52.0	31.0	4.09	0.805
	D4	0.0	4.0	10.0	42.0	44.0	4.26	0.799
	D5	0.0	3.0	22.0	43.0	32.0	4.04	0.816
	D6	0.0	4.0	28.0	32.0	36.0	4.00	0.899
	D7	0.0	2.0	12.0	31.0	55.0	4.39	0.777

주: Base N=100

환경요소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7개 세부지표의 상호관계를 보면, 검증의 유의한 확률은 0.01 이하이며, 두 지표변수 모두 선형상관성을 갖는다. 상관계수로 선형상관성 정도를 살펴보면, 'D5'와 'D6'의 상관계수는 0.648로 다른 지표에 비해 정선형상관성이 높다. 즉, 'D5'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D6'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D1'과 'D4', 'D1'과 'D2', 'D1'과 'D5', 'D1'과 'D6', 'D1'과 'D7' 지표 간의 상관관계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 정도는 적다. 또한 메모리얼공간인 'D1'과 'D4', 'D1'과 'D2', 'D1'과 'D5', 'D1'과 'D6', 'D1'과 'D7'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환경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D1	D2	D3	D4	D5	D6	D7
D1	1						
D2	.343** (.000)	1					
D3	.446** (.000)	.533** (.000)	1				
D4	.293** (.003)	.429** (.000)	.466** (.000)	1			
D5	.360** (.000)	.511** (.000)	.517** (.000)	.495** (.000)	1		
D6	.391** (.000)	.413** (.000)	.447** (.000)	.422** (.000)	.648** (.000)	1	
D7	.387** (.000)	.445** (.000)	.460** (.000)	.567** (.000)	.581** (.000)	.622**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전체요소

평가항목 중 전체요소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31)를 보면(5점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4.40)이 남성(4.21)보다 더 중요하다. 예비 전문가(4.31)와 전문가(4.31)는 중요도가 같았으며 응답자의 전공은 공공디자인(4.43), 실내디자인(4.39), 전시디자인(4.29), 기타(4.26), 건축디자인(4.20) 시각디자인(4.17)으로 평가하였다. 경력 중요도는 3~5년(4.58), 11년~20년(4.34), 20년 이상(4.32), 3년 미만(4.25), 6~10년(4.12) 순이었다. 학력은 박사 재학(4.37), 석사(4.36), 대학 재학~석사 미만(4.34), 박사 수료(4.32), 박사(3.8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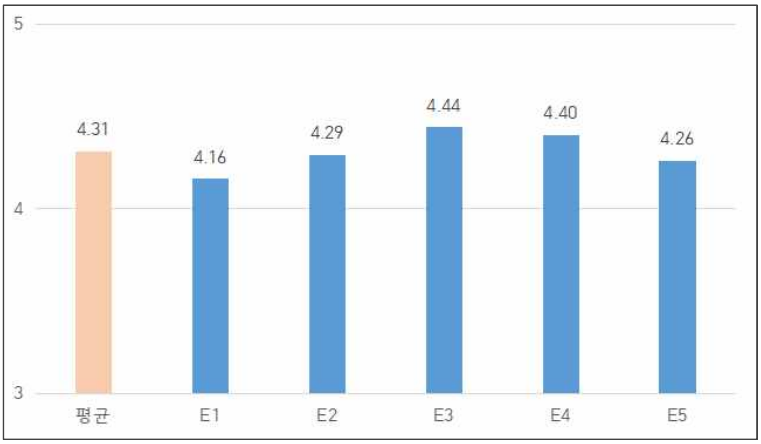
[표 4-26] 전체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요소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전체요소	전체		100	4.31	0.56	-	-
	성별	남자	46	4.21	0.57	1.678	0.097
		여자	54	4.40	0.55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31	0.57	-0.018	0.986
		전문가	55	4.31	0.56		
	전공	실내디자인	32	4.39	0.51	0.541	0.745
		전시디자인	9	4.29	0.44		
		공공디자인	14	4.43	0.62		
		시각디자인	16	4.17	0.79		
		건축	9	4.20	0.51		
		기타	20	4.26	0.49		
	경력	3년 미만	34	4.25	0.60	1.266	0.289
		3년~5년	13	4.58	0.42		
		6~10년	12	4.12	0.56		
		11~20년	28	4.34	0.57		
		20년 이상	13	4.32	0.56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4.34	0.61	1.498	0.209
		석사	25	4.36	0.54		
		박사 재학	18	4.37	0.45		
		박사 수료	13	4.32	0.43		
		박사	8	3.85	0.75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001 (***), p<.01 (**), p<.05 (*)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체요소(전체 평균 4.31)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E1-각각 공간의 연관성'(4.16), 'E2-다양한 체험'(4.29), 'E3-서사적 공간'(4.44), 'E4-연속적인 공간 체험'(4.40), 'E5-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4.26) 순이었다.



[그림 4-7] 전체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표 4-27] 전체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평가지표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요소	E1	0.0	0.0	19.0	46.0	35.0	4.16	0.721
	E2	0.0	2.0	13.0	39.0	46.0	4.29	0.769
	E3	0.0	0.0	12.0	32.0	56.0	4.44	0.701
	E4	0.0	2.0	7.0	40.0	51.0	4.40	0.711
	E5	0.0	3.0	9.0	47.0	41.0	4.26	0.747

주: Base N=100

전체요소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의 상호관계를 보면, 검증의 유의한 확률은 0.01 이하이며, 두 지표변수 모두 선형상관성을 갖는다. 상관계수로 선형상관성 정도를 살펴보면, 'E2'와 'E3'의 상관계수는 0.660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정선형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E2와 E3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 'E1'과 'E4' 지표 간의 상관관계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도는 적다. 즉 메모리얼공간인 'E1'과 'E4'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전체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E1	E2	E3	E4	E5
E1	1				
E2	.389** (.000)	1			
E3	.399** (.000)	.660** (.000)	1		
E4	.288** (.004)	.543** (.000)	.657** (.000)	1	
E5	.372** (.000)	.395** (.000)	.570** (.000)	.658**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6) 사회요소

평가항목 중 사회요소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점수(평균 4.09)를 보면(리커트 5단계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4.03)이 남성(4.02), 전문가(4.05), 예비 전문가(3.99)로 여성과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전공은 공공디자인(4.31), 기타(4.03), 실내디자인(4.02), 전시디자인(3.98), 시각디자인(3.93), 건축디자인(3.84)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력 중요도는 6년~10년(4.19), 3~5년(4.15), 11~20년(4.03), 3년 미만(3.96), 20년 이상(3.92), 순이였으며, 학력은 박사 재학(4.21), 박사 수료(4.13), 석사, 대학 재학~석사 미만(3.98), 박사(3.79) 순이었다.

[표 4-29] 사회요소의 집단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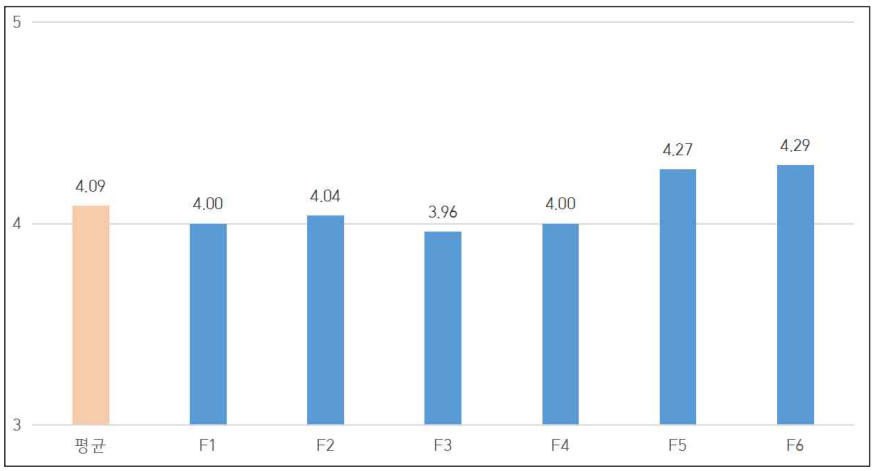
요소	집단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t, F	유의도(p)
사회 요소	전체		100	4.09	0.62	-	-
	성별	남자	46	4.08	0.61	0.201	0.841
		여자	54	4.10	0.64		
	전문성	예비전문가	45	4.04	0.67	0.710	0.479
		전문가	55	4.13	0.58		
	전공	실내디자인	32	4.09	0.56	0.735	0.599
		전시디자인	9	4.04	0.52		
		공공디자인	14	4.37	0.62		
		시각디자인	16	3.96	0.8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건축	9	4.04	0.43		
		기타	20	4.06	0.63		
	경력	3년 미만	34	4.01	0.69	0.513	0.727
		3년~5년	13	4.19	0.48		
		6~10년	12	4.25	0.61		
		11~20년	28	4.13	0.52		
		20년 이상	13	3.99	0.78		
	학력	대학재학~석사 미만	36	4.03	0.74	0.654	0.625
		석사	25	4.07	0.62		
		박사 재학	18	4.26	0.44		
		박사 수료	13	4.19	0.49		
		박사	8	3.92	0.62		

주: t, F는 통계량 값이며, 유의확률은 p<.001 (***), p<.01 (**), p<.05 (*)임

전체요소(전체 평균 4.09)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보면 'F1-일상적인 체험'(4.00), 'F2-애도의 기능'(4.04), 'F3-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3.96), 'F4-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4.00), 'F5-해당 지역과 문화교류'(4.27), 'F6-감정의 치유 기능'(4.29), 순이었다.



[그림 4-8] 사회요소 세부지표 중요도 점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30] 사회요소의 세부지표별 중요도 (단위 : %, 점)

평가지표	세부 지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표준 편차
사회요소	F1	0.0	5.0	23.0	39.0	33.0	4.00	0.876
	F2	1.0	4.0	18.0	44.0	33.0	4.04	0.875
	F3	0.0	5.0	25.0	39.0	31.0	3.96	0.875
	F4	1.0	7.0	16.0	43.0	33.0	4.00	0.932
	F5	0.0	1.0	11.0	48.0	40.0	4.27	0.694
	F6	0.0	4.0	13.0	33.0	50.0	4.29	0.844

주: Base N=100

사회요소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의 상호관계를 보면, 유의한 수준인 0.05 이하 또는 0.01 이하로 선형적 연관성을 보였다. 상관계수로 선형상관성 정도를 살펴보면, 'F2'와 'F5'의 상관계수는 0.614로 다른 지표에 비해 정선형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2와 F5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메모리얼공간은 'F1'과 'F6', 'F4'과 'F6', 'F1'과 'F4' 등에서 상관관계는 없었다.

[표 4-31] 사회요소의 세부지표별 상관관계

요소명	F1	F2	F3	F4	F5	F6
F1	1					
F2	.501** (.000)	1				
F3	.474** (.000)	.556** (.000)	1			
F4	.359** (.000)	.495** (.000)	.433** (.000)	1		
F5	.498** (.000)	.614** (.000)	.467** (.000)	.406** (.000)	1	
F6	.218* (.029)	.367** (.000)	.494** (.000)	.295** (.003)	.485** (.000)	1

주1: Base N=100
주2: 유의확률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문가와 예비전문가의 그룹별 앞선 6개 평가항목 변수 집단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성별, 전공, 전문분야, 경력, 학력 등 그룹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p>0.05)이 없었다. 모든 공간특성 항목의 집단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평가항목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4 전문가 FGI 심층 면접

본 연구에서는 1차 전문가 예비항목 평가를 기초하여 평가항목의 유효성과 용이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종합평가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2차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검증에서는 표적집단면접법(FGI:Focus Group Interview)이 적용하였으며 중요도 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평가항목의 적합여부와 세부지표 내용을 검토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항목과 수정 및 보완사항 등이 나왔다.

FGI 대상자는 공간디자인 관련 분야의 저명한 교수 5명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3월 30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면접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면접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비대면을 원하는 교수는 설문에 관련된 내용과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하에 온라인을 통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선 FGI 대상자들을 통한 설문조사는 모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지표의 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4-32] FGI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응답자 E
성별	남	남	남	여	여
연령	45	54	53	47	57
학위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직업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경력	15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GI 대상자를 실시한 2차 예비 평가지표의 적합도 결과를 빈도 분석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하며 유의미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6개의 평가항목 중 전체 요소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평가항목이 평균적으로 4점대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4-33] 평가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응답자 E
감지요소	4.371	0.260	4.29	4.43	4.00	4.71	4.43
조형요소	4.218	0.285	4.27	4.00	3.91	4.64	4.27
구조요소	4.300	0.429	4.63	3.88	4.00	4.88	4.13
환경요소	4.314	0.186	4.57	4.14	4.14	4.43	4.29
전체요소	4.640	0.167	4.80	4.60	4.40	4.80	4.60
사회요소	4.133	0.274	4.50	3.83	4.00	4.33	4.00

FGI에 따라 5명의 전문가는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평가에 대한 자세한 질문에 보충 의견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A: 대중 참여성 지표는 메모리얼공간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메모리얼공간의 평가는 매우 의미 있고, 현상학은 좋은 평가 시각을 제공하였다. 현상학적 관심의 감지나 행위 등은 메모리얼공간의 기능 향상에 중요한 참고가 되며 기념은 사람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행사장 내에서의 적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메모리얼공간은 체험과정에서 사람의 활동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메모리얼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장소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의 평가 항목을 보면 모든 평가 항목은 좋은 의미를 지니지만 일부 내용은 중복되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은 '시각적 요소의 유도'와 이해에 유사하였으며 의미가 비슷한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전문가 B: 공간의 기호 내용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한다.

사람의 기억은 일련의 상징 기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운반체를 기호화하여 특수한 시공간의 고정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기억을 더 깊게 하며 메모리얼공간의 기호화 요소는 장소의 표시시스템, 비석의 형태, 장소의 상징적 구조물 등으로 한다. 설문조사 항목에 기억에 대한 묘사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 이는 평가 시 이해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비고를 추가하거나 설문조사 문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전문가 C: 환경적 요인은 기념 체험에 영향을 준다.

현실에서는 기념비의 조형이 주변 환경, 역사적 기억의 특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추모에 몰입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체험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나는 메모리얼공간에 환경적 요소와 지역문화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점이 현상학적 공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또한 평가항목에서 공간과 소란스러운 환경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란 환경과 차단되는지' 질문의 목적이 장소와 도시의 위치관계인지, 장소가 소란스러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설계수단을 적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시끄러운 외부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등 문제의 요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전문가 D: 메모리얼공간의 조형적 요소는 특성을 보인다.

공간체험을 기념하는 평가항목을 보면 본 연구의 평가지표는 잘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조형에 대한 질문은 공간의 감정 체험을 기념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공간, 인터페이스와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비례관계는 서로 다른 감정적 경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형 요소의 세부 평가지표를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 있으며 메모리얼공간의 조형기 은폐된 메모리얼공간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반(反)기념비적 설계방법으로 기념의 생활화와 일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형이 은폐로 메모리얼공간의 어떤 면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설명할 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없다. 또한 조형과 공간적 연결에서 많은 메모리얼공간들이 충돌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부조화 감응 관계를 조성한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생각하여 평가 항목에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나 수정하는 것이다.

• 전문가 E: 공간에서 기능과 체험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메모리얼공간의 복합성과 다양화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풍부한 기능과 함께 각 공간에서 발휘하는 기능은 약화하지 않았으며 메모리얼공간 기능 측면의 평가는 각 기능공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와 공간의 기능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간의 복합적인 기능'은 '다양성', '연관성' 등의 내용과 중복되며 복합화가 애매모호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람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간이나 전시 체험 방식의 다양성', '참여성'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FGI 설문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감성요소 중 중복의사 설문내용의 병합 조형요소 중 명확한 지향성이 없는 평가항목과 이견이 있는 평가항목의 삭제 구조요소 중 모호한 항목의 삭제 환경요소 중 불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가 공간평가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재수정한다.

이상에서 얻은 심층면담의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항목을 평가모형이 제시하는 의미에 맞게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유사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조정합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교류를 통해 다음 장에서는 최종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추모공간 다크투어리즘 평가 사업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를 실시한다.

두 차례로 진행된 설문조사 및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도출된 결과를 보면 평가항목은 감지요소, 조형요소, 구조요소, 환경요소, 전체요소, 사회요소 등 예비지표와 같이 6가지 항목으로 변화가 없고 하위 37개의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 공간평가 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4.4.1 AHP 기법 활용 과정

다기준 분석이란, 여러가지 속성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기법을 채택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AHP는 1972년 Thomas Satty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분해하고, 그 요인들에 대해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함으로써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다(Saaty, 2016). AHP는 요인별로 쌍대비교를 함으로써 각 요인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고,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 모형 정의, 설문을 통한 요인별 쌍대비교 판단,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계산, 복합 가중치 계산, 평가와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간 평가 6개 영역요소와 37개 세부지표에 대한 AHP 모형을 설명 제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으로 구성된 비교 행렬에 대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측정하였다. 일관성과 전문성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관성이 없는 자료는 신뢰도가 적은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관성 비율은 그 값이 작을수록 높은 일관성을 나타낸다. 즉, CR 값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CR 값이 0.1보다 작으면, 일관성을 인정한다(Saaty, 1980). CR 값이 0.2까지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이경수, 2018), 본 연구에서는 0.1 이내 응답자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일관성 비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R(Consistency Ratio) = CI(Consistency Index) / RI(Random Index)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	1	2	3	4	5	6	7	8	9	10	...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

일관성 지수 CI(Consistency Index)는 각 행렬 곱의 우선순위에 평가항목 개수를 뺀 값으로 나눈 것이다. 즉, $C.I = \frac{\lambda \max^{-n}}{n-1}$로 계산된다. 난수지수 RI는 평가항목 개수(n)에 따라 반영된다.

4.4.2 전문가 AHP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지 구성

전문가 AHP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42개의 예비지표를 도출하고, 1차 전문가 중요도 조사 및 2차 전문가 심층 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 6개의 영역과 37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도출된 6개의 영역과 37개의 세부지표를 비교하여 각 영역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1차 설문 대상으로 포함하였던 예비전문가는 재설문 시 제외했고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이를 통해 각 영역에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공간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4-34〉는 최종 설문지에 첨부한 공간평가 최종 평가지표 항목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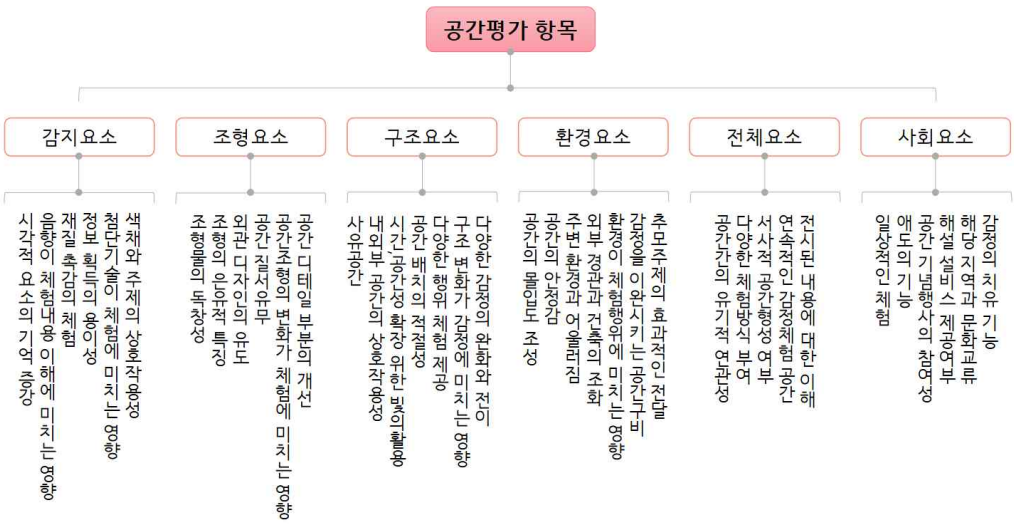
[표 4-34]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공간평가 항목 지표

연번	요소	세부 지표	질문 내용
1	감지 요소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메모리얼공간은 그림과 영상 요소를 충분하게 사용했는가?
2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메모리얼공간의 음향적 요소들은 체험 내용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가?
3		재질 촉감의 체험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의 촉감적 체험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했는가?
4		정보 획득의 용이성	관람자들은 전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메모리얼공간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체험만족도를 한 단계를 향상시켰는가?
6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메모리얼공간에 적용된 색채는 추모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7	조형 요소	조형물의 독창성	메모리얼공간은 여러 추모 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구조 및 조형물을 활용했는가?
8		조형의 은유적 특징	메모리얼공간의 외관은 은유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9		외관 디자인의 유도	메모리얼공간은 외관 디자인을 이용해 관람자의 동선 유도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10		공간 질서유무	메모리얼공간은 유질서과 무질서한 조형 디자인을 통해 체험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
11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벽면의 조형 변화(펀칭, 분할 등)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공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는가?
12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메모리얼공간은 체험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테일 부분까지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13	구조 요소	사유공간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및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가?
14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잇고 있는 관람자의 동선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메모리얼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빛을 활용한 요소가 있는가?
16		공간 배치의 적절성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배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7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다양한 방식의 행위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18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바닥, 천장, 벽면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간에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부여했는가?
19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전이공간(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 부분)은 관람자의 효과적인 체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20	환경 요소	공간의 몰입도 조성	관람자가 신속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21		공간의 안정감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22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러 진다고 생각하는가?
23		외부 경관과 건축의 조화	메모리얼공간의 외부 경관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24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관도로의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감정을 이완시키는 휴식공간을 구비하는가?
26		추모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메모리얼공간에 조성된 분위기는 추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7	전체 요소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메모리얼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28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체험 방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가?
29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공간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서사가 지닌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30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메모리얼공간에는 연속적인 감정체험 노드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31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관람자들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2	사회 요소	일상적인 체험	메모리얼공간은 일상적인 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33		애도의 기능	기념과 애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는가?
34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정기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가?
35		해설 설비스 제공여부	직업과 연령에 따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36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메모리얼공간은 해당 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37		감정의 치유 기능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심리 치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

공간평가 항목의 계층구조는 〈그림 4-9〉와 같다.



[그림 4-9] 공간평가 항목의 계층 구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문 구조에서 쌍대비교 문항과 척도의 설명 예시는 〈표 4-35〉이고, 각 평가항목 간의 쌍대비교에 사용되는 비교의 척도는 양쪽의 중요도가 동등한 척도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점부터 5점까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점수를 수치화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쌍대비교의 5점까지 비율척도는 〈표 4-36〉과 같다.

[표 4-35] 쌍대비교 문항과 척도 설명 예시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	5	4	3	2	1	2	3	4	5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	5	4	3	2	1	2	3	4	5	재료 촉감의 체험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재료 촉감의 체험

[표 4-36] AHP 기법 쌍대비교 척도의 설명

척도	해석
1	2개의 요인이 동등하게(Equal) 중요함
2	어느 한 쪽이 약간(Week) 중요함
3	어느 한 쪽이 조금 더(Moderately) 중요함
4	어느 한 쪽이 강하게(Strongly) 중요함
5	어느 한 쪽이 매우 강하게(Very Strongly) 중요함

(2) 자료 수집 및 분석

2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AHP)는 2022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5일간) 실내디자인, 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 등을 전공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설문 내용의 이해를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설문 대상에 포함되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서베이 형태로 진행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37] AHP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현상학 평가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조사 목적	-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 연구의 항목에 관한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 - 향후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방문율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현상학 도입에 관한 공간평가를 체계화
조사 대상	실내디자인, 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 등을 전공한 전문가 5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
조사 기간	2022년 4월 15일 ~4월 19일
조사 내용	5점 척도 기반 쌍대비교를 통해 6개의 영역과 37개 세부지표를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
유효 표본	50부(회수율 100%)

전문가 AHP 중요도 조사 응답자 50명 가운데, 남자는 27명(54.0%), 여자는 23명(46.0%)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 32명(64.0%), 40대 16명(32.0%), 50대 2명(4.0%)이었다.

전문가 전공 분야는 실내디자인이 27명(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디자인 7명(14.0%), 전시디자인 6명(12.0%), 공공디자인과 건축 각 5명(10.0%)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전문 분야 종사 경력은 11년~20년이 27명(54.0%)으로 가장 많았고, 6년~10년 15명(30.0%), 20년 이상은 8명(16.0%)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의 학력은 석사 8명(16.0%), 박사 재학 18명(36.0%), 박사 수료 13명(26.0%), 박사 11명(22.0%)으로 나타났다.

[표 4-38] AHP 응답자 기본 특성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성별	남자	27	54.0
	여자	23	46.0
연령대	20대	0	0.0
	30대	32	64.0
	40대	16	32.0
	50대	2	4.0
전공	60대 이상	0	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내디자인	27	54.0
	전시디자인	6	12.0
	공공디자인	5	10.0
	시각디자인	7	14.0
	건축	5	10.0
	기타	0	0.0
경력	3년 미만	0	0.0
	3~5년	0	0.0
	6~10년	15	30.0
	11~20년	27	54.0
	20년 이상	8	16.0
학력	학사	0	0.0
	석사	8	16.0
	박사 재학	18	36.0
	박사 수료	13	26.0
	박사	11	22.0

4.4.3 전문가 AHP 분석 결과

(1) 6개 요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AHP 기법을 활용한 6개 요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39〉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38명(76%)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0.7%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공간평가 요소별 중요도는 전체요소(19.11%), 감지요소(18.42%), 구조요소(17.72%), 환경요소(15.94%), 조형요소(15.76%), 사회요소(13.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9] 6개 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감지요소	조형요소	구조요소	환경요소	전체요소	사회요소
감지요소	1.000	1.350	1.171	1.078	0.882	1.292
조형요소	0.741	1.000	0.977	0.954	0.885	1.258
구조요소	0.854	1.023	1.000	1.596	0.775	1.339
환경요소	0.928	1.048	0.627	1.000	0.943	1.339
전체요소	1.133	1.130	1.290	1.060	1.000	1.380
사회요소	0.774	0.795	0.747	0.747	0.7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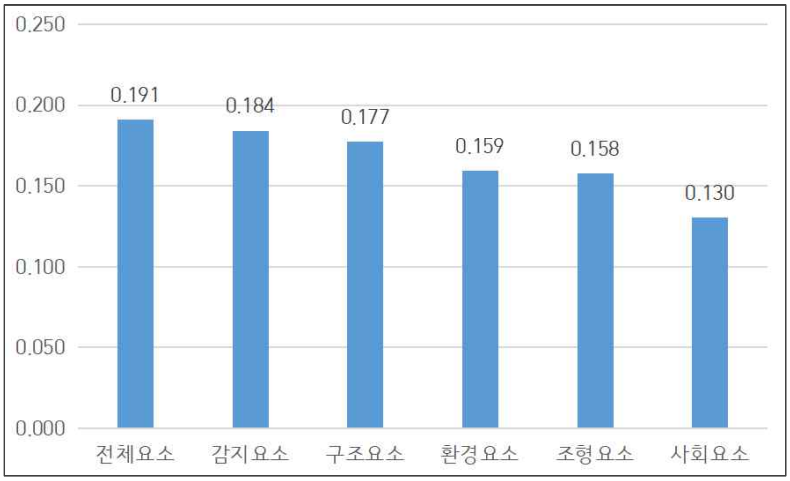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40] 6개 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감지요소	1.105	18.416%	6.044	0.009
조형요소	0.946	15.760%		
구조요소	1.063	17.724%		
환경요소	0.956	15.938%		
전체요소	1.147	19.113%		
사회요소	0.783	13.049%		

[표 4-41] 6개 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6.044	0.009	1.260	0.007	채택



[그림 4-10] 평가항목 영역의 AHP 중요도

공간평가 6개 요소 영역 가운데 전체요소가 19.11%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요소는 13.05%로 낮게 평가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감지요소'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감지요소 영역의 6개 세부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42〉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43명(86%)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1.1%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감지요소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26.77%), 정보 획득의 용이성(23.70%),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21.48%),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11.47%),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8.80%), 재질 촉감의 체험(7.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2] 감지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재질 촉감의 체험	정보 획득의 용이성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1.000	2.299	3.145	1.232	1.376	2.967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0.435	1.000	1.776	0.360	0.433	1.672
재질 촉감의 체험	0.318	0.563	1.000	0.298	0.336	1.131
정보 획득의 용이성	0.812	2.780	3.360	1.000	1.087	2.053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0.727	2.310	2.980	0.920	1.000	2.114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0.337	0.598	0.884	0.487	0.4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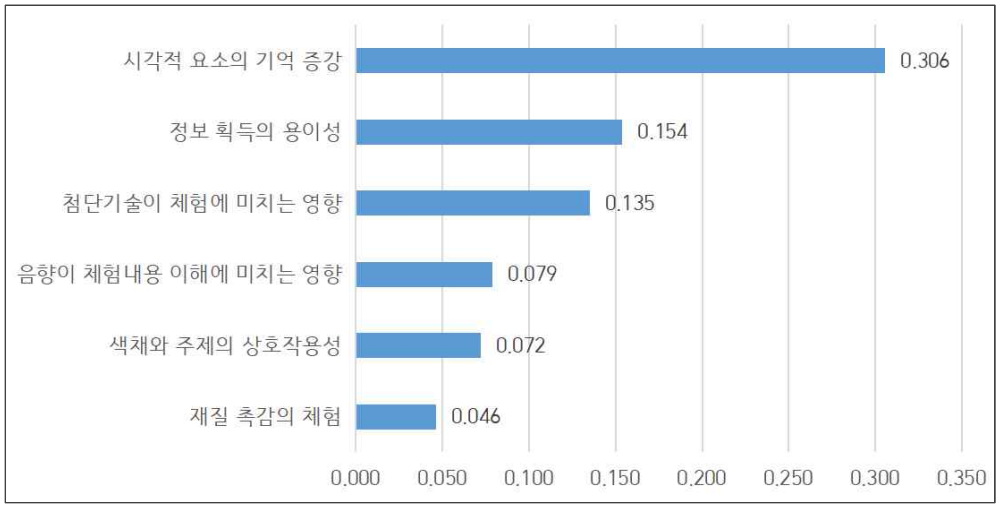
[표 4-43] 감지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1.606	26.765%	6.071	0.014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0.688	11.472%		
재질 촉감의 체험	0.467	7.778%		
정보 획득의 용이성	1.422	23.701%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1.289	24.483%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0.528	8.8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44] 감지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6.071	0.014	1.260	0.011	채택



[그림 4-11] 감지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3) '조형요소'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조형요소 영역의 6개 세부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45〉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38명(76%)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2.1%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조형요소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37.78%), 공간 질서유무(23.45%), 조형의 은유적 특징(11.94%), 외관 디자인의 유도(11.87%), 조형물의 독창성(7.61%),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7.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45] 조형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조형물의 독창성	조형의 은유적 특징	외관 디자인의 유도	공간 질서유무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조형물의 독창성	1.000	0.443	0.486	0.302	0.223	1.647
조형의 은유적 특징	2.257	1.000	0.854	0.467	0.294	1.634
외관 디자인의 유도	2.057	1.171	1.000	0.402	0.350	1.173
공간 질서유무	3.314	2.143	2.486	1.000	0.443	3.236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4.486	3.400	2.857	2.257	1.000	4.585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0.607	0.612	0.852	0.309	0.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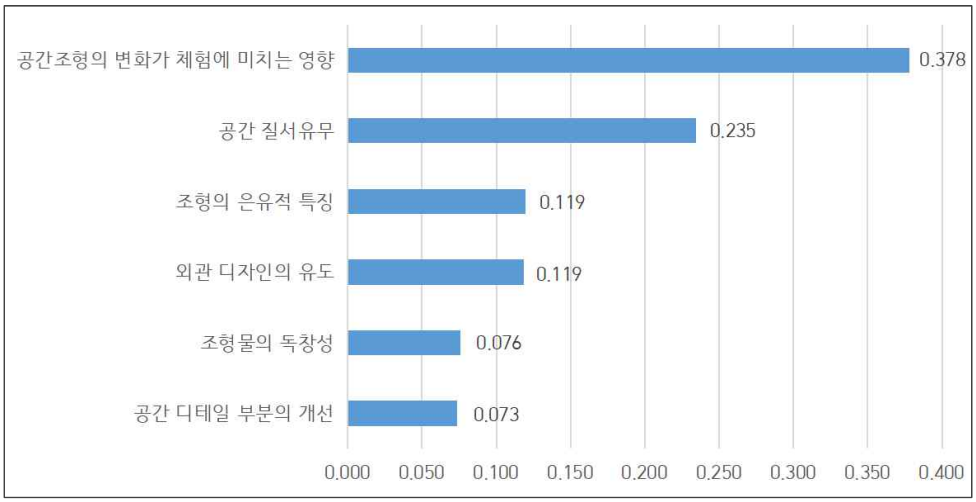
[표 4-46] 조형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조형물의 독창성	0.456	7.605%	6.130	0.026
조형의 은유적 특징	0.717	11.942%		
외관 디자인의 유도	0.712	11.873%		
공간 질서유무	1.407	23.454%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2.267	37.780%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0.441	7.345%		

[표 4-47] 조형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6.130	0.026	1.260	0.021	채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12] 조형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4) '구조요소'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구조요소 영역의 7개 세부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48〉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42명(84%)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1.3%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구조요소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공간 배치의 적절성(30.75%), 시간, 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 활용(19.21%),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13.65%),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12.9%),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11.26%),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7.71%), 사유공간(4.5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8] 구조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사유 공간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공간 배치의 적절성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사유공간	1.000	0.362	0.258	0.221	0.291	0.337	0.425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2.765	1.000	0.613	0.358	1.333	1.193	2.318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3.882	1.632	1.000	0.479	1.473	1.907	2.970
공간 배치의 적절성	4.529	2.794	2.088	1.000	2.632	2.345	3.9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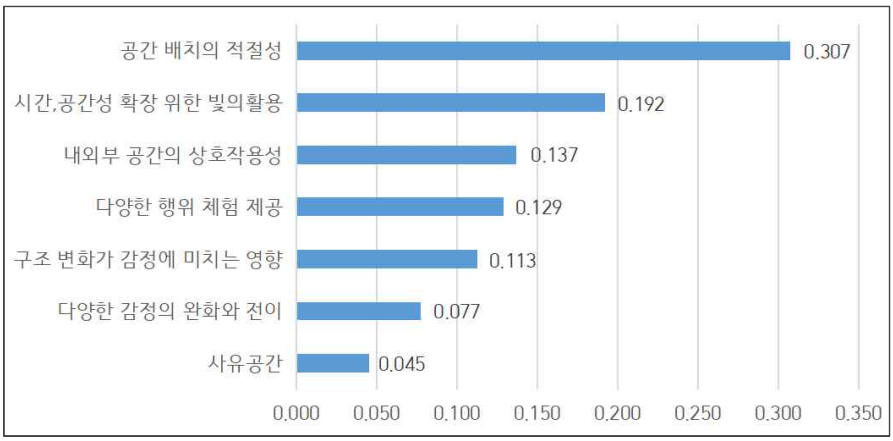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3.441	0.750	0.679	0.380	1.000	1.259	1.790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2.971	0.838	0.524	0.426	0.794	1.000	1.308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2.353	0.431	0.337	0.255	0.559	0.765	1.000

[표 4-49] 구조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사유공간	0.317	4.526%	7.103	0.017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0.956	13.650%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1.345	19.213%		
공간 배치의 적절성	2.152	30.746%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0.903	12.896%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0.788	11.263%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0.539	7.705%		

[표 4-50] 구조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7.103	0.017	1.360	0.013	채택



[그림 4-13] 구조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환경요소'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환경요소 영역의 7개 세부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5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45명(90%)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2.6%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환경요소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31.22%),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22.31%),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15.52%),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 구비(10.39%),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10.08%), 공간의 몰입도 조성(5.91%), 공간의 안정감(4.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1] 환경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공간의 몰입도 조성	공간의 안정감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외부 경관과 건축의 조화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추모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공간의 몰입도 조성	1.000	2.067	0.394	0.292	0.286	0.447	0.222
공간의 안정감	0.484	1.000	0.330	0.281	0.262	0.447	0.225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2.535	3.026	1.000	0.576	0.362	0.691	0.292
외부 경관과 건축의 조화	3.421	3.553	1.737	1.000	0.500	1.839	0.404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3.500	3.816	2.763	2.000	1.000	2.750	0.500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2.237	2.237	1.447	0.544	0.364	1.000	0.325
추모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4.500	4.447	3.421	2.474	2.000	3.0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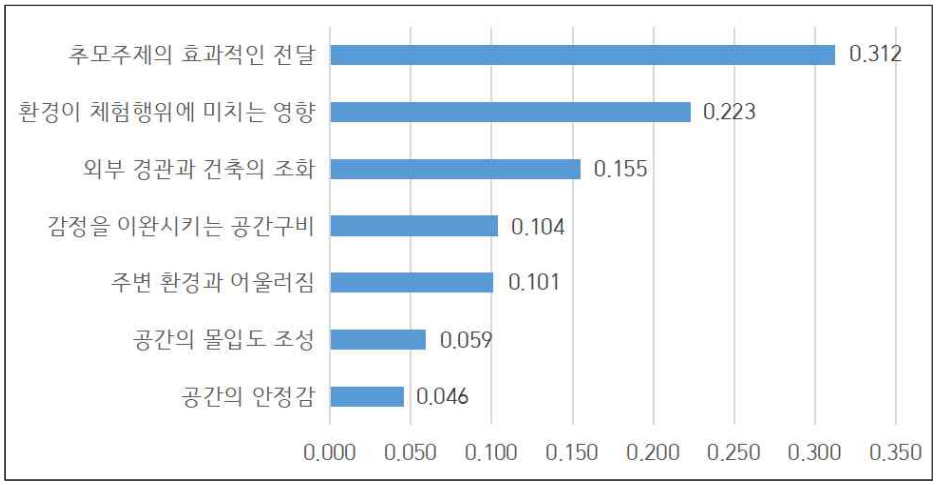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52] 환경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공간의 몰입도 조성	0.414	5.912%	7.210	0.035
공간의 안정감	0.320	4.576%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0.706	10.083%		
외부 경관과 건축의 조화	1.086	15.518%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1.562	22.310%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0.727	10.386%		
추모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2.185	31.215%		

[표 4-53] 환경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7.210	0.035	1.360	0.026	채택



[그림 4-14] 환경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전체요소'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전체요소 영역의 5개 세부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54〉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32명(64%)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3%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전체요소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35.18%),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25.52%),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16.67%),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15.57%),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7.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4] 전체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1.000	0.463	0.235	0.306	0.336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2.158	1.000	0.463	0.409	1.740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4.263	2.158	1.000	1.734	2.278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3.263	2.447	0.577	1.000	1.460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2.974	0.575	0.439	0.6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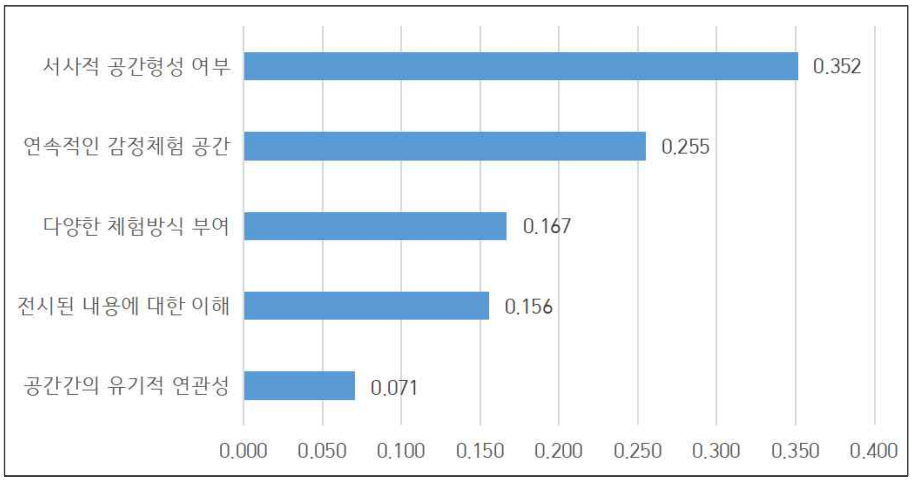
[표 4-55] 전체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0.353	7.058%	5.133	0.033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0.834	16.671%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1.759	35.183%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1.276	25.520%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0.778	15.569%		

[표 4-56] 전체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5.133	0.033	1.120	0.030	채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4-15] 전체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7) '사회요소'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사회요소 영역의 6개 세부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57〉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관성 지수가 확보된 49명(98%)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일관성 비율은 1.70%를 기록하여 허용범위(10%) 안에 있었다.

사회요소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감정의 치유 기능(30.77%),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28.18%), 애도의 기능(14.26%),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12.70%),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8.90%), 일상적인 체험(5.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7] 사회요소의 AHP 데이터

요소명	일상적인 체험	애도의 기능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해설 설비스 제공여부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감정의 치유 기능
일상적인 체험	1.000	0.603	0.639	0.845	0.521	0.507
애도의 기능	1.658	1.000	1.399	1.802	0.559	0.655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1.566	0.715	1.000	1.684	0.514	0.551
해설 설비스 제공여부	1.184	0.555	0.594	1.000	0.447	0.5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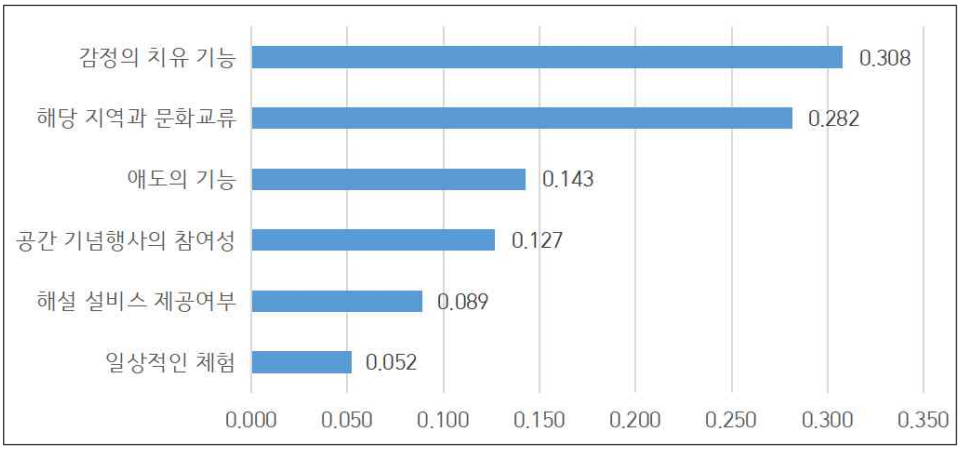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1.921	1.789	1.947	2.237	1.000	0.784
감정의 치유 기능	1.974	1.526	1.816	1.947	1.276	1.000

[표 4-58] 사회요소의 AHP 분석결과

요소명	고유벡터	가중치	최대고유치	CI
일상적인 체험	0.627	10.451%	6.060	0.012
애도의 기능	1.011	16.855%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0.852	14.207%		
해설 설비스 제공여부	0.634	10.568%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1.421	23.686%		
감정의 치유 기능	1.454	24.234%		

[표 4-59] 사회요소의 평가항목 일관성 검증

최대고유치	CI	RI	CR	평가항목의 일관성 검증결과
6.060	0.012	1.260	0.009	채택



[그림 4-16] 사회요소 세부지표의 AHP 중요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4 연구 결과 및 지표 우선순위 종합

전체 평가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요소(19.11%) 〉 감지요소(18.42%) 〉 구조요소(17.72%) 〉 환경요소(15.94%) 〉 조형요소(15.76%) 〉 사회요소(13.05%)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세부지표의 전체 우선순위를 보면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1위),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2위), 공간 배치의 적절성(3위),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4위),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5위),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6위), 정보 획득의 용이성(7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메모리얼공간은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공간으로서 체험의 정서적 서사 효과를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변화된 공간조형과 공간의 합리적 배치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확보된 기본적인 기능 공간 외에 과도, 추적, 명상 등 다양한 공간체험을 활용해 관람자의 시각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주제 전달 과정에서의 유효성과 연속적인 감정의 변화, 그리고 메모리얼공간에서의 정보 획득의 용이성도 현대 메모리얼공간 체험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반면 공간의 안정감 , 사유공간 , 공간의 몰입도 조성 ,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 조형물의 독창성 같은 평가지표는 다크투어리즘 체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각과 행동 관련 요소보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공간의 기획과 검토 시 공간의 감지와 행동 체험과 관련된 요소는 평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60] 공간평가 항목 AHP 결과 종합

공간 평가영역 (중요도)	No.	세부 지표	영역 내		전체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감지 요소 (0.184)	1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0.268	1	0.049(0.0493)	5
	2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0.115	4	0.021	20
	3	재질 촉감의 체험	0.078	6	0.014 (0.01435)	28
	4	정보 획득의 용이성	0.237	2	0.044	7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0.215	3	0.040	8
	6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0.088	5	0.016 (0.162)	26
조형 요소 (0.158)	7	조형물의 독창성	0.076	5	0.012	33
	8	조형의 은유적 특징	0.119	4	0.019	22
	9	외관 디자인의 유도	0.119	3	0.019	23
	10	공간 질서유무	0.235	2	0.037	9
	11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0.378	1	0.060	2
	12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0.073	6	0.012	34
구조 요소 (0.177)	13	사유공간	0.045	7	0.008	36
	14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0.137	3	0.024	17
	1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 활용	0.192	2	0.034	11
	16	공간 배치의 적절성	0.307	1	0.054	3
	17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0.129	4	0.023	18
	18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0.113	5	0.020	21
	19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0.077	6	0.014 (0.01363)	30
환경 요소 (0.159)	20	공간의 몰입도 조성	0.059	6	0.009	35
	21	공간의 안정감	0.046	7	0.007	37
	22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0.101	5	0.016 (0.161)	27
	23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0.155	3	0.025	16
	24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0.223	2	0.035	10
	2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0.104	4	0.017	25
	26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0.312	1	0.050	4
전체 요소 (0.191)	27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0.071	5	0.014 (0.01356)	32
	28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0.167	3	0.032(0.0319)	12
	29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0.352	1	0.067	1
	30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0.255	2	0.049(0.0487)	6
	31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0.156	4	0.030	15
사회 요소 (0.130)	32	일상적인 체험	0.105	6	0.014 (0.01359)	31
	33	애도의 기능	0.169	3	0.022	19
	34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0.142	4	0.018	24
	35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0.106	5	0.014(0.0137)	29
	36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0.237	2	0.031	14
	37	감정의 치유 기능	0.242	1	0.032(0.0315)	13

주: 중요도 값이 같은 경우 소수점 셋째 이상 자리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 책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5 평가지표 점수화

(1) 평가항목별 변환점수 계산

중요도와 가중치 분석이 완료된 지표들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점수화하였다. 평가영역 간 변환점수를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출한 결과표는 〈표 4-61〉와 같이 전체요소 항목에 가장 높은 19점의 점수가 결정되었으며 사회요소가 13점으로 가장 적은 점수가 배점되었다.

[표 4-61] 평가항목별 변환점수

평가영역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감지요소	0.184	0.184×100	18.0
조형요소	0.158	0.158×100	16.0
구조요소	0.177	0.177×100	18.0
환경요소	0.159	0.159×100	16.0
전체요소	0.191	0.191×100	19.0
사회요소	0.130	0.130×100	13.0
총계	1.000	-	100.0

(2) 감지요소 항목

감지요소 항목은 18.0점을 기준으로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이 4.8점, 정보 획득의 용이성 4.3점,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3.9점,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2.1점,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1.6점, 재질 촉감의 체험이 1.4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2] 감지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0.268	0.268×18.0	4.8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0.115	0.115×18.0	2.1
재질 촉감의 체험	0.078	0.078×18.0	1.4
정보 획득의 용이성	0.237	0.237×18.0	4.3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0.215	0.215×18.0	3.9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0.088	0.088×18.0	1.6
총 계	1.000	-	18.0(18.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조형요소 항목

조형요소 항목은 16.0점을 기준으로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이 6.0점, 공간 질서유무 3.8점, 외관 디자인의 유도와 조형의 은유적 특징 1.9점, 조형물의 독창성과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이 1.2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3] 조형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조형물의 독창성	0.076	0.076×16.0	1.2
조형의 은유적 특징	0.119	0.119×16.0	1.9
외관 디자인의 유도	0.119	0.119×16.0	1.9
공간 질서유무	0.235	0.235×16.0	3.8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0.378	0.378×16.0	6.0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0.073	0.073×16.0	1.2
총 계	1.000	-	16.0

(4) 구조요소 항목

구조요소 항목은 18.0점을 기준으로 공간 배치의 적절성 5.5점,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 활용 3.5점,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2.5점,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2.3점,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2.0점,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1.4점, 사유공간이 0.8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4] 구조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사유공간	0.045	0.045×18.0	0.8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0.137	0.137×18.0	2.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 활용	0.192	0.192×18.0	3.5
공간 배치의 적절성	0.307	0.307×18.0	5.5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0.129	0.129×18.0	2.3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0.113	0.113×18.0	2.0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0.077	0.077×18.0	1.4
총 계	1.000	-	18.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환경요소 항목

환경요소 항목은 16.0점을 기준으로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5.0점,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3.6점,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2.5점,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1.7점,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1.6점, 공간의 몰입도 조성 0.95점, 공간의 안정감 0.74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5] 환경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공간의 몰입도 조성	0.059	0.059×16.0	0.95
공간의 안정감	0.046	0.046×16.0	0.74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0.101	0.101×16.0	1.6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0.155	0.155×16.0	2.5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0.223	0.223×16.0	3.6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0.104	0.104×16.0	1.7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0.312	0.312×16.0	5.0
총 계	1.000	-	16.0(16.1)

(6) 전체요소 항목

전체요소 항목은 19.0점을 기준으로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6.7점,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4.8점,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3.2점,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3.0점,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1.3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6] 전체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0.071	0.071×19.0	1.3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0.167	0.167×19.0	3.2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0.352	0.352×19.0	6.7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0.255	0.255×19.0	4.8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0.156	0.156×19.0	3.0
총 계	1.000	-	19.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사회요소 항목

사회요소 항목은 13.0점을 기준으로 감정의 치유 기능이 3.2점,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이 3.1점, 애도의 기능이 2.2점,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이 1.8점,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이 1.4점, 일상적인 체험이 1.4점으로 변환되었다.

[표 4-67] 사회요소 세부항목 변환점수

세부항목	가중치	수식	변환점수
일상적인 체험	0.105	0.105×13.0	1.4
애도의 기능	0.169	0.169×13.0	2.2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0.142	0.142×13.0	1.8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0.106	0.106×13.0	1.4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0.237	0.237×13.0	3.1
감정의 치유 기능	0.242	0.242×13.0	3.2
총 계	1.000	-	13.0(13.1)

4.4.6 최종 공간평가지표의 가중치 개발

앞에서 도출된 변환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평가지표가 〈표 4-68〉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종합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하여 평가지표들은 5점 척도인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공간평가 평가점수표 계산식은 아래 〈그림 4-17〉과 같다.

매우높음 환산점수 = 가중치를 이용한 변환점수
높음 환산점수 = (4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보통 환산점수 = (3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낮음 환산점수 = (2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매우낮음 환산점수 = (1점 × 매우 양호 환산점수) / 5

[그림 4-17] 공간평가 평가점수표 계산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68] 최종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종합표

공간 평가 요소	세부 지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감지 요소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4.8	3.8	2.9	1.9	1.0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2.1	1.7	1.3	0.8	0.4
	재질 촉감의 체험	1.4	1.1	0.8	0.6	0.3
	정보 획득의 용이성	4.3	3.4	2.6	1.7	0.9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3.9	3.1	2.3	1.6	0.8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1.6	1.3	1.0	0.6	0.3
	총계	18	14.4	10.9	7.2	3.7
조형 요소	조형물의 독창성	1.2	1.0	0.7	0.5	0.2
	조형의 은유적 특징	1.9	1.5	1.1	0.8	0.4
	외관 디자인의 유도	1.9	1.5	1.1	0.8	0.4
	공간 질서유무	3.8	3.0	2.3	1.5	0.8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6.0	4.8	3.6	2.4	1.2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1.2	1.0	0.7	0.5	0.2
	총계	16	12.8	9.5	6.5	3.2
구조 요소	사유공간	0.8	0.6	0.5	0.3	0.2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2.5	2.0	1.5	1.0	0.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 활용	3.5	2.8	2.1	1.4	0.7
	공간 배치의 적절성	5.5	4.4	3.3	2.2	1.1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2.3	1.8	1.4	0.9	0.5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2.0	1.6	1.2	0.8	0.4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1.4	1.1	0.8	0.6	0.3
	총계	18	14.3	10.8	7.2	3.7
환경 요소	공간의 몰입도 조성	0.95	0.8	0.6	0.4	0.2
	공간의 안정감	0.74	0.6	0.4	0.3	0.1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1.6	1.3	1.0	0.6	0.3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2.5	2.0	1.5	1.0	0.5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3.6	2.9	2.2	1.4	0.7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1.7	1.4	1.0	0.7	0.3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5.0	4.0	3.0	2.0	1.0
	총계	16	13	9.7	6.4	3.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체 요소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1.3	1.0	0.8	0.5	0.3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3.2	2.6	1.9	1.3	0.6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6.7	5.4	4.0	2.7	1.3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4.8	3.8	2.9	1.9	1.0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3.0	2.4	1.8	1.2	0.6
	총계	19	15.2	11.4	7.6	3.8
사회 요소	일상적인 체험	1.4	1.1	0.8	0.6	0.3
	애도의 기능	2.2	1.8	1.3	0.9	0.4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1.8	1.4	1.1	0.7	0.4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1.4	1.1	0.8	0.6	0.3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3.1	2.5	1.9	1.2	0.6
	감정의 치유 기능	3.2	2.6	1.9	1.3	0.6
	총계	13	10.5	7.8	5.3	2.6
총 계		100	80.0	60.0	40.0	20.0

4.4.7 공간항목 평가함수 개발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공간평가 6개 영역 및 37개 세부지표에 대한 전체적인 복합 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ext{Total Weight}(TW)_j(1) = \sum_{i=1}^{n} wi \cdot x_{ij}$$

여기서 $TW_j(1)$: j번째 공간평가 영역(감지요소, 조형요소, 구조요소, 환경요소, 전체요소, 사회요소)의 종합 가중치, w_i : 영역별 세부지표(i)의 상대적 가중치, x_{ij} : 영역별 세부지표(i)에 대한 j번째 공간평가 영역에 대한 가중치, n은 j번째 공간평가 영역에 들어있는 세부지표(i)의 개수를 나타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5 소결

본 절에서는 앞서 추출한 37개 평가지표에 대해 AHP 중요도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결과에 따라 각 요소 및 그 세분화된 지표를 중요도 순서로 정렬 및 점수 변환하여 각 지표의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공간 평가모형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모형은 모든 메모리얼공간 및 일부 감정에 관련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메모리얼공간에 이 평가모형을 도입하여 공간구획의 과정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기념공간의 체험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모형에 따르면 메모리얼공간이 얼마나 공간평가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통해 공간의 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할 수 있다. 평가는 재학생과 교직원, 박물관 업계 전문가, 전문 디자이너, 메모리얼공간의 관계자, 그리고 다크투어리즘의 동호인 등이 주체가 되어 분석했다.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하고, 메모리얼공간 체험도를 만들고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평가 방법의 검증 및 분석

5.1 평가모형의 검증공간 선정

5.2 평가 검증 분석

5.3 메모리얼공간 평가모형 개발

5.4 소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장 평가 방법의 검증 및 분석

5.1 평가모형의 검증공간 선정

5.1.1 공간 선정 기준

평가모형이 검증한 공간 선정 기준은 https://www.dark-tourism.com(다크 투어리즘 사이트)에서 중등 이상(Darkometer ranking list 4이상)으로 선정하고 2010년 이후 신축한 메모리얼공간이다. 공간평가를 통해 메모리얼공간이 지방 특성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활성화하고, 특색관광을 통한 지역경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중국 흑룡강(黑龍江)성 하얼빈(滨滨市)시 평방(平房)구에 있는 731부대 죄증진열관[147]을 선정했다. 731부대 죄증진열관은 유적형 전시관이다. 1933년 창설된 제731부대는 이시이부대, 도고부대, 관동군 방역급수부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세균전, 인체실험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 직전에 멸망했다. 731부대가 패주하는 동안 대부분의 건축이 파괴되어 현재 유적의 전체적인 구도가 형성되었다. 2015년 8월에 개관한 신관은 역사유적과 메모리얼공간이 결합된 현대적인 메모리얼공간으로 유적, 입구, 기념행사, 전시, 명상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과 구성측면에서 이번 평가 검증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5.1.2 선택된 공간의 상황 개술

(1) 공간 특성

147) 사례선정설명: 국가와 지역에 따라 메모리얼공간의 명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기능, 구성에 따라 다크투어리즘과 기능공간이 잘 갖추어진 죄증관, 역사관, 기념당 등을 표본추출의 주요 범위로 보고 연구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31부대 유적지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지로서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너진 벽과 기와가 끊어진 건축, 고요하고 아득한 사석, 끝없이 이어지는 레일, 높고 소슬한 느릅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어 설계 이전에 이미 특유의 장소적 기질이 조성된 곳이기도 하다.

새로운 건축의 규모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가는 주요 전시공간을 지하로 가라앉히고, '부서진 블랙박스'는 무너진 장소 위로 기울어졌고, 잿빛 면은 광장의 면으로 이어졌다. '기울어진' 몸체는 디자인의 척도에 있고, 또 하나의 디자인적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광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니 전시관은 약간의 지형적인 기복이 있을 뿐, 인공기하학적이지만 자연이 빚어낸 경관 같기도 하다. 갈라진 부분의 존재는 '블랙박스'가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변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조형, 색채, 재질을 포함한 디테일은 건축 환경에서의 은폐를 뒷받침했다.

[표 5-1] 731 부대 죄증 진열관 현황

명칭	731 부대 죄증 진열관		
위치	중국 흑룡강(黑龍江)성 하얼빈(濱濱市)시	개관 연도	2015년8월
설계자	하경당 예양 하소흠	설계팀	화남이공대 건축디자인연구원
주요용도	기념시설물	건축면적	9,997㎡
규모	B1 - 2F	구분	기념관, 기념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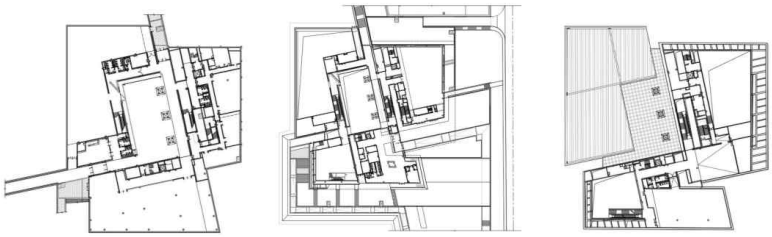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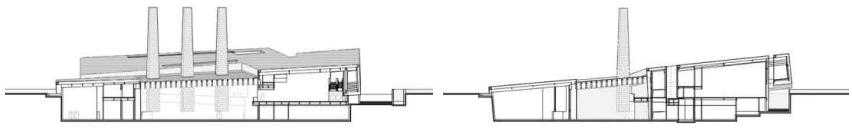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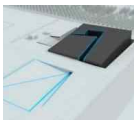
경관은 칼로 바닥을 긁은 뒤 형성된 '흔적' 같다. 흰색 광장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의 시야를 바닥 아래로 안내시킨다. 광장에 나무 조각 두 개가 처참한 광경을 이루며 특별한 주제의 공간에 들어갈 것을 암시한다. 변두리에 둘러싸인 콘크리트 벽체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졌고, 주변의 공장과 건축 등 어수선한 환경과는 모두 격리됐다. 건축물 입구에는 거울 같은 얕은 연못이 있고, 물속에는 조각 같은 건축물 덩어리가 거꾸로 비추어져 시각적인 연장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의 범죄는 실물 전시, 판넬 전시, 멀티미디어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공간적 정체가 이뤄진다. 또 침하광장에는 기념장소를 제공해 관람자들이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한다. 명사홀(冥思厅)은 두 축이 정사각형의 건축 평면을 통과해 마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몸에 새겨진 흉터를 방불케 한다. 한 축은 진열관의 주 입구를, 다른 하나는 보일러실 원주소를 가리킨다. 두 축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3개의 굴뚝을 설계해 생체(活体)를 태우는 장치를 상징하고 전시 내용을 심화시켜 감정의 절정을 이룬다.

(2) 공간 구성

[표 5-2]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의 공간 구성

<table>
<tr><th colspan="6">731 부대 죄증 진열관[148]</th></tr>
<tr><td>구분</td><td colspan="5">내용</td></tr>
<tr><td>평면도</td><td colspan="5"> 
B1층 1층 2층</td></tr>
<tr><td>단면도</td><td colspan="5">  </td></tr>
<tr><td colspan="6">공간 구성</td></tr>
<tr><td>전체구조</td><td>외부 공간</td><td>추모공간</td><td>전시공간</td><td>연결공간</td><td>명상 공간</td></tr>
<tr><td>복합적 공간</td><td>주변 환경과 어우러짐</td><td>다양한 추모행사</td><td>다양한 전시공간</td><td>내외부를 연결하는 과도공간</td><td>건축의 명상공간</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148) 하서흠, 하경당, 예양.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 설계". 시대건축, vol.2016,no.5, 2016, p.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2 평가 검증 분석

5.2.1 표본 설정 및 조사

표본은 진열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뒤 유선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이다. 이번 조사에는 6명의 관리자한테 심층 면접을 했다. 내용은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현상학적 평가항목 지표(표 4-34)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차 중요도 조사(AHP) 통계 분석 등이다. 전문가 FGI 심층면접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가 높고 표준편차가 낮은 항목에 대해 평가요소 유형별로 한 문제씩을 골라 질문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평가항목 지표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향후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가 평가자에게 제공하는 공간평가항목 지표는 평가자에게 가중치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1~5점 척도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평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A, B, C, D, E, F로 표기했다.

5.2.2 공간 평가 검증

평가지표 검증을 위해 평가자 6명의 설문 응답을 합산했다. 조사결과는 공간평가 점수로 표시되며 오른쪽 값은 항목별 세부지표 평균값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3] 731 부대 죄증 진열관 공간평가 결과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내용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평가자 F					평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감지 요소 (6)	1				■					■				■						■				■						■		3.7
	2			■						■				■						■				■					■			3.3
	3				■				■					■						■					■					■		3.8
	4					■				■					■						■				■				■			4.2
	5					■				■					■					■					■					■		4.5
	6				■				■						■					■					■					■		4.2
조형 요소 (6)	7					■				■					■					■						■				■		4.2
	8					■					■				■					■						■					■	4.5
	9					■					■				■						■					■					■	4.7
	10				■					■					■				■						■				■			3.7
	11					■			■						■						■			■						■		4.0
	12					■			■						■						■				■				■			4.0
구조 요소 (7)	13					■			■						■					■						■				■		4.0
	14					■				■				■							■					■					■	4.3
	15					■				■				■							■					■					■	4.3
	16					■				■					■						■					■					■	4.5
	17					■				■					■					■					■					■		4.2
	18				■					■					■					■					■				■			3.8
	19				■				■						■					■					■				■			3.7
환경 요소 (7)	20					■			■						■					■						■				■		4.3
	21					■			■					■						■						■				■		3.8
	22					■				■					■						■					■					■	4.3
	23					■				■					■						■					■					■	4.3
	24				■			■							■					■					■				■			3.5
	25				■			■							■					■					■				■			3.5
	26					■				■						■					■						■				■		4.7
전체 요소 (5)	27				■				■					■						■					■					■		3.7
	28					■			■						■						■					■				■			4.0
	29					■				■					■					■						■				■			4.2
	30					■				■					■						■					■					■		4.5
	31				■					■					■					■						■					■		4.2
사회 요소 (6)	32					■				■				■						■				■					■			3.7
	33				■					■					■					■						■				■			4.0
	34					■				■				■							■					■					■		4.0
	35				■				■						■						■					■					■		4.0
	36				■					■					■					■						■					■		4.0
	37					■				■					■					■						■						■	4.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간평가결과에서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감지 요소에서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4.5점을 받았다. 조형 요소에서 외관 디자인의 유도가 높은 만족도로 4.7점을 받았다. 구조 요소에서 공간 배치의 적절성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4.5점을 받았다. 환경 요소에서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이 높은 만족도로 4.7점을 받았다. 전체 요소에서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4.5점을 받았다. 사회 요소에서 감정의 치유 기능이 4.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반면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 공간 질서유무 ,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 일상적인 체험 등 평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본 사례공간이 조형구조와 행동 측면에서의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차원적 감각 및 세부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공간평가 요소를 긍정적으로 나열하면 조형 요소(4.2), 구조 요소, 환경 요소, 전체 요소(4.1), 사회 요소(4.0), 감지 요소(3.9) 순으로 조형 요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지표의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자 6명의 공간평가 결과〈표5-3〉를 항목별 가중치 종합표(표 4-68)에 도입해 수치화한 결과 세부지표 평가점수 결과가 나왔다. 〈표5-4〉를 보면 평가자 A(93.2점), 평가자 D(89.9점), 평가자 E(86.9점), 평가자 C(77.4점), 평가자 B(74.7점), 평가자 F(73점) 등 평가자별로 공간평가에 대한 점수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5-4] 공간평가 세부지표 평가점수 결과

평가 항목	세부지표 내용	세부지표 평가점수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평가자 F
감지 요소 (6)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3.8	3.8	2.9	3.8	2.9	3.8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1.3	1.7	1.3	1.7	1.3	1.3
	재질 촉감의 체험	1.1	0.8	0.8	1.1	1.4	1.1
	정보 획득의 용이성	4.3	3.4	3.4	4.3	3.4	2.6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3.9	3.1	3.1	3.9	3.9	3.1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1.3	1.0	1.3	1.6	1.6	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형 요소 (6)	조형물의 독창성	1.2	1	1	1	1.2	0.7
	조형의 은유적 특징	1.9	1.9	1.5	1.5	1.9	1.5
	외관 디자인의 유도	1.9	1.9	1.5	1.9	1.9	1.5
	공간 질서유무	3	3	3	2.3	3	2.3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6	3.6	4.8	6	3.6	4.8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1.2	0.7	1	1.2	1	0.7
구조 요소 (7)	사유공간	0.8	0.5	0.6	0.6	0.8	0.5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2.5	2	1.5	2.5	2.5	2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3.5	2.8	2.1	3.5	3.5	2.8
	공간 배치의 적절성	5.5	4.4	4.4	5.5	5.5	4.4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2.3	1.8	1.8	1.8	1.8	1.8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1.6	1.6	1.6	1.6	1.6	1.2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1.1	0.8	1.1	1.1	1.1	0.8
환경 요소 (7)	공간의 몰입도 조성	0.95	0.6	0.8	0.95	0.95	0.8
	공간의 안정감	0.74	0.4	0.4	0.6	0.74	0.4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1.6	1.3	1.3	1.6	1.3	1.3
	외부 경관과 건축의 조화	2.5	2	2	2.5	2	2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2.9	1.4	2.9	2.9	2.9	2.2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1.4	0.7	1.4	1.4	1.4	1
	추모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5	4	5	5	5	4
전체 요소 (5)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1	0.8	0.8	1	1	1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3.2	1.9	2.6	3.2	2.6	1.9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6.7	5.4	5.4	5.4	6.7	4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4.8	3.8	3.8	4.8	4.8	3.8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2.4	2.4	2.4	2.4	3	2.4
사회 요소 (6)	일상적인 체험	1.4	1.1	0.8	1.1	0.8	0.8
	애도의 기능	1.8	1.8	1.8	1.8	2.2	1.3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1.8	1.4	1.1	1.8	1.4	1.1
	해설 설비스 제공여부	1.1	0.8	1.1	1.4	1.1	1.1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2.5	2.5	2.5	2.5	2.5	2.5
	감정의 치유 기능	3.2	2.6	2.6	2.6	2.6	3.2
	평가자별 총점(100점 만점)	**93.2**	**74.7**	**77.4**	**89.9**	**86.9**	**7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구사회학 통계의 점수 현황에 따르면 근무연수나 근무부서에 따라 비슷한 점수 분포를 정할 수 있다. 메모리얼공간을 참관한 누구나 평가를 할 수 있고, 점수에 따라 관리자와 일반 관람자 간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다. 일반 관람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점수를 빼고 최종점수만을 종합평가할 수 있다. 메모리얼공간 계획 설계나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백분율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점수에 따라 지표 보완을 할 수 있다.

5.3 메모리얼공간 평가모형 개발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관광체험을 위한 현상학적 평가의 최종모형은 〈표 5-6〉과 같다. 이 모형은 〈표 5-5〉의 함수관계를 가지며, 이를 이용하여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

[표 5-5] 공간평가가 가진 함수

공간평가 함수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공간평가 6개 영역 및 37개 세부지표에 대한 전체적인 복합 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otal Weight$(TW)_j(1) = \sum_{i=1}^{n} wi \cdot x_{ij}$ 여기서 $TW_j(1)$: j번째 공간평가 영역(감지요소, 조형요소, 구조요소, 환경요소, 전체요소, 사회요소)의 종합 가중치, w_i : 영역별 세부지표(i)의 상대적 가중치, x_{ij} : 영역별 세부지표(i)에 대한 j번째 공간평가 영역에 대한 가중치, n은 j번째 공간평가 영역에 들어있는 세부지표(i)의 개수를 나타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6] 메모리얼공간평가모형

공간요소 / 배점	평가 내용	배점	평가 결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감지요소 18점	메모리얼공간은 그림과 영상 요소를 충분하게 사용했는가?	4.8					
	메모리얼공간의 음향적 요소들은 체험 내용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가?	2.1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의 촉감적 체험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했는가?	1.4					
	관람자들은 전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4.3					
	메모리얼공간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체험만족도를 한 단계를 향상시켰는가?	3.9					
	메모리얼공간에 적용된 색채는 추모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1.6					
조형요소 16점	메모리얼공간은 여러 추모 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구조 및 조형물을 활용했는가?	1.2					
	메모리얼공간의 외관은 은유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1.9					
	메모리얼공간은 외관 디자인을 이용해 관람자의 동선 유도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1.9					
	메모리얼공간은 유질서과 무질서한 조형 디자인을 통해 체험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	3.8					
	벽면의 조형 변화(펀칭, 분할 등)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공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는가?	6.0					
	메모리얼공간은 체험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테일 부분까지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1.2					
구조요소 18점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및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가?	0.8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잇고 있는 관람자의 동선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2.5					
	메모리얼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빛을 활용한 요소가 있는가?	3.5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배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5					
	다양한 방식의 행위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2.3					
	바닥, 천장, 벽면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간에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부여했는가?	2.0					
	전이공간(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 부분)은 관람자의 효과적인 체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1.4					
환경요소 16점	관람자가 신속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0.95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0.74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러 진다고 생각하는가?	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모리얼공간의 외부 경관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2.5					
	경관도로의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6					
	감정을 이완시키는 휴식공간을 구비하는가?	1.7					
	메모리얼공간에 조성된 분위기는 추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5.0					
전체요소 19점	메모리얼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1.3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체험 방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가?	3.2					
	공간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서사가 지닌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6.7					
	메모리얼공간에는 연속적인 감정체험 노드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4.8					
	관람자들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0					
사회요소 13점	메모리얼공간은 일상적인 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1.4					
	기념과 애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는가?	2.2					
	정기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가?	1.8					
	직업과 연령에 따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1.4					
	메모리얼공간은 해당 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3.1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심리 치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	3.2					
100점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4 소결

평가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을 표본으로 하여 공간평가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평가의 세부항목은 평가자의 주관성, 업무의 차별성 등에 영향을 받아 차이가 컸다. 세부지표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평가자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뚜렷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공간의 조형 요소 평가항목은 평가항목 중 평균이 높았다.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모리얼공간은 다양한 공간조형물을 활용하여 기념의 분위기를 살리고, 전시장 디자인부터 건축디자인까지 다양한 조형을 통해 관람자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깊게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기념 주제 전달, 합리적인 공간 배치 등이 관람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체험의 다양성을 감지하고 일상체험을 계획하는 데도 일부 결함으로 인해 참여도에 대한 영향을 미쳐 평가항목의 평균이 낮았다. 전체 요소, 구조 요소, 환경 요소등 몇몇 항목의 평균점수에서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평가모형은 메모리얼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모형이다. 연구에서 명확한 검증 결과를 얻기 위해 메모리얼공간 관련 관리자 6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공간평가에 대한 평가자별 점수 차이는 채점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점수의 높낮이가 다른 관리자들의 사회학적 특징을 보면 근무연수나 근무부서에 따른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6.2 향후 연구 방향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장 결론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지금까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축 분야에서 메모리얼공간의 방향성에 대해 이루어졌었다.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관광체험에 있어서 사람의 감각과 행동, 전체적인 관점으로서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축이나 기획 단계에서 거쳐야 할 공간평가에 대한 연구도 미비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메모리얼공간이 다크투어리즘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정신적 상징을 구현하고 정서의 공간, 다양한 노드 체험, 다차원적인 공간 서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체험에 각 요소와 전체의 관계, 그리고 어떤 요소가 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방향만 제시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도시에서 메모리얼공간의 역할을 향상시킬 때 공간과 사회문화의 관계, 그리고 다크투어리즘 관광장소로서의 관람객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성, 사회성, 참여성에 기반한 현상학적 공간평가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체험의 관점에서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 관광체험을 기념하는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메모리얼공간이나 이와 관련된 정서적 공간의 관람객들이 이 공간을 체험할 때 공간계획과 조직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상학의 관점으로 공간을 분석하여 메모리얼공간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현상학의 기본적 관점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기념하는 현상학적 공간평가 프로그램 예비지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FGI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평가항목의 적합 여부 및 세부지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AHP 중요도 조사를 통해 평가요소별 평가 가중치를 정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평가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활용하여 검증 및 평가 분석을 진행해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메모리얼공간의 개념, 기능, 특성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선행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로 연구내용별로 분류 및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메모리얼공간은 전통적인 획일적인 기념수요에서 감정, 서사, 부흥적 기능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메모리얼공간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다크투어리즘 체험 차원에서 공간을 평가하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현상학 공간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공간 평가요소로써 체험자와 공간 환경의 연계를 만들고 감각과 행동체험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가 메모리얼공간체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과 현상학 서로의 관계를 발견하고, 현상학적 공간평가방법을 제시하여 사람, 공간, 환경, 문화를 행위, 정신에 이르는 전체적인 체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1차 중요도 조사에서 전문가와 예비 전문가가 공간 세부 지표에 대한 점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SPSS25.0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공간 요소평가지표와 관련된 문제의 중요도는 전체 요소, 감지 요소, 구조 요소, 환경 요소, 조형 요소, 사회적 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전체 요소 평가지표의 중요성이 가장 높았는데 FGI 심층면접을 통해 일부 비슷한 평가 항목을 통합해 세밀하게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은 공간 기획, 체험코드 조직, 환경 분위기의 디자인 등이 체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1차 중요도 조사와 전문가 FGI 심층 인터뷰에 따른 평가지표, 2차 전문가 AHP 중요도 조사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했다. 1급 지표 가중치는 전체요소(19.11%), 감지요소(18.42%), 구조요소(17.72%), 환경요소(15.94%), 조형요소(15.76%), 사회요소(13.05%) 순이었다. 2급 세부 지표 중 상위 순위는 서사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간형성 여부(1위),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2위), 공간 배치의 적절성(3위),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4위),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5위),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6위), 정보 획득의 용이성(7위)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모리얼 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기념하는 현상학적 평가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공간정서적 체험에 대한 세부 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함수와 평가표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표본공간에 대한 평가모형을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감지요소에서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4.5점을 받았다. 조형 요소에서 외관 디자인의 유도가 높은 만족도로 4.7점을 받았다. 구조 요소에서 공간 배치의 적절성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4.5점을 받았다. 환경 요소에서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이 높은 만족도로 4.7점을 받았다. 전체 요소에서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4.5점을 받았다. 사회 요소에서 감정의 치유 기능이 4.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또 세부 지표별 평균 점수를 보면 평가자마다 평가지표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으로 뽑힌 건물과 공간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때문에 만족도 높고 낮은 태도 성향에서 구별됐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는 항목별 가중치 종합표를 토대로 산출해 평가자별 표본 공간 평가 총점을 도출했다. 총점수의 높낮이에 따라 평가자 A(93.2점), 평가자 D(89.9점), 평가자 E(86.9점), 평가자 C(77.4점), 평가자 B(74.7점), 평가자 F(73점) 순으로 매겨졌다. 70점 이상은 공간평가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고, 6명 평가자는 모두 70점 이상 평가해 다크투어리즘 체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라고 파악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 평가지표를 활용한 AHP 중요도 분석은 1등급 평가지표 6개와 2등급 세부 평가지표 37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공간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중요도에 따른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메모리얼공간은 전통의 한 기능적 특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문화와 메모리얼공간이 도시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더 주목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따라서 기념행사와 행위를 일상생활의 공간과 융합하여 메모리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간의 복합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몇 년간 관광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특히 메모리얼공간은 특별한 여행지로서 신세대 관광객들이 감각적인 자극과 정신적 체험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메모리얼공간은 다양한 발전추세를 보이며 문화와 정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중을 중심으로 신기술과 예술화된 서사를 접목한 복합적인 정서체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로 구축된 공간평가모형은 공간계획 및 기능혁신 과정에서의 기초를 조사하는 보조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각종 평가지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며, 체험이 부족한 해당 메모리얼공간의 참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6.2 향후 연구 방향성

본 연구는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상학적 요소를 도입한 공간평가체계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시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학적 선행연구에서는 현상학 공간적 관점이 박물관과 관련 공간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어 공간적 요소가 잘 제시되어 있지만, 메모리얼공간에 현상학적 관점이 도입되었을 때 메모리얼공간평가의 관련 요소에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많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다소 부족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검증하기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평가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공간으로 공간의 범위를 복합적인 메모리얼공간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복합적인 메모리얼공간뿐만 아니라 기능이 단일적인 기념경관, 명상공간, 추모공간 등 관련 공간에 도입과 평가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공간계획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간평가모형의 검증 단계에서 메모리얼공간 표본을 다양한 메모리얼공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아닌 하나의 표본으로 한정하여 공간평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조사 대상자를 관련 직원으로 선정해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범위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재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공간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메모리얼공간평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함께 공간별 평가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확장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일상생활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들에게 공간계획과 디자인에 있어서 메모리얼공간과 도시환경이 어우러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길 희망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단행본

- 노르베슈츠, 시식명 역. 장소정신 : 건축현상학으로 나아가다. 화중과기대 출판사, 2010.
- 류의근. 예술과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2001.
-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예술출판사, 1991.
- 안도 다다오, 백림 역. 안도 다다오 건축론.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03.
- 안은희. 건축의 욕망 환상 그리고 징후.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오영근. 건축 감성 디자인 언어. 시공문화사, 2002.
- 위나. 접힌 공간(Suffused Space).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19.
- 윤병화. 신박물관학. 신광문화사, 2015.
-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4.
- 이보아. 박물관 테크놀로지 : 인물과 기술의 융합으로 예술을 경영하다. 김영사, 2018.
-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2.
-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 최병식. 박물과 경영과 전략. 동문선, 2010.
- 최석영. 한국박물관 역사와전망. 민속원, 2012.
- 필립 조디디오(Philip Jodidio). I.M. 페이 전집. 북경연합출판유한공사, 2021.
- 필립 주디디오, 재닛 애덤스 스트롱, 이가결 역. 베이위밍 전집. 전자공업출판사, 2011.
- 하이데거, 진가영, 왕경절 역 존재와 시간. 생활·독서·신지삼련 서점, 2006.
- 후셀, 예량강 역. 현상학적 관념. 상해역문출판사, 1986.
- Daniel Libeskind. Breaking Ground Adventures in Life and Architecture. Penguin Group(USA)Incorporated, 2004.
- Henry Plummer. The Architecture of natural Light. The MonacelliPress, 2009.
- Juhani Pallasmaa, Hai Fang. Sensuous minimalism.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 200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Wiley, 2012.
- Lennon J. John. Malcolm Foley.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Continuum, 2000.
-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New Jersey: The Humanities Press, 1962.
- Patrichi Ioana Cristiana. Dark tourism: a niche segment for the romanian tourism.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2013.
- Peter Hohenhaus. Atlas of Dark Destinations: Explore the world of dark tourism. Laurence King Publishing, 2021.
-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A way of looking at things. Birkhäuser, 1999.
-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Birkhaüser, 2006.
- Pierre Von Meiss. Elements of Architecture. Von nostrandReinhold, 1986.
- Roppola. Designing for the Museum Visitor Experience. Routledge, 2014.
- Schultz C. Norberg . 김광현 역,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1997.
- Steven Holl, Juhani Pallasmaa & Alberto Perez-Gomex.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Urbanism. Special issue of A+U, 1998.
-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 Thomas L. Saaty. Applications and Theory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Decision Making for Strategic Decisions. Intechopen, 2016.
- Thomas L. Saat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 Hill, 198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위논문

박사학위

- 고광용. 현대 건축공간에 나타난 빛의 현상학적 지각과 공간 경험에 관한 연구. 2017.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윤정. 체험적 정서성으로서 공간 분위기의 생성방법 연구. 2016.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해리.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체험에 따른 감정적 애착 및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2021.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진호. 현대박물관의 전시내러티브 구조에 따른 의미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역사계박물관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진희. 뮤지엄 경험 담론과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2020.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희명. 기념관의 역사와 교육기능 연구-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배세연. 포스트메모리세대의 다크투어리즘을 위한 메모리얼 공간디자인 연구. 202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손은신. 현대 도시에서 기억 경관의 형성 과정과 표현 특성. 2021.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신동희. 전통건축 공간의 지각현상학적 오감체계 특성. 2018.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안희자. 디엠지(DMZ) 관광객의 다크투어리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18.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오수현, 대학도서관의 라키비움(Larchiveum)도입을 위한 공간평가 모형개발. 2021.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왕길. 다크투어리즘 목적지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제약요인이 브랜드자산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중 기념관의 비교. 2017.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왕월도. 주체의식 차원에서의 기념건축물 창작방법 구축 연구. 2014. 하얼빈 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우대성. 도시 기념적 건축의 건립 특성 연구.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우지연. 회복력 있는 도시 :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사학위.

- 윤태건. 사회적 애도를 위한 메모리얼 연구 :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승용. 박물관의 전시체계 및 내러티브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약성. 자체 디자인(Embodied Design). 2014. 청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역성. 몸매 디자인-한 가지 신체 각도의 건축설계 방법 시론. 2014. 청화대학교, 박사 학위
- 이주희. 박물관 실감콘텐츠(Immersive Contents) 이용에 따른 체험가치, 공동가치창출 태도 및 행동 간 구조관계 연구. 2021.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진경. 현대 기독교 건축공간에 나타난 비례 질서와 빛 현상의 시지각 관계에 관한 연구 : 르 코르뷔지에, 돔 한스 반 어 란, 알도 반 아이크 프로젝트 중심으로. 2019.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정현애. 5·18 기념공간의 변화와 활용 연구. 2018. 전남대학교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 준우선. 전쟁관(views of war)이 다크투어리즘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DMZ 방문객을 중심으로. 2018.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형형칠. 몸의 지각론에 의한 국내 건축도시 재생 연구.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황지영. 템플스테이 체험과 관광 진정성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van Manen 방법론을 중심으로. 2017.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석사학위

- 강민지. 다감각자극 표현요소에 의한 치유환경으로서 명상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규만. 다크투어리즘 스펙트럼별 유형분. 2016.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두이. 도심, 추모를 위한 건축 계획안. 2015.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명혜. 거제 포로수용소의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20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보현. 다크투어리즘 스펙트럼 분류표 분석에 의한 전시공간 연출계획에 관한 연구.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지영.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 분석 방법을통한 도미니크 페로 건축의 분석. 2015.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김지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메모리얼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2020.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지은. 문화시설로의 커뮤니티 메모리얼 : 서울숲 메모리얼 계획안.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하경. 기념관 건축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역사계 인물 기념관을 중심으로. 2020.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하나.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스토리텔링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심으로. 2014.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노정연. AHP를 활용한 Dark Tourism 선택속성 및 활성화 방안 :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2011.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랜디. 매슬로 수요층 이론에 기초한 도시 공공공간 경관설계. 2021. 중남임업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가은.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천주교순교자기념관의 전시스토리텔링 기획 연구. 2019.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건탁. 기념관 건축의 배치특성과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2020.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상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관광객의 선택속성과 방문동기가 관광지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 UN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중심으로. 2017.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현영. 다크투어리즘 공간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상징적 표현 특성 연구 : 칼 구스타프 융의 원형 이론 중심으로. 2020.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사금. 남경 중심지역의 전형적인 기념 정원 경관 평가연구. 2015. 남경농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 서보루카. DMZ 다크투어리즘 관광객 경험 분석 : 방문동기, 감정, 편익을 중심으로. 2018.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서희정. 메모리얼에서 집단기억 특성과 공간 연출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송경옥.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에 관한 고찰 : 역사교육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200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신새빛. 건축적 장치와 시퀀스를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전시관 건축방안 : 서대문형무소 부지 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체험전시계획을 중심으로.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악내화. 지각현상학에 기초한 기념 공간장 설계 연구. 2011. 하얼빈 공과대학교, 석사학위.
- 원에진. 고유한 신체의 경험을 통한 애도 공간 특성 연구 :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2020.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원종호. 한국기념공간의 구성특성과기억문화론적 해석. 201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유진근. 기념공원 디자인에 있어서 기념경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96.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윤여희. 치유환경에 있어서 추모공간의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경수. AHP 기법을 활용한 인도 발전사업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2018.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상열. 전쟁참사 기념건축의 감정표현 디자인 연구. 2016. 북경건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수우.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구성분석을 통한 기념관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지선. 노출 콘크리트 마감을 적용한 실내 공간 환경의 감성평가 연구 : 김옥길 기념관을 중심으로. 2015.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현아. 다층적 기억 : 재생의 패러다임과 메모리얼 건축의 변화 양상 : 윤동주문학관을 중심으로.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임방.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한·중 박물관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박물관 등급제도 사례를 중. 2018.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임화경. 영화의 내러티브 구성기법을 적용한 메모리얼(memorial) 공간디자인 연구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중심으로. 201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장민지. 기념관건축의 전이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장배현. 기념 건축공간의 장소정신 조성에 관한 연구. 2020.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세명. 서대문형무소 방문객의 동기유형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2017.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정홍민. 다감각적 건축공간을 적용한 세월호 추모공간 계획. 2018.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조시경. 공간의 서사기반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2018.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조정윤. 메모리얼 뮤지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연구. 201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조현희. 다크투어리즘의 장소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5.18 사적지의 장소마케팅 전략. 2012.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주학유. 현대 기념건축에 대한 연구 : 기념성의 개념정의와 기념건축의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2013.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진연호. 추모공간의 빛 표현 특성을 활용한 봉안당 디자인. 2021.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트리아나 외. 다크투어리즘 관광자의 감정반응 포지셔닝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대상으로. 2017.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한세미. 현상학적 관점으로 본 현대 뮤지엄 전시공간의 관람자와 대상에 관한 연구. 2013.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현화. 인물기념관의 전시공간 특성 및 전시연출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17.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학회논문

- 강기우. “기념 전시공간의 상징적 표현기법”. 과학기술혁신 가이드, vol.2008, no.13, 2008.
- 강재중. “현대건축의 현상학적 건축 특징을 위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 스티븐 홀, 안도 타다오, 피터 줌터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7, no.4, 2015.
- 강혁, 정영수. “현대건축에서 기념비성의 위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ol.12, no.1, 2003.
- 구덕화, 우휘. “기념건축의 공간형태 변천 및 디자인 트렌드 분석”. 화중건축, vol.36, no.11, 2018.
- 기쟁. “피터 에센만 인터뷰-유럽 유대인 희생자기념비 설계”. 세계건축, vol.2005, no.10, 2005.
- 김옥영, 노지화. “현대건축에 나타난 ‘여러 감각이 관여’하는 건축경험에 관한 연구 : 유하니 팔라스마의 건축이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3, no.3, 2021.
- 김자영. “피터 줌터의 작품에 나타난 재료와 빛의 공간적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르더 클라우스 채플과 콜룸바 뮤지움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0, no.5, 2011.
- 김주아, 황용섭, 이돈일. “현대 명상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2, 201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김주연. “박물관 전시디자인 평가방식과 도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8, no.6, 2002.
- 김현주. “뉴 투어리즘의 대안, 음식관광”. 한국관광정책, no.67, 2017.
- 김희근, 여영호.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2, 2019.
- 등파, 나려, 양녕. “노르베르그 슐츠의 건축현상 학설평”. 과학기술과 변증법, vol.26, no.2, 2009.
- 문은미. “관람자 체험을 고려한 메모리얼의 공간 표현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1, no.5, 2012.
- 문은미. “현대메모리얼의 개념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6, 2008.
- 박건탁, 정성문.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의 외부공간구성 특성 분석”.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o.73, 2021.
- 박상현, 이미순. “Dark Tourism(다크투어리즘) 관광객의 선택속성과 방문동기가 관광지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 UN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vol.31,no.4, 2019.
- 박석중, 문정인. “지역박물관 전시공간의 실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영동지역 박물관 실태조사를 중심”. 한국디자인포럼, vol.47, 2015.
- 박신화. “건축의 살(flesh) : 유하니 팔라스마(J. Pallasmaa)의 건축적 경험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79, 2018.
- 서희정, 이재규. “기념공간에서의 집단기억특성과 공간연출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4, 2017.
- 예량강. “건축현상학과 현상학적 건축술: 현상학과 건축(학)의 관계에 관한 사고”. 시대건축, vol.2008, no.5, 2008.
- 오충. “건축지각현상학과 문화건축의 연관성 해석”. 도시건설 이론연구, vol.5, no.2, 2015.
- 원예진, 김지은, 김개천. “고유한 신체의 경험을 통한 애도 공간 특성 연구 :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 vol.15, no.8, 2020.
- 유가흥. “재난기념공간 입구 공간의 다차원적 감정연출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8, no.2, 2020.
- 윤선영.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911 기념관의 전이공간 비교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o.49, 2015.
- 이상준, 김주연, 이종서. “피터줌터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o.1, 2009.

- 이정화.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베를린유대박물관”. 전시디자인연구, vol.9, no.1, 2012.
- 이정화.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베를린유대박물관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전시디자인연구, vol.2008, no.11, 2008.
- 이채원, 심혜정, 박명선. “복합문화공간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특성 분석 : M.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vol.23, no.3, 2020.
- 이초, 동량. “아사히쿠마 연고의 은밀한 건축의향”. 청도이공대학 학보, vol.35, no.4, 2014.
- 장현주, 박찬일.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 방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5, no.2, 2016.
- 적광영, 이정. “메모리얼공간의 네트워크화 전환과 그 문화적 영향”. 중주학간, vol.2019, no.2, 2019.
- 전민주, 김연정. “장소의 형성 요인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성 연구 : C. N. Schulz의 장소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1, 2018.
- 정려양. “현상학과 건축사승관계 도해”. 시대건축, vol.2008, no.6, 2008.
- 정태용. “노르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5, no.6, 2016.
- 팽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의 공간적 상징과 전시 서사”. 인테리얼, vol.2017, no.4, 2017.
- 하서흠, 하경당, 예양.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 설계”. 시대건축, vol.2016, no.5, 2016.
- 후장지. “현대 메모리얼공간 디자인 동향 분석”. 미와 시대(위), vol.2010, no.12, 2010.
- Ashworth. “The memorialisation of violence and tragedy: Human trauma as heritage. In B. Graham, & P. Howard (Eds.)”. The Ashgate companion to heritage and identity, 2008.
- Best. “Norfolk Island: Thanatourism, history and visitor emotions”. Shim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Island Cultures, vol.1, no.2, 2007.
- Duncan Light. “Progress in dark tourism and thanatourism research: An uneasy relationship with heritage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61, 2017.
- Ebru Erbas Gurler. Basak Ozer, “The Effects of Public Memorials on Social Memory and Urban Identity”.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82, 201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Johnson. The geographies of thanatourism. Geography, vol.100, no.1, 2015.
- Juhani Pallasmaa. “Design for Sensory Reality: From Visuality to Existential Experience”. Architectural Design, vol.89. no.6, 2019.
- Malcolm Foley&J, John Lennon. “Editorial: Heart of dark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2, no.4, 1996.
- Quentin Stevens, Karen A. Franck, Ruth Fazakerley. “Counter-monuments: the anti-monumental and the dialogic”.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23, no.5, 2018.
- Seaton. “Guided by the dark: from thanatopsis to thanatourism”. International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2, no.4, 1996.
- Stone.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vol.54, no.2, 2006.
- Stone. “Interpreting the ‘Impossible’ – Enlightening the ‘dark’ in dark tourism”. Interpretation Journal, vol.21, no.2, 2016.
- Tarlow. “Death and Commemoration”. Industrial Archaeology Review, vol.27, no.1, 2005.
- Wasserman. “To Trace the Shifting Sands: Community, Ritual, and the Memorial Landscape”. Landscape Journal, vol.17, no.1, 1998.

웹사이트

- http://blog.sina.com.cn/s/blog_161f83a500102whw3.html
- http://blog.sina.com.cn/s/blog_4dc5ae5301010a83.html
- http://blog.sina.com.cn/s/blog_5d3bfd340102dr3r.html
- http://blog.sina.com.cn/s/blog_715d89fe0102w7ka.html
- http://itech.ifeng.com/41608304/news.shtml?&back
- http://mil.news.sina.com.cn/2005-03-17/0726273589.html
- http://travel.people.com.cn/n1/2018/0326/c41570-29888559.html
- http://travel.qunar.com/p-oi5103774-yiselieyoutaidatushaji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http://travel.qunar.com/p-pl5752194
- http://www.auschwitz.org/edukacja/
- http://www.kmaeil.com(경인매일)
- http://www.shinailbo.co.kr(신아일보)
- http://www.ujeil.com(울산제일일보)
-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1/27/c_139702211_4.htm
- http://www.xinhuanet.com/politics/wcdz/jinianguan.htm
- https://berloga-workshop.com/blog/1002-rovaniemi-art-museum.html
- https://blog.naver.com/yuntae4511/222472383575
- https://gavindesign.com/helanerzhan-jinianguansheji.html
- https://gs.ctrip.com/html5/you/travels/306/1638835.html
- https://history.sohu.com/a/211714173_479934
- https://m.sohu.com/a/246206745_306436/?pvid=000115_3w_a
- https://new.qq.com/rain/a/20201022A00NUR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7937&cid=42140&categoryId=42140
- https://tinker.nl/en/work/national-monument-kamp-amersfoort
- https://www.archdaily.com/179679/yad-vashem-holocaust-museum-safdie-architects
- https://www.archdaily.com/31221/knut-hamsun-center-steven-holl-architects
- https://www.archdaily.com/72192/kolumba-musuem-peter-zumthor/25-custom?next_project=no
- https://www.archdaily.com/789147/iwan-baan-photographs-steven-holls-nelson-atkins-museum-for-its-ninth-birthday
- https://www.chicagotribune.com/travel/ct-trav-dark-tourism-europe-0318-20180302-story.html
- https://www.dark-tourism.com
- https://www.douban.com/note/717990068/?type=like&_i=5272020ubX1GY_
- https://www.douban.com/photos/photo/2197000636/#image
- https://www.familywithkids.com/finland/en/catalog/itis-shopping-center-eastern-helsi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ki-finland#tab-card-publications

- https://www.gooood.cn/camp-amersfoort-national-monument-by-inbo.htm
- https://www.gooood.cn/kamp-amersfoort-exhibition-by-tinker-imagineers.htm
- https://www.gooood.cn/national-museum-of-african-american-history-and-culture-washington-d-c-by-perkinswill.htm
- https://www.jmberlin.de/liste-museumsgeschichte
- https://www.kampamersfoort.nl/
- https://www.kampamersfoort.nl/rondleiding-en-educatie/rondleiding-en-projecten-educatie/
- https://www.meipian.cn/1w50ism9
- https://www.peace-nagasaki.go.jp/zh/guide
- https://www.sohu.com/a/167720098_281892
- https://www.sohu.com/a/484717938_121124385
- https://www.stevenholl.com/zh-hans/project/nanjing-sifang-museum/
- https://www.theolinstudio.com/memorial-to-the-murdered-jews-of-europe
- https://www.vsszan.com/forum.php?mod=viewthread&tid=107555&from=&attachpage=13
- https://www.wikiwand.com/en/Juhani_Pallasmaa
- https://www.yadvashem.org
- https://www.yadvashem.org/museum/holocaust-history-museum.html
- https://zhuanlan.zhihu.com/p/2580858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설문지
2. 국문초록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문지

1차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현상학
평가항목질문의 중요도 조사
연구명: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박사과정 중인 유가흥입니다.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연구의 항목에 관한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방문율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현상학 도입에 관한 공간평가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본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오직 학술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연 구 자 : 유가흥
지도교수 : 윤갑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별	○ 남	○ 여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학력	○ 학사	○ 석사	○ 박사 재학	○ 박사 수료	○ 박사
경력	○ 3년 미만	○ 3년~5년	○ 6~10년	○ 11~20년	○ 20년 이상
전공분야	○ 실내디자인	○ 전시디자인	○ 공공디자인	○ 시각디자인	○ 건축 ○ 기타

메모리얼공간 체험에 대한 질문

• 당신은 평소에 메모리얼공간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가?

○ 거의 없음 ○ 주 1~2회 ○ 주 3회~4회 ○ 한 달 1~2회 ○ 6개월 1~2회

• 메모리얼공간 견학 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 일산적인 체험 ○ 관광 ○ 기념행사 ○ 특수교육 ○ 예술체험

• 어떤 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가?

○ 전체구성 ○ 전시공간 ○ 추모공간 ○ 연결공간 ○ 외부공간 ○ 명상공간

• 당신은 이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용어설명

메모리얼공간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얼공간을 정신적 공간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복합문화공간 매개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메모리얼공간은 기억, 애도, 치유 등의 기능과 함께 상징, 은유, 가상 등의 표현을 통해 다차원적인 신체감각과 체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모리얼공간은 다크투어리즘의 한 체험장이자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 도시생활에서 중요한 감정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메모리얼공간은 역사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로서 도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메모리얼공간의 구성

주요 감정단위공간	
전체구성	관람자의 경험은 일체화되어 있고 전체구성는 특별한 교육이나 정서적 체험이 아닌 메모리얼공간 전체에 대한 표현을 강조함.
외부공간	외부공간은 건축 외부의 환경공간으로 물리적과 비물리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는 장소경계선, 마루, 벽, 개방공간, 유기적으로 이용한 공간, 건축과 외부, 외부공간 사이 등이 있음.
추모공간	추모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 한다'는 뜻인데 이에 따른 파생어가 추도와 위령이 있음. 이러한 추모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추모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추모공간이라고 함.
전시공간	기념적인 전시공간에서는 정보의 발신자와 수용자 사이의 일정한 공간에 일종의 또는 양 방향간의 교류의 수단으로서 존재함. 보는 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관찰과 공감을 유도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연결공간	연결공간은 '공간관람자가 이동하는 시간을 전제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 현상'을 체험한 시간 연계, 변화의 의미, 심리적과 물리적 차원 발달을 위한 공간 개념을 가진 기능. 이질적인 공간을 연결하고 구분해 체험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임.
명상공간	명상은 단순한 종교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 일반인들이 많이 찾음. 명상공간은 명상활동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명상의 의미는 명상공간의 기능보다는 미적 또는 형이상학적 방법이 우세하고 시대적 개념 변화에 따른 명상공간의 활용은 다양해지고 있음. 그 중 문화적 관점은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임.

현상학

"현상"이란 최초 그리스에서 명사로는 *φαινόμενον* (phainomenon) 로 유래되었으며, 동사형은 *φαινεσθαι* (phainesthai) 로부터 유래되어 자신을 나타내다와 자신을 표현라는 의미를 지녔다. 현상학은 최초 스스로 존재와 진리의 모든 기원을 포함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사물과 삶의 경험, 가치, 의미를 주체가 몸소 느끼면서 인간의 내면에 심리적 활동을 형성하고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유명한 철학자 후설(Edmund Husserl)이 거론했고, 이후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가 이론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들의 연구를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현상학의 사상은 교육, 예술, 음악,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특히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공간적 관점은 건축과 그 관련 학문, 예를 들면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실내디자인 등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건축현상학적 요소의 분류

건축현상학적 요소의 분류	
감지요소	감지 측면에서는 온도(심리적 감수성), 촉각, 소리, 색채, 시각관계는 신체에 의존하여 공간에 대한 기본감각을 형성하는데, 그 중 촉각이 가장 풍부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눈에 보이는 물체까지도 원거리의 촉각감각(유하니 팔라스마)을 형성한다.
조형요소	조형 측면에는 체량이 큰 건축, 구조물 비율 척도에서 인체와의 비교를 통한 복합적인 감수성이 주를 이룬다. 또한 행동유도는 구체적인 디자인 조형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유도로, 질서성은 공간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공간 도식적 사고이다. 인터페이스 허실관계, 연결성, 건축 세부는 공간장식 방법과 세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다.
구조요소	구조적인 측면에는 에워싸는 방식마다 다른 기초 공간을 형성하며 공간구조 형식, 조직 관계, 내외 환경 관계의 서로 다른 '얽힌' 처리가 공간 체험을 형성한다.
환경요소	환경 측면에는 경관구조물, 조각, 예술장치 등이 노드(Node)적 배치를 통해 연속적인 공간 체험의 토대를 이룬다. 빛, 물, 경관 산석 등 자연적 요소 도입으로 장소의 분위기를 살리고, 경관을 빌려 서정적인 목적을 가진다.
전체요소	정체성 측면에는 전체적인 감각, 지속적인 체험의 두 가지 측면은 신체와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인지 체험이고, 전체적인 체험은 공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지속적인 체험은 감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사회요소	사회적 측면에는 스티븐 홀의 말대로 "건축마다 그 터전, 환경, 문화에서 발전해야 한다. 건축 현상과 직결된 독특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공간의 인식은 환경에 대한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문화가 만들어내는 의식행사, 장식기법, 생활방식 등이 공간과 시간의 연계를 이루고 공간의 상징도 역사의 기억의 일부이며 체험자는 기호적 인식을 통해 역사를 회상하고 증명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다음은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 관한 사항입니다. 체험자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

작성예시 : 감지요소 관련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5점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최하 1점에 표시하면 됩니다.

요소	세부 지표 내용	중요도 평가 점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감지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의 시각적 요소들은 관람자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의 음향적 요소들은 체험 내용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그림과 영상 요소를 충분하게 사용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의 촉감적 체험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람자들은 전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체험만족도를 한 단계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에 적용된 색채는 추모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조형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지형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튀어나오지 않고 적당히 은폐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여러 추모 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구조 및 조형물을 활용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의 외관은 은유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외관 디자인을 이용해 관람자의 동선 유도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유질서과 무질서한 조형 디자인을 통해 체험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	①	②	③	④	⑤
	벽면의 조형 변화(편칭, 분할 등)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공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체험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테일 부분까지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①	②	③	④	⑤
	벽, 천장, 바닥 간의 연결 부분은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벽면과 천장 디자인은 각각의 공간이 지닌 허(虛)와 실(實)의 특징 및 관계를 적절히 반영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구조 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및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잇고 있는 관람자의 동선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빛을 활용한 요소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배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방식의 행위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바닥, 천장, 벽면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간에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부여했는가?	①	②	③	④	⑤
	전이공간(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 부분)은 관람자의 효과적인 체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환경요소	관람자가 신속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우러 진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메모리얼공간의 외부 경관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①	②	③	④	⑤
	경관도로의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감정을 이완시키는 휴식공간을 구비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에 조성된 분위기는 추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①	②	③	④	⑤
전체요소	이 메모리얼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 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체험 방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공간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서사가 지닌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에는 연속적인 감정체험노드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관람자들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회요소	메모리얼공간은 일상적인 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기념과 애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는가?	①	②	③	④	⑤
	정기적으로 사회 행사를 개최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직업과 연령에 따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해당 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심리 치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문지

2차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한 현상학
평가항목에 대한 AHP 중요도 조사
연구명: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박사과정 중인 유가흥입니다.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 모형 개발 연구의 항목에 관한 유의미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방문율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현상학 도입에 관한 공간평가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본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오직 학술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습니다.

귀하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연 구 자 : 유가흥
지도교수 : 윤갑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정보					
성별	○ 남	○ 여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학력	○ 학사	○ 석사	○ 박사 재학	○ 박사 수료	○ 박사
경력	○ 3년 미만	○ 3년~5년	○ 6~10년	○ 11~20년	○ 20년 이상
전공분야	○ 실내디자인	○ 전시디자인	○ 공공디자인	○ 시각디자인	○ 건축	○ 기타

메모리얼공간 체험에 대한 질문

• 당신은 평소에 메모리얼공간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가?

○ 거의 없음 ○ 주 1~2회 ○ 주 3회~4회 ○ 한 달 1~2회 ○ 6개월 1~2회

• 메모리얼공간 견학 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 일상적인 체험 ○ 관광 ○ 기념행사 ○ 특수교육 ○ 예술체험

• 어떤 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가?

○ 전체구성 ○ 전시공간 ○ 추모공간 ○ 연결공간 ○ 외부공간 ○ 명상공간

• 당신은 이 메모리얼공간의 다크투어리즘 체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설문 개요

본 조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42개의 지표를 도출하고, 1차 전문가 중요도 조사 및 2차 전문가 심층 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 6개의 영역과 37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출된 6개의 영역과 37개의 세부지표를 비교하여 영역에서의 상대적 비교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영역에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항별 상대 평가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의 점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 보다 '음향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시각적 요소가 기억에 대한 증강	5	4	3	2	1	2	3	④	5	음향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

● 다음 평가항목 지표를 참고하여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공간평가 항목 지표

연번	요소	세부 지표	질문 내용
1	감지 요소 (6)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메모리얼공간은 그림과 영상 요소를 충분하게 사용했는가?
2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메모리얼공간의 음향적 요소들은 체험 내용에 대한 관람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가?
3		재질 촉감의 체험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의 촉감적 체험을 만족시키는 재질을 사용했는가?
4		정보 획득의 용이성	관람자들은 전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메모리얼공간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체험만족도를 한 단계를 향상시켰는가?
6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메모리얼공간에 적용된 색채는 추모 주제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7	조형 요소 (6)	조형물의 독창성	메모리얼공간은 여러 추모 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구조 및 조형물을 활용했는가?
8		조형의 은유적 특징	메모리얼공간의 외관은 은유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9		외관 디자인의 유도	메모리얼공간은 외관 디자인을 이용해 관람자의 동선 유도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10		공간 질서유무	메모리얼공간은 유질서과 무질서한 조형 디자인을 통해 체험만족도를 향상시켰는가?
11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벽면의 조형 변화(편칭, 분할 등)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공간을 탐색한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부여했는가?
12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메모리얼공간은 체험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테일 부분까지 디자인이 잘 이루어졌는가?
13	구조 요소 (7)	사유공간	관람자에게 독자적인 추모 및 사유 공간을 제공하는가?
14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잇고 있는 관람자의 동선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메모리얼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빛을 활용한 요소가 있는가?
16		공간 배치의 적절성	메모리얼공간의 공간 배치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7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다양한 방식의 행위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18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바닥, 천장, 벽면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간에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부여했는가?
19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전이공간(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 부분)은 관람자의 효과적인 체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20	환경 요소 (7)	공간의 몰입도 조성	관람자가 신속하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가?
21		공간의 안정감	메모리얼공간은 도시의 분주한 환경으로부터 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22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메모리얼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러 진다고 생각하는가?
23		외부 경관과 건축의 조화	메모리얼공간의 외부 경관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4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관도로의 디자인은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관람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감정을 이완시키는 휴식공간을 구비하는가?
26		추모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메모리얼공간에 조성된 분위기는 추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27	전체 요소 (5)	공간간의 유기적 연관성	메모리얼공간을 구조하는 각각의 공간 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28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체험 방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가?
29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공간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서사가 지닌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30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메모리얼공간에는 연속적인 감정체험 노드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31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관람자들은 이 메모리얼공간에서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2	사회 요소 (6)	일상적인 체험	메모리얼공간은 일상적인 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33		애도의 기능	기념과 애도의 장소가 마련되었는가?
34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정기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가?
35		해설 설비스 제공여부	직업과 연령에 따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36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메모리얼공간은 해당 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37		감정의 치유 기능	메모리얼공간은 관람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심리 치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

질문 1) 다음은 공간평가 지표 중 평가항목별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1(비슷함)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감지요소	5	4	3	2	1	2	3	4	5	조형요소
감지요소	5	4	3	2	1	2	3	4	5	구조요소
감지요소	5	4	3	2	1	2	3	4	5	환경요소
감지요소	5	4	3	2	1	2	3	4	5	전체요소
감지요소	5	4	3	2	1	2	3	4	5	사회요소
조형요소	5	4	3	2	1	2	3	4	5	구조요소
조형요소	5	4	3	2	1	2	3	4	5	환경요소
조형요소	5	4	3	2	1	2	3	4	5	전체요소
조형요소	5	4	3	2	1	2	3	4	5	사회요소
구조요소	5	4	3	2	1	2	3	4	5	환경요소
구조요소	5	4	3	2	1	2	3	4	5	전체요소
구조요소	5	4	3	2	1	2	3	4	5	사회요소
환경요소	5	4	3	2	1	2	3	4	5	전체요소
환경요소	5	4	3	2	1	2	3	4	5	사회요소
전체요소	5	4	3	2	1	2	3	4	5	사회요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 2)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감지요소]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1----------5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5	4	3	2	1	2	3	4	5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5	4	3	2	1	2	3	4	5	재질 촉감의 체험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5	4	3	2	1	2	3	4	5	정보 획득의 용이성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5	4	3	2	1	2	3	4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요소의 기억 증강	5	4	3	2	1	2	3	4	5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재료 촉감의 체험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정보 획득의 용이성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음향이 체험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재질 촉감의 체험	5	4	3	2	1	2	3	4	5	정보 획득의 용이성
재질 촉감의 체험	5	4	3	2	1	2	3	4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재질 촉감의 체험	5	4	3	2	1	2	3	4	5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정보 획득의 용이성	5	4	3	2	1	2	3	4	5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정보 획득의 용이성	5	4	3	2	1	2	3	4	5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첨단기술이 체험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색채와 주제의 상호작용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 3)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조형요소]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	4	3	2	1	2	3	4	5	
조형물의 독창성	5	4	3	2	1	2	3	4	5	조형의 은유적 특징
조형물의 독창성	5	4	3	2	1	2	3	4	5	외관 디자인의 유도
조형물의 독창성	5	4	3	2	1	2	3	4	5	공간 질서유무
조형물의 독창성	5	4	3	2	1	2	3	4	5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조형물의 독창성	5	4	3	2	1	2	3	4	5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조형의 은유적 특징	5	4	3	2	1	2	3	4	5	외관 디자인의 유도
조형의 은유적 특징	5	4	3	2	1	2	3	4	5	공간 질서유무
조형의 은유적 특징	5	4	3	2	1	2	3	4	5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조형의 은유적 특징	5	4	3	2	1	2	3	4	5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외관 디자인의 유도	5	4	3	2	1	2	3	4	5	공간 질서유무
외관 디자인의 유도	5	4	3	2	1	2	3	4	5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외관 디자인의 유도	5	4	3	2	1	2	3	4	5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공간 질서유무	5	4	3	2	1	2	3	4	5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공간 질서유무	5	4	3	2	1	2	3	4	5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공간조형의 변화가 체험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공간 디테일 부분의 개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 4)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구조요소]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	4	3	2	1	2	3	4	5	
사유공간	5	4	3	2	1	2	3	4	5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사유공간	5	4	3	2	1	2	3	4	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사유공간	5	4	3	2	1	2	3	4	5	공간 배치의 적절성
사유공간	5	4	3	2	1	2	3	4	5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사유공간	5	4	3	2	1	2	3	4	5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사유공간	5	4	3	2	1	2	3	4	5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공간 배치의 적절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성	5	4	3	2	1	2	3	4	5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5	4	3	2	1	2	3	4	5	공간 배치의 적절성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5	4	3	2	1	2	3	4	5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5	4	3	2	1	2	3	4	5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시간,공간성 확장 위한 빛의활용	5	4	3	2	1	2	3	4	5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공간 배치의 적절성	5	4	3	2	1	2	3	4	5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공간 배치의 적절성	5	4	3	2	1	2	3	4	5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공간 배치의 적절성	5	4	3	2	1	2	3	4	5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5	4	3	2	1	2	3	4	5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행위 체험 제공	5	4	3	2	1	2	3	4	5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구조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다양한 감정의 완화와 전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 5)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환경요소]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	4	3	2	1	2	3	4	5	
공간의 몰입도 조성	5	4	3	2	1	2	3	4	5	공간의 안정감
공간의 몰입도 조성	5	4	3	2	1	2	3	4	5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공간의 몰입도 조성	5	4	3	2	1	2	3	4	5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공간의 몰입도 조성	5	4	3	2	1	2	3	4	5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간의 몰입도 조성	5	4	3	2	1	2	3	4	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공간의 몰입도 조성	5	4	3	2	1	2	3	4	5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공간의 안정감	5	4	3	2	1	2	3	4	5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공간의 안정감	5	4	3	2	1	2	3	4	5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공간의 안정감	5	4	3	2	1	2	3	4	5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간의 안정감	5	4	3	2	1	2	3	4	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공간의 안정감	5	4	3	2	1	2	3	4	5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5	4	3	2	1	2	3	4	5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5	4	3	2	1	2	3	4	5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5	4	3	2	1	2	3	4	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5	4	3	2	1	2	3	4	5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5	4	3	2	1	2	3	4	5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5	4	3	2	1	2	3	4	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외부의 경관과 건축의 조화	5	4	3	2	1	2	3	4	5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환경이 체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환경이 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	5	4	3	2	1	2	3	4	5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감정을 이완시키는 공간구비	5	4	3	2	1	2	3	4	5	추모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 6)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전체요소]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	4	3	2	1	2	3	4	5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5	4	3	2	1	2	3	4	5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5	4	3	2	1	2	3	4	5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5	4	3	2	1	2	3	4	5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성	5	4	3	2	1	2	3	4	5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5	4	3	2	1	2	3	4	5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5	4	3	2	1	2	3	4	5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다양한 체험방식 부여	5	4	3	2	1	2	3	4	5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5	4	3	2	1	2	3	4	5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서사적 공간형성 여부	5	4	3	2	1	2	3	4	5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연속적인 감정체험 공간	5	4	3	2	1	2	3	4	5	전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

질문 7) 공간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위하여 [사회요소]의 세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당란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1점에 표기)

상대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상대평가항목 (오른쪽 평가항목)
	왼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양쪽의 중요도가 비슷함			오른쪽 평가항목이 더 중요함			
	5	4	3	2	1	2	3	4	5	
일상적인 체험	5	4	3	2	1	2	3	4	5	애도의 기능
일상적인 체험	5	4	3	2	1	2	3	4	5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일상적인 체험	5	4	3	2	1	2	3	4	5	해설 서비스 제공 여부
일상적인 체험	5	4	3	2	1	2	3	4	5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일상적인 체험	5	4	3	2	1	2	3	4	5	감정의 치유 기능
애도의 기능	5	4	3	2	1	2	3	4	5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애도의 기능	5	4	3	2	1	2	3	4	5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애도의 기능	5	4	3	2	1	2	3	4	5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애도의 기능	5	4	3	2	1	2	3	4	5	감정의 치유 기능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5	4	3	2	1	2	3	4	5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5	4	3	2	1	2	3	4	5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공간 기념행사의 참여성	5	4	3	2	1	2	3	4	5	감정의 치유 기능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5	4	3	2	1	2	3	4	5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해설 서비스 제공여부	5	4	3	2	1	2	3	4	5	감정의 치유 기능
해당 지역과 문화교류	5	4	3	2	1	2	3	4	5	감정의 치유 기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 8) 기타 평가의견

위의 항목 외에 추가될 지표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은 소중이 받아 좋은 연구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일 : 2022년 월 일 평가자: (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 초록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의 현상학적 평가모형 개발

유가홍
지도교수 : 윤 갑 근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조선대학교 대학원

메모리얼공간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는 기념의 형성과 발전에서 잘 드러난다. 메모리얼공간과 지역 역사문화가 어우러져 지역의 경제적·정신적 정서를 위해 특별한 기억과 특색 있는 관광체험, 일상생활의 욕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새로운 시대에 메모리얼공간은 정신적 상징이 주를 이루는 도시의 중요한 공간이다. 정신 치유와 개인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다크투어리즘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전통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고,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각, 행위,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메모리얼공간은 다크투어리즘 체험의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인 기념행사와 함께 관람객의 체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관람객의 행동과 정서적 욕구도 고려해야 한다. 다크투어리즘 체험 수요가 확대되면서 3D 프로젝션, VR 기술,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첨단 기술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시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행동이 주체가 되는 디자인 트렌드는 여전히 메모리얼공간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며, 현실 공간과 가상기념의 유기적 연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존과 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호보완 속에서 인류 메모리얼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본 연구는 장소와 환경, 신체와 공간, 기술과 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상학적 공간인지 방법을 메모리얼공간에 적용했다. 또한 현상학적 인지요소들을 하나로 연구하여 다크투어리즘 관람객들에게 다차원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메모리얼공간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상학적 공간적 관점을 도입하여 체험자를 중심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감지하고, 행동하는 메모리얼공간에 대한 평가모형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이론과 공간적 관점을 바탕으로 24개의 현상학적 공간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6가지로 분류했다. 분류에 따른 1차 예비항목 평가표를 작성하고 문제중요도 분석과 전문가 FGI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공간평가 항목을 도출했다. 그리고 1차에 선별한 공간 평가지표를 2차 전문가 AHP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 종합표와 항목 평가함수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 평가모형을 검증한 표본은 2010년 이후 신축된 메모리얼공간 중 6명의 관리자가 우선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와 분석 결과는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과 소속 부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간평가 결과를 보면 공간평가에 대한 평가자별 점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점수의 차등에 따른 다른 성향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한 근무연한이나 근무부서 등에 따른 비슷한 점수 분포를 발견할 수 있다.

개발된 공간평가모형은 중요도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에 따라 최우선 순위를 도출하며, 이러한 세부 공간평가모형은 중요도에 따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간평가모형은 평가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 평가로 공간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유리하다.

향후 메모리얼공간을 설계나 개조할 때 계획 단계에서 공간체험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평가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주제어: 메모리얼공간, 다크투어리즘, 건축현상학, 계층분석기법, 평가모형 개발